# 현대불교

제 783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5월 12일 수요일 (음력 3월 29일 · 불기 2554년 · 주간)













# 시청앞에 쌍사자탑 불 밝혀

## '소통과 화합' 두손 모아 발원

불기2455년 봉축등이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발원하며 서울광장에서 점등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는 5월 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속리산 법주사 쌍사자 석등을 형상화한 대형 등을 켜는 점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 영담 스님, 오세훈 서울시장, 문광부 조창희 종무실장 등 2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특히 점등에 앞서 천안함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한편, 용산참사 故 김남훈 경사 아버지 김권찬씨, 외국인노동자 바하두르씨, 나눔의 집 강일출 할머니, 승가원 김가영 어린이 등 사회 각 계층 구성원과 주한인도대사관 라자세카르 공사와 중국, 브라질, 이탈리아 등 외교 관계자가 참석해 '화합의 등'의 의미를 더했다.

자승 스님은 기원문에서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며 계층과 이념, 지역 갈등의 장벽을 넘어 진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함께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민족의 대결과 갈등이 심화되지 않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자 모두가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14 선지식-허정 스님 ▶4 인터뷰-정선 스님 ▶9 현장-JTS 길벗 명동 거리모금


## 석탄일에 시민행사 광주사암련 성명 광주시 강행 방침

광주시가 부처님오신날인 5월 21일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지역불교계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박광태)는 21일 부처님오신날에 대규모의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 이하 사암연합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민의 행사를 앞날 또는 전날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사암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교인의 가장 큰 명절에 '시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광주광역시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1년에 52번 있는 '일요일'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국장 묘장 스님은 "광주불교사암연합회의 뜻을 존중하지만, 종단 차원의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지역 사암연합회에서 대응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상언 기자

## 이 수석이 복권 제의 김영국씨 밝혀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안상수 원내대표의 프라자호텔 회동 내용을 알려준 김영국 前 조계종 특보가 청와대 외압설을 재차 확인했다.

김영국 前 특보는 5월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이 명진 스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참고인으로 조사 받은 후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자회견 전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부터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대가로 사면복권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前 특보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소강상태를 맞고 있는 봉은사 사태가 청와대 외압설을 시작으로 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조동섭 기자

■ 다람살라의 5월 5일

# "인간 정신은 강인하고 존귀해요"

## 리차드 무어 크로스파이어 활동가 다람살라 방문해 특강



빈민층 어린이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리차드 무어의 강연을 듣고 있는 다람살라의 어린이들.

한국의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미국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장관이 '한국의 어린이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축전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다. 미국 교육 자본 시장에 있어서 한국의 어린이는 확실히 질 좋은 씨앗이라는 점이다.

실제 한국인 부모의 자녀를 향한 교육 열기는 이스라엘 부모를 능가하는 세계적 수준이다. 월수입의 30% 이상을 사교육비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가정교육 시스템이 이를 증명한다.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정부에는 특별히 어린이날이 없는 것 같다. 10월 두 번째 주가 어린이를 위한 날인 것 같다고 티베트 친구가 말해줬지만, 티베트 달력에는 표기돼 있지 않다.

티베트에서 망명한 15세 이전의 어린이는 다람살라의 TVC (Tibetan Vill of Children) 학교에 거주하며 12학년의 교육과정을 거친다. 현재 이곳에는 5개 학교에 3500여 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다.

14대 달라이 라마(텐진 갸초)의 숙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티베트 어린이들의 현대화된 교육이다. 현대화된 교육이라 함은, 디지털화된 첨단 교육의 문명이 아니다. 그가 제시하는 교육 이념은 티베트의 전통 이념을 보존하되 세계와 소통하는데 모난 곳 없이 자연스러운 인성과 지식을 쌓는 것에 가깝다.

5월 5일. 여느 때와 변함없이 무난한 다람살라의 평일. 달라이 라마는 리차드 무어(Richard Moore)와 그의 가족을 초대했다. 이날 TCV 강당에는 망명정부 산하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천여 명의 내외빈이 48세의 아일랜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자리했다.

"나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영국 군인의 고무 총알에 의해 두 눈을 멀었습니다. 이후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분노를 연민으로 바꾸는 힘을 배워갔습니다."

본의 아니게 잃은 시력으로 더 넓은 세상을 깊게 바라보게 됐다고 말하는 리차드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등 세계 각국의 빈민층 어린이를 지원하는 '크로스파이어(Crossfire)라는 국제기구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건강한 나무의 시작은 뿌리에 있습니다. 티베트는 현재 망명정부라는 현실적 비극에 놓여 있지만, 훌륭한 불교문화와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스승이라는 튼튼한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어린이들의 미래를 승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역경을 충분히 극복할 만큼 강인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리차드의 아버지 리암(Liam)은 1972년 그의 한 쪽 눈을 아들에게 기증했다. 그리고 37년 후 당시 아버지의 물음은 리차드의 자서전 <an I Give Him My Eyes>의 제목이 됐다.

달라이 라마는 그의 볼을 맞대어 부비며 "오늘의 만남이 티베트 어린이들에게 바른 미래를 설계하는데 영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오늘날 만연한 인간의 분노와 적개심으로 이미 우리 모두는 두 눈을 잃은 것과 다르지 않다. 천진한 웃음을 지닌 당신의 미소 속에서 아이들의 평온을 보았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노벨평화상 수상자"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인도 다람살라=가연숙 객원기자

# 학생 종교인권 제도개선 서약

## 종자연, 교육감 후보 곽노현 · 박명기 참석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외 3인)은 5월 7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센터에서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를 초청, 학생 종교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6월 2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예비후보 중 곽노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명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두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종교강요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 실시 전 학생(학부모)에게 고지, 대체과목을 개설토록 지도 감독 △종교행사를 강요해 학생의 종교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는 3개항의 서약서에 서명해 박광서 공동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상언 기자


능인향당 www.nihwa.com

순수원향을 지향하는 고품격 향의 명가

능인향당은 자가접착의 법제기술을 보유한 초유의 회사입니다.
당사의 전제품은 기도나 염불시에 일체의 호흡을 해치지 않는 순수원향으로 연기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재나 탄산칼슘 성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침향은 다른 나라에 로열티를 주고 수입하여 판매하는 침향과는 다른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향입니다.
능인향당에서는 불가의 최고가치인 복장물용 침향과 침향선향, 침향염주 등 침향제품을 베트남 현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침향 제품군




프리미엄 침향에 인도 마이소르산 최상급 백단을 더하여 향의 품격을 한껏 올린 새로운 향

프리미엄 침향에 불가의 오단향인 진자단향을 더한 명상과 기도용 향의 수작

능인향당 향 법제기술의 총아, 프리미엄 자연산 순수 침향100%로 만든 침향제품의 명작



능인향당에서는 정확한 등급의 침향복장물을 공급합니다.

沈香會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6번지 (02)3663-6777 직영매장 : 02)730-6888(조계사맞은편), 인사점(통인가게입구)

爐香觀空法圖 -金弘道

# 잘 듣고 생각하고 말함이 부처님 만나는 길

## 종산 스님 등 불교 지도자 봉축법어 · 봉축사 발표

불기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종단 지도자들의 봉축법어와 봉축사가 잇따라 발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6일 봉축법어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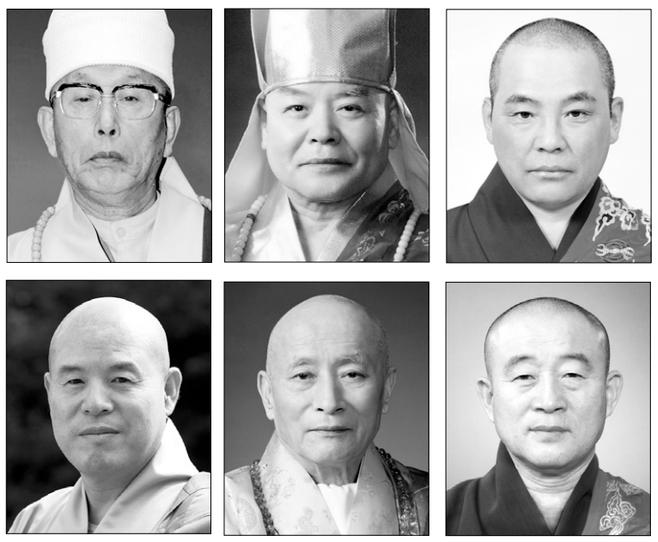
스님은 봉축법어에서 "부처님은 중생의 구제를 위해 오신 분"이라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은 참으로 좋은 날, 즐거운 날, 기쁜 날이다. 모두가 두 손 합장하고 다 함께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기는 공양을 올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봉축법어에서 "잘 듣고 생각하고 말해 통하면 부처님을 만난다"며 "겸손하고 진솔하게 남의 말도 잘 듣고 생각을 깊이 해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 어느 틈에 부처님이 곁에 와서 활짝 웃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세월은 물거품 같고 번개불 같아 무량겁의 바람을 밟아 이뤄지고 쓰러지기 여러해 물병과 발우로 탁발해서 부처와 조사를 다시 탐구하니 여러번 쓰러지고 일어난 이치는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3일 봉축법어를 통해 "부처님 오신 참 뜻은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선언하고 실현한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쁨을 얻을 수 없고 땀 흘리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을 위해 등불을 밝혀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봉축의 기쁨을 나누자"고 강조했다.



(윗줄 좌측부터) 조계종 원로의장 종산 스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일 불기2554년 봉축사를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사부대중은 스스로를 등불삼고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삼아 여일한 정진과 자비로운 보살행을 통하여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 것이 모두 일가를 이룬다"며 소통과 나눔을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6일 봉축사를 통해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일체중생의 행복과 영원한 자유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다" 며 "불교는 일상생활에서 수행과 전법을 통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는 실천의 종교이자 생활의 종교"라고 말했다.

스님은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고 삶의 순간마다 깨어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깨달음은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3일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은 나와 네가 다르지 않고 우리가 다르지 않으며 더 나아가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아 일체중생이 다 나의 아들임을 열어 보인 분"이라면서 "부처님은 몸으로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고, 마음으로는 걱정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으로 응어리진 우리 중생에게 본래 늙고 죽을 것도 없는 영원한 생명임을 가르쳐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정산 스님은 "우주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며 세상의 모든 초목과 미천한 미물들이다. 그리고 나와 절대 다르지 않은 부처이다. 사월초파일. 꽃바람에 타고 실려 온 이 거룩한 소식에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합장하자"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제안

## 미국에 필요한 포교전략 세 가지

美 국민 약 3억 명 중 300만 명 정도가 수계를, 5000만 명 정도가 명상(부디스트 크리스찬, 부디스트 카톨릭 등 포함)을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불교와 명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미 교포가 200만 명 정도이며, 이중 약 3%(6000여 명)가 불자로 추산된다. 이들 중 70~80%가 서양종교에 귀의해 활동하고 있다.

미국 내 한국불교는 그동안 서경보 · 법안 · 도안 · 숭산 스님과 같은 선지식이 개척해 놓은 업적을 계승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에 한국불교 포교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종합포교센터 개원**
**전법사단 출범시켜야**
**불교복지자원 봉사자 양성**

첫째, 미국 수도 워싱턴DC를 중심으로 재미교포와 미국인을 상대로 한국불교를 널리 알릴 공간이 필요하다. 즉 철야기도, 새벽기도, 용맹정진 등으로 365일 24시간 교포나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조계종 직영 '미국종합포교센터'를 개원해야 한다.

'미국종합포교센터' 건설을 위해 조계종이 인적 · 재정적 지원을 책임지고 직영으로 주관하면서 권선한다면 국내 · 외 불자가 십시일반으로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점차적으로 '조계종미주종합포교센터'는 미주지역은 물론 유럽과 아프리카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해외포교센터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포교센터 주지스님 임기는 4~5년 단임제가 좋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주지스님이 포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재정 등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스님을 외호할 수 있는 전법사 및 종무행정포교사도 필요하다.

두 번째, 전법사 및 종무행정포교사 양성을 위해 미국 수도 워싱턴DC를 중심으로 '조계종미국전법사단'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을 현장에 투입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재교육과 수행과정을 거친다면 전 미주는 물론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파견시킬 수 있는 한국불교포교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교포와 미국인 대상으로 '불교복지자원봉사자'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사회의 종교문화적 다양성 환경 속에서 불교복지봉사의 가치를 인식하고 교포 가족에게 효과적인 당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봉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조계종직영 종합포교센터가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수행력과 도덕성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스님이어야만 재가자들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덕목을 가진 스님과 전법사, 복지자원봉사자들이 포교센터를 운영한다면 분명히 해외교포가족과 현지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력이 돼 주리라 확신한다.

최평규
美.워싱턴DC고려대
불자교우회 고문
행정학 박사





**진흥원, 봉축위에 5000만원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5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축위원회 위원장 자승 스님에게 봉축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민병천 이사장에게 "진흥원 일은 잘 마무리 됩니까?"라고 물었고, 민 이사장은 스님에게 "잘되겠죠"라고 답했다.
총무부장 영담 스님, 사서실장 경우 스님, 진흥원 기획실장 신진욱 법사가 배석한 회동에서는 주로 연등제 이야기가 오갔다. **조동섭 기자**

## 중앙승가대 공양물 기록 전무

### 제88차 이사회의서 감사결과 지적

사찰 재정 투명화가 사회이슈화가 된 가운데 중앙승가대가 전국 사찰 등에서 시주받은 공양물에 관련한 기록물을 전혀 남기고 있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자승)이 5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제88차 이사회의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감사 덕관 스님은 "감사 결과 부식물 등 보시 내역에 대한 기록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은 "학교 장부에 공양물을 일일이 기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고, 영담 스님(총무부장)은 "학교 재정과목에서 교비와 기숙사비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산 감사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 외에 △총무처장 월우 스님의 유급 안거 문제 △학교후원 관리 부실 △회계상 예산 전용 △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시 비용절감 내역 허위보고 △법인카드 사용 △교직원 처우개선 등이 지적됐다.

이어 임원 선임의 건에서는 종하 스님 후임으로 성문 스님(동화사 주지 당선자)이, 정념 스님 후임으로 동문회장 원정 스님이 이사 선임됐다.

이날 이사회의에는 감사보고를 포함한 2009년 법인 및 대학 자금운영 결산 심의의 건, 임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됐다. **조동섭 기자**

## 4대강 반대 한목소리
## 청화 스님 초청 대법회

경기지역 청년 불자들이 4대강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회장 이호광)은 5월 8일 수원사 만불보전에서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와 불교발전을 위한 청화큰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했다.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파괴되는 생명과 환경문제를 돌아보고, 불교청년 및 재가단체의 활동 방향을 모색코자 마련된 행사에는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 손학교 민주당 前 대표, 김진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 종지협 공동대표의장
## 이광선 목사 추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제9대 공동대표 의장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추대됐다.

종지협은 5월 3일 성북구 삼청각에서 열린 제13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9대 의장 이광선 목사는 사학법 파문에 휩싸였던 2006~2007년 통합 제91회기 총회장으로서 재개정 운동에 앞장서 왔다. 사학법 문제 등 교계와 한국사회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온 이 목사가 종지협 의장에 추대됨에 따라 종지협의 행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언 기자**


# 원효학연구원 논문공고

원효학연구원 논문공모원효학연구원에서는 원효성사의 불교사상과 종교적 실천정신을 따르고 선양하기 위하여, 매년 『원효학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학자들의 논문을 연중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채택되는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원효학연구』에 게재하여 연구업적을 기리어드리겠습니다.

◈ **응모자격**
불교학 또는 불교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과정 이상의 학자

◈ **논문공모**
분야불교학 및 불교와 관련된 분야

◈ **연구계획서 제출**
연구계획서 : 연중 모집 / 제출 방법 : E-mail 또는 우편

◈ **심사 및 결과통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개별통지

◈ **채택된 논문제출 기한**
논문제출마감 :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문의 및 제출처주소** : 780-110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2번지 분황사
원효학연구원담당 : 윤혁권 교수(원효학사무국장)
m.p 010-3598-7658 ☎ 054)770-2129 / 팩스번호 : 054)771-9850
E-mail:slmls@hanmail.net / agatalee@hanafos.com (두 곳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 www.wonhyo.or.kr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취지 공감하나 개편안은 의견 대립

## 조계종 교육원 승가 기본교육기관 등 조정안 마련 위한 공청회서 찬반 격론

전통강원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승가 기본교육기관 조정안을 두고 종단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고 있다. 기본교육과정 교과개편안과 맞물려 기존 전통강원 존폐와 표준화된 기본교육으로 이어지는 조정안을 두고 분열된 찬 · 반론은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봉은사 사태로 종무행정에 타격을 입은 제33대 집행부로서는 교육원의 교육개선안마저 소통부재를 이유로 일선 교직자 등의 반발에 부딪힘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5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승가 기본교육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는 기초선원장 지환 스님,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원정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이상 반대),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 중앙종회 의원 주경 스님(이상 찬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행사는 기본교육기관 조정 등 교육원의 교육개선(안)으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소통 뿐임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출가자수 감소 대비해야**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매년 배출되는 예비승(사미 · 사미니)은 300명 선인데 이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기관은 23개로 적정 학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10년간 절반 수준인 출가자수의 감소 추세를 보면 현 지방승가대학 숫자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교육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해 공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출가자 감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지방승가대학 예산 대비 많아**

지방승가대학의 교육여건이 취약한 원인은 종단 예산 규모에 비해 대상기관 숫자가 많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원철 스님은 "2005년 승가교육제도개선위원회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다수인 22.8%가 '일정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수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종단은 수차례 종령 개정을 통해 지방승가대학의 최소 기준을 조정해 왔다. 승가대학령이 제정된 1996년에는 학년별 정원 12인 이상 총 정원 50인 이상이던 학인 정원은 1997년 개정에서는 학년별 정원 7인 이상 총 정원 30~80명으로 조정됐다. 이후 2009년 개정에서는 일부 승가대학으로 학인스님이 몰려 다른 승가대학이 정원 미달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년별 정원 5~40인 총 정원 20~160인으로 조정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원철 스님은 "2005년 설문결과에서 응답자 중 30%가 강원 학년별 적정 학인 수를 11~15명으로, 응답자의 28.5%가 16~20명이라고 답했다"며 "기본교육기관을 적정수로 줄이면 예산을 집중 투입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으로 기본교육이 획일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지환 스님은 "수준 높은 수행자 양성을 위해서는 출가자의 개성에 맞춘 맞춤교육이 중요하다. ①동국대, 중앙승가대는 학문 중심의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②전국 강원은 승가전통교육의 중심이 되고 ③기초선원은 선 수행 중심의 체계적인 이론 교육을 담당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정 스님은 "강원 통폐합 후 대안으로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겠다는 안은 학인의 질적 수준 저하를 우려케 한다"면서 "각 기본교육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상훈 스님(쌍계사 주지)은 "전통은 다른 곳에 없지만 우리가 갖은 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웃종교와 비교했을 때도 불교의 강원 문화는 유일하다. 기본교육은 전통강원 형식대로 두자"고 말했다.

영조 스님은 "교육의 질만 우선하다보면 습의 등을 소홀히 하기 쉽다. 집단생활을 통한 학습효과도 염두에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東大 기본교육기관 부적합**

원철 스님은 "동국대는 교육내용과 환경이 출가승려의 예비승 교육과정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재가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대학 특성 상 승가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내용과 환경은 비비돼 있다는 주장이다.

성관 스님은 "동국대 종비생의 기본교육과정 제외는 안된다"면서 "학제간 통섭이 추세인 학문 연구 경향으로 비춰봐도 동국대 등에서 이뤄지는 제도권 교육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기본교육 중복 이수 폐해 심각**

지방승가대학 졸업한 학인스님이 다시 동국대와 중앙승가대학으로 진학하는 수가 많은 것(2010년 4월 현재 172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원철 스님은 "한 스님이 4년 과정의 기본교육과정을 중복 이수하며 8년을 소비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종단 현실상 기본교육을 8년이나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기본교육을 중복 이수하는 스님들로 인해 지계구분에 의한 위계 대신 학번에 따른 위계가 관습화돼 승가 고유의 위계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경 스님(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사무처장)은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의 교육환경이 다른데 일방적으로 획일화한 경향이 있다"고 반박했다.

**#기초선원 기본기관으로 부적절**

간화선을 종지종풍으로 한 조계종단의 기본교육기관인 기초선원이 기본교육기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기초선원에는 한 해 30여 명의 학인이 입방하고 있다.

원철 스님은 "기초선원의 교과안거가 정규과목이 아닌 특강 형식으로 1년에 2개월 남짓(봄 · 가을) 밖에 되지 않아 교육이 불충실하다. 선어록 중심의 교재는 전문교육기관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해제 시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이 장기간 상실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초선원에 관한 허술한 학사행정 관리도 기초선원을 부적절한 기본교육기관으로 만든 원인으로 꼽혔다.

지환 스님은 "기초선원에서는 결재 중에도 매일 1시간 교과학습을 하고, 해제 중에는 매일 2시간 교과학습을 한다"면서 "실참 중심의 선원 특수성에 대해 교과목의 차별이 없다는 교육원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 반박했다.

**#종도간 소통의 중요성 재확인**

정혜 스님(쌍계사 선원)은 "공청회에 피교육자인 사미 · 사미니도 참석했어야 했다"면서 "지난번 강사스님들이 교육원의 의견 듣지 않고 성명서만 발표하고 나선 것도 결국 교육원의 소통 부재를 반증한 예"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전문교육기관 설립에 우선해 전문화된 교수 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교육원의 기본교육 개선안은 구조조정 대상인 강원 실무자 · 출신자, 동국대 · 중앙승가대 위상변화 시도에 따른 동문스님 등의 반발 수렴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 이를 위해서는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의 통폐합 문제는 양 기관에 맡기고, 강원 반발은 현 교직자 대책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교육원이 기초선원 정원을 1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안에 관해서는 조계종 정체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조정안

## 동국대 불교대학은 기본교육기관 제외 검토

출가자 감소를 이유로 강원 등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이 대폭 구조조정 된다. 구조조정안에는 '선택'과 '집중'을 논리로 지방승가대학(강원) 통폐합과 동국대, 중앙승가대의 위상 변화를 담고 있어 기본교육 교과과정 개편안과 함께 앞으로도 큰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5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승가 기본교육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교육원의 조정(안)에 따르면 23개 기본교육기관 중 균형있는 교과과정, 적정수의 교수 · 학인, 교육시설 등을 갖춘 곳은 종단이 집중 지원해 승가교육의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여건이 여의치 않은 곳 중 원하는 곳과 기존의 학림, 율원 등은 전문교육기관(전문대학원)으로 육성키로 했다. 새로 설립될 전문교육기관은 한문불전 · 율장 · 선학 · 초기불전 등으로 특성화된다.

교육원이 정한 2005년 승가교육제도개선위원회 설문결과의 기준을 적용시키면 현재 학년별 정원 11~15인, 총 정원 44~60인을 만족시키는 곳은 23개 강원 중 해인사 · 통도사 · 송광사 승가대학(이상 사미), 동학사 · 운문사 · 청암사 · 봉녕사 승가대학(이상 사미니) 뿐이다.

백양사 · 수덕사 · 범어사 · 법주사 · 불국사 · 화엄사 · 직지사 · 쌍계사 · 동화사 · 선운사(이상 사미), 삼선승가대학 · 유마사(이상 사미니)는 기본교육기관 인가 취소 등 조치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동국대 불교대학의 기본교육기관 제외가 검토되고, 중앙승가대학은 지방승가대학을 대신해 복지, 군포교 등 국가공인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기본선원의 정원은 10명으로 축소되고, 주지를 포함한 종무원법이 정한 각종 행정 종무직 취임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된다.

기본교육기관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20%인 기본교육 미이수자를 승적말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기조발언에서 "6월 중 · 하순 집중적으로 전문대학원 설립안과 지방승가대 교수스님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죽비와 목탁

# 상대 종교에 대한 배려 필요해

영 · 호남이 들썩이고 있다.

개신교계는 동화사 일대에 조성될 불교테마공원을 갖고 대구시를 상대로 딴지를 걸고 있다. 호남지역 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인 5월 21일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광주시를 상대로 종교편향이고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광선)은 정부와 대구, 동화사가 팔공산 일대에 조성할 팔공역사문화공원이 특정 종교에 편향되게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기독교인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들은 26일에 특정 종교 편향적 예산 집행을 저지하겠다면서 대규모 기도회를 개최한다. 또, 팔공역사문화공원에 앞서 조성될 국제관광선원과 내년 치러질 대장경문화축전에도 찬물을 끼얹을 심산이다.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의 날'을 5 · 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이 옛 도청에 입성한 5월 21일로 변경했다. 공교롭게도 부처님오신날과 겹치게 됐다.

이에 대해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종교차별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 올해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5월 21일(부처님오신날) 하루 전 · 후일로 변경해 실시하기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신교는 불교문화가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정부 돈이 남에게 쓰이느 ㄴ것에 배아파하고, 불교계는 '내 잔치가 우리 잔치여야 한다'는 상(相)에 갇혀버린 것 아닐까?

<법구경>에는 "그는 나를 욕했고,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고, 그는 내 것을 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움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성경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맞으라시니"라고 했다. 내 주장만을 내세우기에 앞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자.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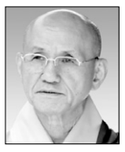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봉은사 대중의 지극한 기도가 모여 도량 정비, 사부대중 공동 운영 시스템, 사찰 재정 공개, 사회공헌 활동의 확대 등 불교계의 지형을 바꿀 만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은사 대중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원력을 세웁니다. 회향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봉은사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흥이라는 서원을 향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 대표전화 : 02) 3218-4800 / 신도회 : 02) 516-6630 / www.bongeunsa.org

## 일 주 문



**지구촌공생회 나눔산행**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5월 29일 아차산 구리정각사~서울영화사 구간에서 생명의우물 사업 후원을 위한 나눔산행을 봉행한다. (02)3409-0303



**지선 스님 오월어머니상 수상**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은 5월 8일 광주 오월어머니집으로부터 5 · 18민주화운동을 전개 · 계승한 공로로 오월어머니상을 수상했다.



**육사 밀교수행법회 봉행**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5월 12일 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 호국사에서 밀교수행법회를 봉행한다. (02)6328-0136



**수덕사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예산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5월 16일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충남도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 (041)338-9900



**동국대 석림동문회 제14대 회장**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4월 29일 동국대석림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제 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화엄사 제5회 화엄예술제 개최**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5월 21일 화엄사에서 제5회 화엄예술제를 개최한다. (061)783-7600



**영월 법흥사 창작연등 공모전**

영월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5월 21일 법흥사에서 창작연등 공모전을 개최한다. (033)375-9173



**불광사 불광생태길라잡이 활동**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5월 16일 송파나루공원 일대에서 제35차 불광생태길라잡이활동을 개최한다. (02)417-2551



**천태 어린이 글 그림짓기 대회**

서울 천태종 관문사 주지 영제 스님은 5월 9일 관문사에서 천태 어린이 글 · 그림 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불교 세계관과 사찰구조**

김유신 한국불교문화정보연구원 운영위원장은 5월 18일 만해NGO센터에서 열리는 불교아카데미에서 '불교적 세계관과 사찰 구조'를 주제로 강의 한다.

interview

# "우리 모두가 부처님 품안에서 하나"

## 정선 스님, 다문화가족에게 '가족복지' 사업 펼쳐

"모두가 우리 가족입니다. 타국에 와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기르는 동남아 여성들은 '피부색만 다를 뿐' 결국 부처님 품안에서 모두가 하나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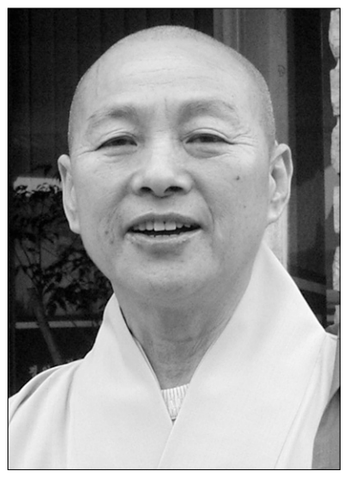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 대표 정선 스님(대광사 주지 · 사진)은 조선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학교에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면서 스님은 자연스럽게 다문화사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 2005년 조선대에 유학을 온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다문화가족과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그 인연으로 대광사 총무인 동원 스님과 함께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 입학해 본격적인 복지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복지사업까지 하게 됐네요."

스님이 센터를 시작하며 처음 든 화두는 '가족복지'였다.

스님은 "당초 청소년 복지사업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문화 가족들의 힘든 생활을 보고는 이내 접었다"며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바로 가족이 중심이기 때문에 다문화복지에서도 가족복지를 중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들은 현재 가장 소외받는 계층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과 시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과의 문화적 차이, 아이들의 육아문제로 많은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의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언어도 정확이 소통되지 않는 이들에게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은 그들 혼자 극복하기에 너무 힘겹다는 것을 알고, 이주민 가정을 위한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는 우선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 2세들을 위한 교육 ·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함이다. 또 다문화 2세들이 한국사회에 문화적으로 보다 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한국전통악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 외에도 우리음식 만들기, 방과 후 영어교육도 각각 실시하고 있다.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특별한 행사를 펼쳤다. 스님과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 봉사자들은 대광사 잔디마당에서 다문화가족 100여명을 초청해 '제1회 광주지역다문화가족큰잔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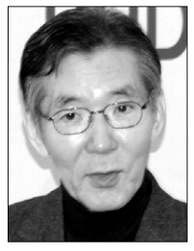
정선 스님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가 한국으로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다문화가족들은 가족과 이웃 간 문화적인 충돌과 갈등이 더 크게 내재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처음 다문화가족 어린이들만 초청해 놀이시간을 가지려 했으나, 부모가 같이 참여해야 좋을 것 같아 가족잔치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분과 인종을 초월하라는 불법을 전하고 있는 스님은 "무지개가 여러 색이 조화를 이뤄 아름답게 빛나듯 우리 사회는 다문화 가정의 정착으로 더욱 아름다워 질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관련기사11면

# 제1회 원효학술상 수상자 발표







좌로부터 김형효 명예교수, 홍성기 특임교수, 안환기씨.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5월 4일 원효학술상 제1회 수상자로 김형효(교수부문대상), 홍성기(강사부문대상), 안환기(학생부문)씨를 선정했다.

원효학술상은 불교의 현대적 조명과 함께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됐다. 선정 대상은 불교사상의 현대적 연구와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불교를 연구한 저서, 논문 등이다.

교수부문 대상 김형효 명예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는 연구주제로 '원효의 대승철학'을 다뤄 선정됐다.

진흥원은 "김형효 교수의 저술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서문과 <대승기신론> 서문을 중심으로 원효의 대승철학을 해체주의적 방법에서 재구성한 역작"이라며 "해체주의적 방법에 기초한 원효사상의 재구성이라는 김형효 교수의 대담하고 새로운 시도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강사부문 대상을 받은 홍성기 특임교수(아주대)의 '불교와 분석철학'은 10여년간 저자가 발표한 분석불교의 논문들을 모은 것으로, 용수의 연기설을 분석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논문들이 돋보였다.

학생부문 수상자인 안환기씨(불교학연구 편집간사)는 '유식불교 '법신' 개념의 심리학적 의미'에서 융 이론의 '자기'와 유식불교의 '법신' 개념을 분석했다. 안씨는 두 이론이 보여주는 궁극적 경지가 형이상학적 실체나 초월적인 인격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을 밝혀 불교사상과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종합하려는 시도를 보여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5월 14일 오후 4시 서울 마포 불교방송 3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 동국대 개교 104주년 기념식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이 개교 104주년 기념법회에서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동국대(이사장 정련)는 5월 7일 교내에서 개교 10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이사장 정련 스님과 오영교 총장과 교직원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랑스러운 동국 가족상과 자랑스러운 동국 불자상 시상, 장기근속자 표창 등 수상자를 축하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동국 가족상에는 가족 9명이 동국인인 서성래 씨 가족이 선정됐다. 불자상 수상자로는 윤성이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등 3명이, 장기근속 표창 대상자로는 30년 근속한 이승영 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교원 23명과 직원 16명이 선정됐다.

조동섭 기자

# 태고종 서울포교원 승가사 개원법회



태고종 승정 인곡 스님과 주지 지성 스님 등 사부대중들이 개원 커팅을 하며 불교중흥을 발원하고 있다.

태고종 최초 등록 사찰로 80여 년을 중생과 애환을 함께했던 왕십리 승가사(주지 지성)가 5월 6일 서울 면목동 포교원으로 이전 개원했다. 기존의 승가사는 충담 스님 열반지인 가평 감로사로 지난해 옮겨졌다.

태고종 승정 인곡 스님은 법어에서 "승가사에는 5~6대를 걸쳐 다니는 신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가까운 곳에 부처님을 모시었으니 언제라도 오시어 수행정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지성 스님은 "오승가사는 소신공양 수행공덕과 함께 법난 이후 첫 종단 등록 사찰이라는 자긍심을 지닌 사찰"이라며 "서울포교원에 모신 성보는 모두 왕십리 승가사의 것을 그대로 옮긴 만큼 신도들과 더불어 더욱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가사는 소신공양으로 화중생연을 피웠던 충담 스님이 창건한 이래 1000여 법사와 포교사를 양성 · 배출해 왔다.

조동섭 기자

# 나누우리, 금양호 희생자 조문



태고종 국제구호단체 나누우리(이사장 월운)는 5월 5일 금양호 희생자들이 안치된 인천신세계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사장 월운 스님은 유가족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금양호 희생자들은 실종된 천안함 장병들을 구조하려다 살신성인한 훌륭한 분들로 국민들은 이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동포애의 귀감인 희생자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도 용기를 내시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유가족들은 "불교계에서 잊지 않고 찾아주고 성금까지 마련해 줘 고마움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조동섭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高音質 무선마이크



◇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DX-707
스텐드 마이크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스피커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 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 7 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 교 육 과 목 | 교 육 기 간 |
|---|---|
|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br>·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br>※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 14주 과정<br>토요일 반<br>월요일 반 |

수시교육 / 매월 상시 모집 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636-2972 광주교육원 062-672-5432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 서울경찰청 경승단 나라 위한 기원법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 경승단(경승실장 토진, 조계사 주지)은 5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기원 대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장 토진 스님, 서울지방경찰청 경승 김영제 스님(관문사 주지),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자리했다.

자승 스님은 법어에서 "유마거사는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했다. 보살의 병은 이처럼 대자비 때문에 나는 것인 만큼 시민과의 갈등 등으로 회의감에 빠질 수 있다"며 "이 속에서 희망과 행복을 꽃피우는 경찰이 있어 불국정토로 바뀌어 가는 것"이라며 위로했다. 이어 스님은 "연꽃 향기 가득하도록 정법과 자비를 전해 서울이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토진 스님은 대회사에서 "경찰처럼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치안 유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심성을 순화시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불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서민의 치안을 위한 상황실이 경찰청에 있다면, 마음의 안정을 위한 상황실은 조계사에 있다"고 말했다.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 및 경승단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 3500명 대형법당 2년내 완공

## 조계종 군종교구 4일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발대식

논산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중창불사가 시작됐다.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5월 4일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부대중의 불사후원 역량 결집에 나섰다.

발대식에서 자광 스님은 "3500명을 수용하는 대형 법당을 2년 내에 완공해 장병 포교의 전당 1번지로 매년 수계불자 10만명 이상 양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은 격려사에서 "신축불사를 된 군장병들에게 안정된 정신지도 교육을 하는 것이 호국하는 길"이라며 "법당 건립을 위한 국방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비좁고 열악하며 오래된 법당에서 추위와 더위에 힘들게 법회를 보던 장병들이 이제 편안하고 따뜻하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법당 설립은 불자들의 사명이다. 불교중흥의 초석이 될 신축불사에 불자들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불사 증명법사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원로의원 정무 스님, 혜승 스님, 불사 자문위원장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수덕사 주시 옹산 스님,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건봉사 주지 도후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前 선정사 주지 영진 스님, 안국선원 · 조계사 · 도선사 등 각 사찰 신도회, 교계단체 대표 등 3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사부대중은 발대식에서 불사금을 약정 · 전달했다. 자승 · 혜총 스님, 주호영 특임장관이 기부금을 전달했다. 안국선원 10억, 구자선 건축위원장 2억,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3억, 화엄회 성공 스님 1억, 원광사 2000만원,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 · 한마음선원 · 등명 낙가사 · 옥천암 신도회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명호근 회장이 각 1000만원을 약정했다.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발대식이 5월 4일 봉행됐다. 신축될 법당 부지 앞에서 스님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에 보이는 기존 법당은 리모델링 된다.

호국연무사는 올 9월 공사를 시작해 2012년 4월 30일 완공 예정이다. 수용인원은 1층 2800석, 2층 700석으로 총 3500석으로 현재 1500명 수용인원의 2배 확장됐다. 불사비용은 총 100억원으로 매년 50억원 불사후원금 모연에 나선다. 훈련소 중창불사후원금으로 5억 7845만 2001원(4월 30일 기준, 이자포함)이 조성됐고 약정 금액만 30여 억원이다.

한편, 최근 연무대 훈련소에는 120억원을 투입해 5000여 명이 수용가능한 극장식 성당이 2009년 9월 세워졌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 100자 뉴스

### 지혜로운 여성 배금자 변호사 초청 공개특강

(사)지혜로운여성(이사장 이은영)은 2010년 5월 4일 저녁 7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배금자 변호사 초청 공개특강을 진행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배 변호사는 "담배회사 소송 이후의 겪었던 고난이 나를 독경, 염불 등의 수행으로 이끌어 갔다"며 "잘 나가는 성공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 조계사 풍성한 어버이날 경로행사 개최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조계사를 찾은 어르신께 자원봉사자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행사 '어르신, 당신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가 5월 7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됐다.

조계사가 주최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조계사 불교대학이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비롯한 갖가지 효실천 행사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화동 풍물패'와 '경찰악대' '조계사 무용단', 인기가수 이자연의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입장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자원봉사자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이나은 기자**

### 신흥사 강원삼성병원과 의료비 감면 협약

설악산 신흥사(주지 우송)는 5월 4일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서명한 의료비 감면 협약서를 강원삼성병원(병원장 차성철)과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는 강원삼성병원에서 본인부담금 중 외래 및 입원 진료비 10%, 종합검진은 20%를 할인받게 됐다.

주지 우송 스님은 "조계종 신도멤버십 의료기관 협약과 가맹점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눔과 소통을 강조한 종단의 기조를 사회로 회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동국대 산하병원, 남양주 한방병원에 이어 의료기관 중 세 번째로 이뤄졌다.

**조동섭 기자**

## 진흥원 대원상 후보 공모

### 포교 · 콘텐츠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이 제8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大圓賞)은 진흥원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불교의 현대적 재조명과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포교개념으로의 변화, 새로운 접근 방법의 창출 및 저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지금까지 포교분야에서 개인 · 단체 · 특별상으로 시상했으나 올해부터는 포교 · 콘텐츠 부문으로 나누어 승 · 재가 개인 및 단체별로 시상한다.

포교대상(부문 Ⅰ)은 현대적 방법을 통해 포교활동을 전개해 업적이 많은 스님 및 승가단체와 불교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및 재가단체를 대상으로 상패와 상금이 1000만원씩 전달된다.

콘텐츠대상(부문 Ⅱ)은 △스토리텔링과 다큐멘터리, 드라마, 다큐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인포테인먼트 △작곡 연주 공연 △전시 △기타 관련 분야에서 총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된다.

접수기간은 포교대상(부문 Ⅰ)은 7월 1~30일, 콘텐츠대상(부문 Ⅱ)는 10월 1~29일이다. 공모서류는 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추천 양식을 내려 받으면 된다. (02)719-1855, 719-2606

**조동섭 기자**

## "감사해요 히마찰"

### 다람살라 망명정부 수립 50주년 기념행사

"스물세 살에 북인도 히마찰프라데시 주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망명한 나는 다람살라에서 가장 오래 투숙한 손님입니다."

인도 다람살라에 망명정부 수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히마찰에 감사해요(To Thank Himachal)' 행사가 4월 30일과 5월 1일 양일간 다리메라 광장과 남걀사원 두 곳에서 거행됐다. 달라이 라마가 북인도 히마찰프라데시 주 다람살라에 처음 발 딛은 1960년 4월 30일에 맞춰 티베트 망명 정부가 주 정부에 감사하는 행사를 연 것이다.

달라이라마가 인도에 망명해 처음 임시로 머문 곳은 북인도 우따르란찰(utteranchal) 주의 작은 마을 마수리(Mussoorie)였다. 그리고 남인도의 까르나타카(Kamataka) 주에 티베트 난민을 위한 정착촌을 제의 받게 된다. 그러나 티베트 본토와 거리가 너무 멀었고, 고산 지역에서 살아오던 전통 풍습에 적합지 않았다. 결국 인도 북부 산간 마을 히마찰프라데시 주 과거 영국인들의 휴양지였던 다람살라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다람살라에 티베트 난민에 의한 망명정부가 수립되면서 인도와 티베트는 불교의 공감대로 깊은 인연의 끈을 엮어가기 시작했다.

오늘날 인도 히마찰프라데시 주 다람살라는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난민 지역 사회로 확고히 인식됐다. 전 세계의 인권, 자유와 관련한 지식인들과 여행객들의 필수 방문지가 됐으며, 달라이라마는 자비의 존재로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게 됐다.

**인도 다람살라=가연숙 객원기자**


달라이 라마는 히마찰 주지사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불화를 선물했다.


· 노동부 지원 · 사회적기업(예비)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4F 입점 T:061-285-0301~2

연잎 찰밥 | 햇차 판매 | 제다 실습 | 차문화 연수



부처님 오신날

행사가 많은 5월,
무안 회산백련지 인근에서 생산된
연잎으로 정성껏 싼
연잎찰밥을 대접하세요.

연잎찰밥 10개 30,000원 냉동포장
제조원 : 일로농협
판매원 : 초의차사업단

● 차씨를 무료로 드립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4F에서
무료시음 및 차씨 보급 행사를 합니다.
(4월 15일부터~5월 31일)
※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070-4107-8654

2010년 봄 햇차 판매


▲초의신다

이른 봄
어린 찻잎 중에서도 좋은 찻잎만을
부처님 모시듯 고르고 골라 만든
초의신다!
특허출원과 함께 세계녹차콘테스트
"최고금상"을 수상 했습니다.

"다성초의차 신다 햇차 판매 합니다."
초의신다 100g 100,000원

"초의신다의 정통 제다법으로 만든 다성초의차를 출시하였습니다."
다성초의차
우전 70,000원 세작 50,000원 중작 30,000원

차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 제다실습
· 차잎따기
· 차의 종류와 제다법 특강
· 제다실습 및 심사평가

● 실습 茶 종류
2010 햇차(녹차) · 청차 · 황차
보이차 · 떡차 제다실습

※ 단체 · 개인 모두 접수 가능하며 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제다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 실습비 : 1인 1만원, 차잎 1kg당 1만원~2만원 숙박비무료
※ 스님들께는 제다실습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차문화연수

초의선사 행다법
한국의 차문화사
차의 정신, 다도관
한국전통 행다법의 역사와 방법
초의선사 헌다의식

차에 관한 내용으로 석용운스님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 단체만 신청 가능하며 단체일정에 따라 원하는 내용의 강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수비용 1인 1박 2일 2만원~3만원.
※ 초의선사(전남 무안군)에서는 연중 무휴로 차문화 견학 및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초의전통차문화발전사업단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입금 : 농협 635077-55-000018 (사)초의학술문화원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팩스 : 061-285-0304 choyeetea.co.kr 후원 : 무안군


▲초의선사 동상

▲초의선사 생가

▲초의선원

▲조선차역사박물관

▲청와대사랑채 무료시음

▲제다체험

▲한국차문화특강

▲다도체험

▲특허증

▲최고금상 상패

# 장난감 하나 없는 저소득 가정 절반

## 불교계, 저소득 가정 위한 방과 후 보육 적극 나서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 자녀 대부분이 아동도서와 장난감이 없는 열악한 양육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아동 복지 참여를 통한 부처님 자비실천을 위해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9년 38개 시 · 군 · 구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층 아동이 밀집한 취약지역에서 부모 1만381명을 대상으로 저소득 아동가구 생활실태 및 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4월 29일 밝혔다.조사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아동용 서적이 한 권도 없는 가정은 29.3%, 장난감이 하나도 없는 가정은 55.8%에 이르고, 영 · 유아용 가구가 없다는 가정은 78.2%, 자녀용 책상과 의자가 없다는 가정은 49.7%에 달했다.

저소득 가정은 기본적인 양육환경이 열악할 뿐아니라 부모의 25%가 자녀양육 관련 조언이나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부모 중 72.9%는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모는 주변 아동들에 대한 문제점으로 '방과 후 방치'를 37.5%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문화 활동 부족(28.4%), 성적 부진(10%), 정서적 건강(8.2%), 신체적 건강(4.7%) 순으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치에 대한 대안으로 공부방 등 방과 후 보육시설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개신교에서는 곳곳의 교회를 개방해 공부방으로 운영하면서 선교의 목적까지 달성해 왔다. 불교계는 동산불교대학 등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 중이지만 이웃종교에 비해 시설의 양적, 교육의 질적으로 여전히 부족하다. 동산불교대학이 위탁운영 중인 석관청소년공부방(원장 정진화, 02-941-1242)은 아동과 청소년 모두 아우르는 시설이다. 아동의 방과 후 교실과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교실은 이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이곳은 독서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1시간에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으로 전액 쓰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24곳의 저소득 · 다문화 가정에 매달 5~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불자 변호사와 결연을 맺은 70가정의 아이들에게도 매달 후원금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 "절에 가면 부처님이 웃고 있어요"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제3회 불교아동 미술큰잔치



불교아동미술잔치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자신이 그린 부처님 그림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 총무원장)이 5월 4일 서울 조계사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제3회 불교아동 미술 큰 잔치'를 개최했다.

낙산 · 신일 · 반야 · 해나라 · 정릉 1동 어린이집 등 불교계 영유아 보육시설의 원생들이 참여한 제3회 불교아동미술큰잔치는 가족 · 부처님 · 스님 · 절 등을 소재로 그림 대회가 실시됐다.

'맑고 밝고 향기로운 우리들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불교아동미술큰잔치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언젠가 부모님과 찾았던 사찰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렸다.

정릉 1동 어린이집 조윤찬(7세) 어린이는 "절에 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라며 밝게 웃는 모습의 부처님 그림을 들어 보였다. 양천구 신월동 해나라 어린이집 이현준(7세) 어린이는 "절에 가면 엄마 따라서 절을 해요. 절에도 놀이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며 그림 소개대신 절에 대한 단상을 말했다. 당일 오후 2시에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상은 정릉1동 어린이집 이민정(7세)의 '내 맘 속 부처님'이 선정됐다. 단체상은 신일어린이집과 해나라 어린이집이 수상했다.

시상식에서는 대상(총무원장 상) 1명, 맑음상(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상) 5명, 밝음상(조계사 주지 상) 10명, 향기로운상(협의회장 상) 10명, 단체상 2기관, 입선 75명 등 총 103명의 원생들에게 상장과 메달, 상품이 전달됐다.

신일 어린이집 강인영 교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절이나 유적지는 탐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도심 속 사찰을 관람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미래불교를 선도할 아이들이 전통 사찰에서 문화활동을 하면서 순수한 심성을 계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정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 조계종 총무원장)은 5월 1~2일 서울 조계사와 김천 직지사에서 난치병어린이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을 봉행했다.

조계종은 난치병으로 장기간 투병과 병아에 고통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처님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자 2001년부터 3000배 철야정진을 진행해, 300여 아동에게 2억 2000여 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격려사를 통해 "중생구제의 대원을 세웠던 법장 보살처럼,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의 발원이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회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조계사에서는 1000여 사부대중이 3000배 기도정진에 동참해 한마음으로 난치병어린이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박선주 기자**

# 천진불의 부처님 향한 음성공양

## 불레협, 어린이 연꽃 노래잔치 · 찬불 율동제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어린이 불자들의 율동과 노래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도경)는 5월 2일 '제22회 전국 어린이 연꽃 노래잔치'와 '제5회 어린이 찬불 율동제'를 개최했다.

전국 어린이 연꽃 노래잔치에는 율동 부문과 독창 · 중창 · 합창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독창에 20명의 어린이가, 중창, 합창에는 옥천암, 회룡사, 봉은사 어린이회 등 12개 단체가 참가해 경연을 벌였다. 이날 대상은 원각사 황혜선 어린이가 수행했다. 최우수상은 독창 부문 청룡사 송영우 어린이, 회룡사 신소영 · 전광일 어린이가, 합창부문은 회룡사 · 봉은사 어린이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도 공로상, 기쁨상, 장려상 등 총 6개부분에서 20팀의 어린이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합창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봉은사 어린이회가 불심가득한 음성공양을 올리고 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경 스님은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해 모두에게 사랑받길 바란다"며 "불교발전과 어린이 포교를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잔치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 "수빈이와 함께 내일을 꿈꾸고 싶어요"

## 5월의 환우 김미숙씨, 딸 수빈이마저 뇌병변 장애

생명나눔 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5월의 환우에 김미숙씨(여 · 31세)를 선정하고 한 달 간 후원금을 모금한다.

김미숙씨는 2009년부터 척추 등 근골격의 통증과 감각이상을 유발하는 부정렬 증후군 등 여러 병을 앓고 있다. 의사는 입원과 재활 치료를 권했지만, 김씨는 장기간의 입원과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김씨의 유일한 기쁨인 일곱살 딸 수빈이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다. 수빈이는 2009년에는 언어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 언어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거의 포기한 상태이다.



여러 병마에 시달리고 있어도 두 모녀는 희망으로 견뎌가고 있다.

김씨는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만, 통증이 심해 일을 할 수 없다. 오히려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해 병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못난 엄마일 뿐이다"며 울먹였다.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모든 이들의 꿈이다. 김미숙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남편은 잦은 외도와 폭력을 일삼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해 일체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 결국 2년 전 이혼했다.

모녀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희망이 찾아오도록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0. **박선주 기자**

## 평화의 집 다카자네 야스노리 특별강연

합천 평화의 집(소장 혜진)은 한일합방 100주년과 원폭투하 65주년을 맞아 다카자네 야스노리(高實康稔 · 나가사키평화자료관 이사장, 나가사키대학 명예교수) 관장을 초청해 5월 6일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서 원폭 기억과 평화자료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에서 다카자네씨는 일본 국민으로서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하는 한편, △원폭 투하 이후의 역사 재평가 △원폭문제 해결과 합천의 과제와 역할 △평화자료관의 역할 등에 대해 강연했다. (070)4116-0301 **박선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4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 (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5월 26일까지 접수
◆ 개강일시 : 2010년 5월 27일 매주 (목) 오후 5시 ~ 8시 (3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간화선은 문자선 폐해 대안

## 동대 불문연 콜로키움서 김진무 교수 간화선 출현 고찰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는 사상적 경향과 문화적 풍토가 다른 중국으로 전래됐다. 이후 끊임없는 중국 본토의 사상과 문화와의 충돌, 융합의 과정을 통해 중국적 변용을 이뤘고 최종적으로는 본래의 인도불교와는 상당한 차별상을 보이는 중국불교의 완성에 성공했다.

선종은 '중국불교의 귀숙(歸宿)'이라 불리듯 가장 중국적인 불교적 변용이다. 당대(唐代)에 본격적으로 출현해 송대(宋代)에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았던 선종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 가운데 간화선(看話禪)은 송대에 대혜종고(大慧宗杲)에 의해 창시돼 일세를 풍미하다가 한국불교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김진무 연구교수(사진)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이 4월 30일 개최한 제1차 콜로키움에서 주제발표 '선종사(禪宗史)를 통한 간화선의 출현과 그 의의'를 통해 간화선의 제창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했다.

다음은 김 연구교수의 발표문 요약.

간화선(看話禪)은 화두를 사용해 깨달음(진리)에 이르는 선수행법을 말한다. '간(看)'은 '집중' '주시'를 뜻하고 '화(話)'는 '화두(話頭)'를 가리킨다. 즉 '화두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무' '간시궐' 등을 화두라고 하는데 선문답 가운데 핵심어나 선사의 답어가 바로 화두이다. 화두를 통해 선의 실체를 보는 것이다.

간화선은 1130년대 송대의 선승 대혜종고(大慧宗, 1089~1163)에 의해 성립됐다. 그 이전에는 화두를 사용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서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관조하는 조사선과 묵조선이 있었다.

대혜 선사는 "크게 한번 깨달으면 유학이 곧 불교요, 불교가 곧 유학이고, 승(僧)이 곧 속(俗)이요, 속이 곧 승이며, 범(凡)이 곧 성(聖)이요, 성이 곧 범이다<대혜보각선사어록 권28>"라고 해 불교화 유학의 차별이 없음을 제창하고 오히려 재가수행이 출가수행보다도 더 수승하다고 주장했다.

대혜종고가 간화선을 주창했을 당시 송대는 유학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 관료사회였다. 이 때는 대다수의 관료 사대부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있어 거사불교의 전성기였다. 사대부 거사들은 특히 혜능에서 유래한 남종선(南宗禪)에 귀의했다. 유가의 이학(理學)에서 상당부분 선학(禪學)의 심성론을 차용했고, 사대부들이 조사선에서 내재적 동질성을 느끼고 있었다.

선종은 문자를 세우지 않음으로 출발했지만 송대에 이르러서는 사대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안(公案)'에 주석을 달기 시작했다.

선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시작한 이런 작업은 본연의 모습으로부터 점차 사대부들의 '문자'에 의한 희롱거리로 전락되는 폐해를 낳게 한다. 또 이를 통해 '불립문자'로 출발한 선종은 점차 '불리문자'인 '문자선(文字禪)'으로 흐르는 경향을 띠었다.

문자선의 경향을 띠게 되는 상황에서 선종은 두 가지 모습으로 반성적 자정(自淨)의 노력이 나타났다. 대혜종고 선사의 간화선과 굉지정각(宏智正覺) 선사의 묵조선이다.

문자선의 폐해로부터 묵조선이 초기의 달마선의 전통을 회복하자는 입장이었던 데 비해 간화선은 육조 혜능 선사의 조사선을 회복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 굴산사지 연구
### 국립중원문화재硏

구산선문 중 사굴산문 본산으로 보조국사 지눌을 배출한 강릉 굴산사지(사적 제448호)에 대한 학술조사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범)는 "강릉시(시장 최명희)와 5월 6일 업무협약을 맺고 강릉 굴산사지(掘山寺址)에 대한 10개년 종합학술연구를 시작한다"고 3일 발표했다.

굴산사는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범일 국사가 신라 문성왕 13년(851)에 창건해 강릉 신복사, 동해 삼화사, 양양 낙산사 등을 거느린 선종 중심 사찰이었다.

굴산사에는 국내 최대의 당간지주(보물 제86호, 높이 5.4m)와 부도(보물 제85호), 석불좌상(문화재자료 제38호) 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연구소와 시는 굴산사지의 역사적 성격과 변천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향후 사적지 복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사적지를 전면적으로 발굴조사해 문헌사 · 미술사 · 불교사상사 · 민속학 등 여러 학제간 연구를 10년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 묵서지편 등 보존처리 후 첫 공개

## 불교중앙박물관 5월 14일~6월 13일 '불석가탑 사리장엄구 특별전'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세트.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과 불국사(주지 성타)가 공동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2010년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특별전'을 개최한다.

5월 14일~6월 13일 열리는 전시는 2009년 12월 불교계의 품으로 돌아온 석가탑 사리장엄구들이 보존처리를 마친 후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이다. 전시에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석가탑 중수문서를 포함한 사리장엄구 40건으로 80여 점 정도의 유물이 선보여 진다.

전시 구성은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 △법사리신앙 △중수문서로 크게 나뉘어 전시된다.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는 탑 안에 사리를 모시기 위해 조성된 사리장엄구들은 탑과 사리신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불법의 상징이다. 통일신라시대의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는 이러한 사리신앙을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석가탑 사리 장엄구의 역사적 · 예술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주요 성보문화재로 '금동제 사리외함' '은제 사리 외합 · 내합' '금동제 방형사리함' 등 기타 공양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또한 통일신라시대는 진신사리가 아닌 부처님 말씀인 법사리에 대한 신앙이 시작된 시기로서 '법사리신앙'이 전시된다.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 <보협인다라니경> 두 종류의 경전은 탑을 세우고 수리하는 공덕이 적혀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세계최초의 목판인쇄물로 그 가치를 주목받고 있으며, <보협인다라니경> 역시 이 경전을 최초로 사경한 것으로 두 유물은 과거의 법사리 신앙을 대표하는 유물이다.

마지막으로 중수문서는 산화된 종이덩어리였던 <묵서지편>이 보존처리된 후 대중들에게 공개된다. <묵서지편>은 고려중수의 중요한 기록이며, 당시 사회시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보협인다라니경>과 함께 고려시대의 중수기록을 알려주는 세 종류의 중수기이다.

<불국사무구정광탑주수형지기(1024년)> <불각사서석탑중수형지기(1038년)> <불국사탑중수보시명공증승소명기(1038년)> 등 세 종류의 중수기에는 중수 과정과 사리장엄구, 공양품, 중수에 참여한 인원들의 기록이 남아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고려시대의 불국사의 위치나 사찰 운영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로 보여진다.

불교중앙박물관 이분희 팀장은 이번 전시개최에 대해 "석가탑 사리장엄구가 종단으로 반환된 것을 축하하고 법사라인 법사리인 경전을 포함한 석가탑사리장엄구의 친견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 옛 경복궁 건물 100년만에 귀향

## 해외 반출 건물 반환 첫 사례



한 · 일 불교교류 30년 만의 성과로 옛 경복궁 건물인 관월당(觀月堂 · 사진)이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관월당 반환은 해외 반출 문화재 중 건물로는 첫 사례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효탄)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자격으로 일한불교교류협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일본 정토종 광명사 법주)과 일본 고도쿠인(高德院) 소재의 관월당 건물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5월 3일 발표했다.

관월당 반환 소식은 같은 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일반불교교류협회 회장을 대신해 내한한 이사장인 니오카 료코 스님(일본 천태종 총무원장)의 합의로 이뤄졌다.

협약식은 25일부터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제31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기간 중 진행된다. 협약 이후에는 한일 양국 정부의 협조 하에 건물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진행이 개시될 예정이다.

관월당은 조선후기 조선 왕실이 금융담보로 조선척식은행에 제공한 것을 조선척식은행이 야마이치(山一)증권에서 재융자 받으면서 답례로 제공한 것이다. 이후 야마이치 증권의 소유주 스키노 키세이는 자택에 있던 관월당을 1924년 고도쿠인에 기증했다.

**조동섭 기자**

## 돈 · 점 고찰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5월 10일 선학원에서 제11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최성호(서울대 철학과 박사과정)씨가 '담연의 수행론에서 돈 · 점의 용례 고찰'을, 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묵조명에 나타난 묵과 조의 개념'을 발표했다.

**이나은 기자**

#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보물 승격

## 문화재청 6일 발표… 전형적인 신라 석탑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경북 성주군 가야산에 있는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86호 · 사진)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승격 지정 예고했다"고 5월 6일 밝혔다.

법수사지 삼층석탑은 신라 애장왕(800~806) 때 창건한 법수사지 내에 있다. 사지는 가야산 계곡에 돌을 쌓아 만든 단에 자리 잡고 있다.

석탑의 높이는 5.8m이며, 상 · 하 2층 기단에 3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으로, 사리탑의 맨 꼭대기 지붕 위에 놓여 상륜부를 받치는 부재인 노반(路盤) 이상의 상륜부는 남아있지 않으나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문화재청은 "탑의 규모가 작고 하층 기단이 높은 등 9세기 후반 석탑의 특징을 갖추면서 신라 석탑의 모습을 보여 사찰 창건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삼베훼이셜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 x 50cm(대)

위생 · 항균 · 항독 삼베 수세미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 습포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여자 대학생입니다. 알고 지내던 아저씨(오빠라 부릅니다)가 제 친구들의 눈빛과 행동이 나쁘다며 육체적 · 정신적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 아저씨는 소소한 폭력사건으로 묻어버리고 그 사실을 왜곡하고 감추려고만 합니다. 폭력에 대응해 보려고 하지만, 집안이 어려운 여자만 괴롭히고 몰래 불러 위협까지 가해 대응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노골적으로 "어린 여자는 갖고 놀기도 쉽다"고 말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 아저씨의 잘못된 정신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친구들 마음에서 짐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A**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깊습니다. 우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 마음에 드는 진언을 골라 읽기 등 독경 어찌 해야하나요?

## 상황에 맞는 진언 골라하고 경전 한두 권은 다독하세요

까에 대해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문제 당사자인 친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함께 있어주는 일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서서 도움을 주고 싶다면 아저씨에게 피해를 본 다른 친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정황을 들어보고 친구들과 힘을 합해 같이 대응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요. 하지만 지금 내담자는 자신이 직접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좀 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듣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직접 개입된 일이 아닌데도 내담자께서는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고, 배신감과 증오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증오심은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왜 자신에게 이런 감정이 이는지에 대해서 관찰해 보시고 주변 어른들과 상의해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만약 자신이 지금 친구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친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Q** 불교에는 참회진언, 준제진언, 보회향진언 등 진언이 참 많던데요. <지장경>이나 <금강경> 독송 후에 제 마음에 드는 진언들을 골라 읽어도 될까요?

독경도 한가지로만 해야 할지, 두루 섭렵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 경전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읽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냥 읽기만 해도 공덕이 된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독경의 횟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읽은 독수를 기록해 가며 '몇 독 했다' 고 알리면서 신행생활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요?

**A** 진언은 허망(虛妄)하지 않은 언어로 법을 가르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미묘(微妙)한 뜻과 신비(神秘)한 힘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진언은 뜻을 번역하지 않고 범어(梵語) 그대로를 외웁니다. 진언은 자체의 뜻, 해석은 않는 것이라 하니 해석을 하지마시고 독송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는 진언이 있습니다. 불전(佛殿)에 공양을 올릴 때는 예참 전 헌좌진언. 정법계진언, 변식진언 등을 합니다. 예참 후 보회향진언을 하게 됩니다. 경전 독송을 할 때에는 공덕게를 하고 마치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언수행자는 진언을 입으로만 외울 것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 진언의 본질 속으로 녹아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진리 그 자체, 또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우주 자체와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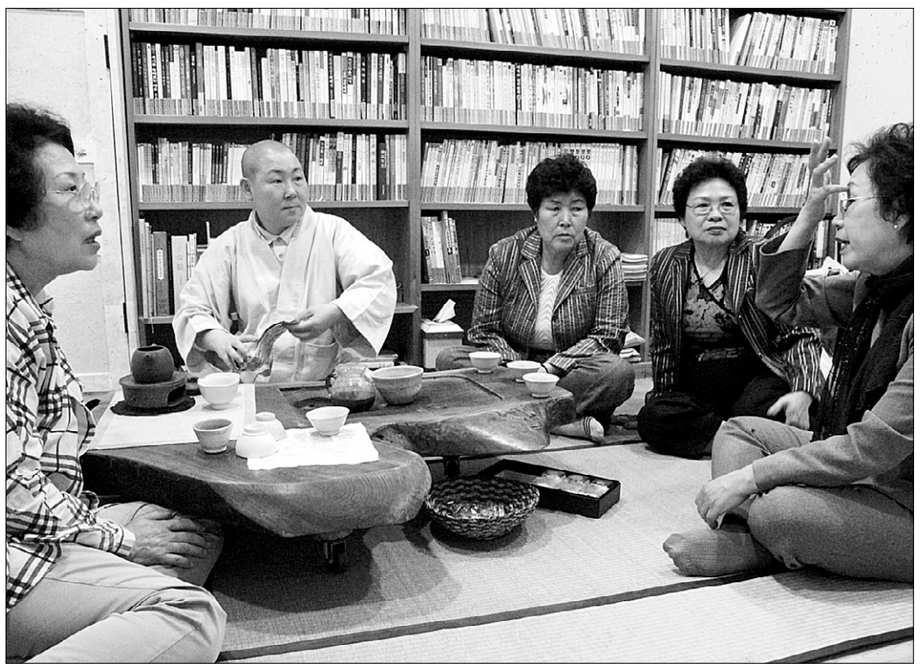
또 여러 경전을 습득(習得) 하되 즐겨 읽는 경전 한 두 권은 여러 번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몇 독했다' 고 하는 것은 독경 중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수단일 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독경을 하시면서 마음으로 경전의 참뜻을 새기면서 독경을 해야 삼매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 이곳에서 모든 아픔·번뇌 비워내세요

자비법당 탐방

## 서울대 병원 법당



은진 스님과 서울대병원 직원불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연등을 만들고 차담을 나누고 있다.

## 은진 스님, 병원 법당 이끄는 스님들의 롤모델

## 서울대병원불자회 신심으로 병원법당 봉사 척척

'어? 내가 맞게 찾아 온 건가?'

서울대 병원법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먼저 반긴다. 잠시 '맞게 찾아온 것이 맞나' 하고 고민할 정도로 법당 안은 경건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다. 그 소리에 원인을 자세히 찾아봤더니 보통 동네아줌마들이 수다를 떠는 소리였다.

서울대 병원법당 지도법사로 있는 은진 스님은 기자를 발견하곤 "취재하러 온 기자분이시구나"라고 반색하더니 이내 "그런데 난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여기 계신 불자 분들이나 취재해 가요"라로 말했다.

순간 스님을 취재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 속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스님은 법당안의 소음원인(?)이었던 불자분들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다.

서울대 병원법당 은진 스님은 불교계에서 가장 오랜 경력을 자랑하며 병원포교에 매진해 왔다. 이미 병원에서 생활해 온지 20여년이 훌쩍 지나간 스님은 이제 웬만한 전문의 만큼이나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 잘 안다. 은진 스님은 병원법당에서 불법을 전하는 스님들의 롤모델로서 활동 중이다.

하지만 정작 스님은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 일을 할 수 있고, 지금도 계속 하는 것은 모두 다 불자직원들 덕분"이라고 말한다. "서울대 병원 직원불자들이야말로 현재 불교계의 법당들이 늘어나고 불교가 병원포교에 활동할 수 있게 된 원동력 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니, 스님들도 아니고 병원직원들이 왜 불교법당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지?' 라는 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병원들이 환자와 더불어 병원직원들에게 불교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 서울대 병원은 오래전부터 직원들의 신심이 남달랐던 곳이었다. 서울대 병원이 다른 병원과 차별화 되는 점은 '직원들의 신심이 유난히 깊다' 는 것이다. 그래서 직원불자들이 병원과 환자, 법당 일에 대한 참여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1985년에 생겨난 서울대병원불자회원는 의사, 간호사, 일반직원 할 것 없이 신심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서울대 병원은 3차 병원이라는 특성상 의료진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일도 적지 않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신심이 꺾이지 않은 점이 병원법당이 확산되는데 일조를 한 것이었다.

"제가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직원불자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옆에서 도와주니깐 오히려 법당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죠. 환자들 상담만 해줘도 하루가 빠듯한데 다른 일까지 한다면 더 정신이 없을 거에요. 그런데 옆에서 모든 일을 착착 진행해 주니깐 너무 감사하죠."

직원불자들은 서울대 병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은진 스님은 주로 환자들의 상담과, 어린이 법회 및 의과대생들을 대상으로한 법회만 주로 맡고 있다. 스님은 "직원불자들이 주인의식이 있어 사명감이 남다르다"고 말했다.

법당 안에는 얼마남지 않은 봉축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법당 여기저기 완성된 연등들이 널려있었다. 법당 안에서 들리던 소음의 원인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법당에 들려 스님과 차를 마시며 연등을 만드는 불자들의 수다소리였다.

"그냥 우리는 숙제 검사하러 온 거에요. 연등에 붙일 꽃잎을 만들어야 하는데, 스님이 각자에게 숙제를 내주셨거든요."

정순혜(65)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다시 만들어야할 꽃잎이 들은 봉투를 보인다. 유옥수(57)씨는 얘기를 나누던 중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서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리를 떴다. 병원내 직원 불자들은 이렇게 쉬는 시간을 이용해 법당에 들려 일할 거리들을 찾는다. 불자들은 퇴직후에도 여전히 법당에 들려 스님을 찾아 뵙고 법당일손을 돕는다.

이날도 함께 연등을 만들던 불자들 중 절반이 퇴직한 이들이었다.

"점점 불자들이 저와 더불어 신심이 단단해져요. 퇴직후에는 원찰로 돌아가 신행활동을 하지만, 퇴직 전에는 이곳 법당에서 주로 신행활동을 합니다. 이제는 딱히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대신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법당 일들을 도와주죠. 이들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가 무엇이고, 신행활동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현재 60여 명이 넘는 직원불자들은 거의 대부분 20년이 넘게 스님과 함께 법당 일을 해오고 있다. 직원불자들은 매년 회비를 걷어서 환자들에게 보시를 해왔다.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외래환자 4명에게 각각 50만원, 장기난치병 어린이 환자 4명에게 200만원씩 지원해 왔다.

"병원직원들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얻은 것을 다시 회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맙게도 여기 서울대 직원불자들은 그런 저의 말뜻을 잘 헤아리고 환자들에게 매년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은진 스님은 "병원이라는 곳 차제가 몸이 아프고 병들어 찾게되는 곳"이라며 "그런 병원안의 법당을 찾는일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비워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병을 고치고 쉬었다가 가는 곳이 병원이라면 무언인가를 또 얻는 것이 돼버리지만, 법당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몸이 아프면 마음의 병도 생기기 쉽다. 그런 환자들이 부처님의 뜻을 오롯이 알고 병마와 잘 싸울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진 스님과 직원불자들이야말로 '보살행' 을 실천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제 783 호 현대불교
2010년 5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buddhanews.com

JTS 길벗 거리모금

# 명동에서 외치다 "엄마가 되어 주세요"





오른쪽부터 길벗 대표회원인 한지민, 최다니엘, 서효림, 윤소이가 거리모금행사를 마치고 소감을 나누고 있다. 길벗은 행사를 마친 후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금의 참의미를 되새기며 회향을 한다. 수행의 일환인 이 시간은 모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회원들에게 자리잡고 있다(위).

국제구호단체 JTS와 정토회 산하 길벗 회원들은 5월 2일 명동 거리에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시아 아이들에게 분유 10만 통 보내기 거리모금'을 실시했다.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작은 정성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아이가 일주일간 분유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인 투게더(Join Together)'라고 쓰인 주황색, 검정색 티셔츠에 모금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깍~" "오빠~"하는 군중의 함성이 쏟아졌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정체파악에 나섰다. 정체 파악을 마친 행인들도 소리를 질렀다.

"어! 한지민이다. 최다니엘이다! 배종옥이다!"

바쁜 연예인들이 명동에서 당당하게 '엄마가 되어주세요'라고 외치며 모금하는 이유는 뭘까?

이날은 방송연예 종사자 수행공동체 '길벗'이 국제구호단체 JTS(Join Together Society, 이사장 법륜) 모금 봉사활동을 통한 마음공부를 하는 날이었다. 모금활동은 사람들에게 보시의 기회를 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이들도 함께 복 짓는 수행이다. 한마디로 현대식 '탁발'이다.

올해 들어 가장 따뜻했던 5월 2일, 젊음의 거리 명동은 나눔의 기쁨으로 열기를 더했다. 환호성으로 들썩인 명동은 '내 것'을 사러 온 이들로 가득한 쇼핑의 거리가 아닌, 내 것을 주려고 모인 나눔의 장이었다.

평소 커피값 지불에는 잘 열리면서 모금함으로는 잘 열리지 않았던 사람들 지갑에서도 돈이 술술 나온다. 모금을 하러 나온 연예인과 모금에 동참한 시민들의 얼굴에는 행복의 미소가 번졌다. 서로는 길벗이 돼있었다.

'길벗' 거리모금행사는 무작정 거리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 모금 1시간 전부터 철저한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거리모금 요령, 모금 구호, 유경험자와 미경험자끼리 팀 만들기, '모금 명심문'을 마음에 새긴다. 모금 활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공손하게 실천하는 참 수행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길벗 회원들은 모금행사 시작에 앞서 "우리는 바다, 산, 자연으로부터 세상에 빚져 왔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임을 알았다. 모두가 우리의 아이들이다. 내가 잘 쓰여지는 사람이 되면, 내 마음을 조금만 나누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모금의 의미를 일깨웠다.

늘 대중 앞에서 당당할 것만 같은 연예인도, 경험이 많은 회원들이라고 해도 현장에서는 처음부터 쉬이 입을 열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외면에 위축될 때는 비장의 무기인 명심문을 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모금함에 후원의 손길이 건네지면 자신감이 생겨 본격적인 모금을 시작한다. 이제는 외면을 당해도 당당히 '감사합니다. 가시다보면 또 모금함이 있을 겁니다'라며 방끗 웃는 여유까지 보이기도 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여유였다.

수행공동체 '길벗'은 정토회 산하 방송 · 연극 · 영화 · 문화예술인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마음공부를 하는 모임이다. 회원들은 매년 5 · 12월 거리모금 활동, 정기법회 및 마음 수련 등을 진행한다.

JTS는 올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시아 아이들에게 분유 10만 통을 보내는 것이 목표다. 모금 행사와 곳곳의 후원으로 모아진 돈은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분유, 필수 의약품, 이유식 등으로 보내진다.

이날 참가한 회원들은 노희경 작가를 필두로 배우 한지민, 배종옥, 김여진, 윤소이, 최다니엘, 전예서, 서효림, 방중현, 아나운서 한석준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노희경 작가는 최근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저작권과 출판 인세를 JTS에 모두 기부했다. 8년이라는 세월동안 그녀는 주변 동료들을 수행의 현장으로 초대해 '자비, 보시'의 기회를 주고 있다.

모금활동을 누구보다 좋아하기로 소문난 한지민은 관세음보살의 현현이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안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안가지고 간다. 뭔가 나를 위해 가지려고만 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 마음을 내려놓고 이런 기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서로 교감을 나누면 행복해진다"며 동참을 권했다.

모금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회원들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단순한 모금활동이 아니라 봉사활동으로 서로가 교감하고,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요즘 최고주가를 올리고 있는 최다니엘은 모금 내내 들었던 고민을 털어놓았다.

"모금함에 돈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들고 있으니 주는 것인지 고민이 있었어요. 결국은 좋은데 쓰이는 것이니 좋겠지만 주시는 분들이 저희가 하는 활동의 의미를 알고 주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쓰였어요."

최다니엘의 솔직한 소감에 5년 동안 활동을 해온 한지민은 이렇게 위안을 준다. "저도 첫 모금을 할 때는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으로 내가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거리에 동참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시고, 저희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죠. 결국은 그들에게도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말하면서 그들은 또 한 번 나눔의 기쁨을 만끽했다. 모금 행사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은 얼굴에 생명력이 감돌았다.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않던 미소와 편안함까지도.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남이 보시하는 것을 거들어 주고, 남이 보시하는 것을 기뻐해 주면 된다. 길벗이 거리에서 보여주고 확인한 것은 이러한 보시였다. 따뜻한 마음, 작은 정성을 나누는 이들에게 부처님오신날은 성큼 다가와 있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 매년 두 번 거리모금 하는 예술인 수행공동체

## 아시아 어린이들에게 분유 10만 통 전달 목표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배우 최다니엘이 명동에서 거리 모금을 실시했다. 최다니엘의 모금함에는 그의 인기 만큼 많은 보시금이 들어왔다.

KBS드라마 '수상한 삼형제'에서 열연했던 방중현은 모금에 동참한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등의 서비스로 사랑을 받았다.




# "마음 비우는 수행에 도움 되길"

## 정여 스님 '마음의 풍경' 출판기념법회



정여 스님(오른쪽 세 번째)과 부산 정 · 교계 지도자들이 명상집 '마음의 풍경'을 봉정하고 있다.

범어사 정여 스님이 새 명상집 '마음의 풍경' 출판기념법회를 4월 30일 개최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2000여 명의 사부대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됐다.

이날 출판기념법회에는 화산 스님(천태종 삼광사 주지), 정각 스님(미룡사 회주),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장), 부산불교방송 박순곤 사장 등 100여 명이 무대에 올라 부처님 전에 책을 봉정했다.

정여 스님은 "제목은 일상에서 마음을 바르게 쓰는 방법을 일깨워주기 위한 풍경소리라는 의미를 담아 '마음의 풍경'이라고 지었다"며 "이 책이 끊임없이 출렁이는 자신의 참마음을 알기 위해 마음을 비우는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 명상집 '마음의 풍경(출판사 클리어마인드)'은 '나를 깨우는 풍경' '행복을 깨우는 풍경' '수행을 깨우는 풍경' '무심을 깨우는 풍경' 등 4개로 구성됐다.

책은 지난 1년간 BBS부산불교방송 '마음의 향기'를 통해 설법한 내용을 담아냈다.

박지원 기자

# 수진 스님, 동명대 불교과 신입생에 특강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에서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 40여 명의 신입생을 위해 저녁예불 및 실참 등에 관련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현재 불교문화학과의 <불교학개론> 과목을 맡아 지도하는 수진 스님이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수진 스님은 "여러분 모두가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수행과 정진, 보살행 등을 실천하면 거룩한 붓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며 "부처님의 행을 자유롭게 써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김영목 학생은 "학기 초 학교에서 가사장삼을 수한 스님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지만, 이제는 수업 이외에 행복해지는 방법 등을 여쭤보려고 쫓아다닐 정도"라며 "앞으로 불교계의 젊은 인재로 성장해 수진 스님처럼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는 4년제 종합대학에서는 처음 설립된 불교 전문학과로 올초 40명의 신입생이 입학해 미래의 청년 불교지도자를 꿈꾸며 수학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봄맞이 Sale 사은품 증정

죽염기 145,000
전화 02)2004-8216

# 단기출가로 불연 심어요

## 5월 1일 출가 21일 회향환계식… 배소연 양 등 11명

"선생님, 저는 콩이 싫어요!"

"이제는 행자님이니까 드셔야 합니다."

출가 후 처음 갖는 점심공양 시간. 11명의 천진불들이 공양게송을 외우며, 콩밥과 갖가지 봄나물 반찬, 맑은 된장국으로 공양을 한다. 콩이 먹기 싫어 투정부리던 아이들이 지도교사의 한마디에 다시 의젓함을 되찾는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11명의 동자승들에게 공양예절을 지도하고 있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5월 1일 '부처님과 함께하는 21일간의 제5기 홍법사 동자승 단기출가'를 개최했다.

대웅보전에서 첫날 출가 입재식을 갖고, 7일에 삭발 수계식이 이어졌다. 동자승들은 부처님오신날인 21일 회향 환계식을 진행한다.

제5기 동자승들 배소연(5)양을 비롯해 총 11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홍법사는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출가 전 예비모임을 통해 사찰스님들과 지도교사, 친구들과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출가 후에도 삭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1주일간의 행자생활을 거친 후 삭발식을 진행했다. 그 밖에 모든 일정은 여는 스님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이어간다.

1회부터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이끌어 온 이영숙씨는 "무엇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 절 외부로 나갈 때는 동자승보다 2~3배 더 많은 인원의 지도교사가 반드시 동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 개인별 체질, 식습관, 특성 등을 사전 파악해 하루 2번 간식 식단에도 유기농 과자와 제철 과일로 식단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이번 동자승 단기출가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더 큰 일을 해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며 "부모님과 부처님, 스님과 함께 동자승 생활을 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인연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수기법회와 마을상좌 등을 비롯해 동자승 단기출가학교를 각 사찰에서 진행하는 건 무리가 따르겠지만, 전국 교구본사에서 정례화해 매년 개최한다면 어린이. 청소년포교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051) 508-0345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삼광사 순직자 위령재

천태종 삼광사(주지 화산)는 5월 1일 천안함 순국장병들과 금양호 침몰 희생자, 해군 링스헬기 추락 순직자 등을 위한 위령재를 봉행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날 위령재에는 화산 스님과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배영길 부산시행정부시장 등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순직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정각 스님은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떠났듯이, 우리는 영원히 당신들을 버리지 않고 가슴 속에 묻어 둘 것"이라고 애도했다.

# 청소년 위한 광안리문화존 선포

## 부산파라미타 여성가족부 등과 1일 선포식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0 수영광안리 청소년문화존 선포식'이 5월 1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됐다.

여성가족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와 범어청소년동네(이사장 정여)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9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2~5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동아리들의 공연의 장인 '공연축제한마당'과 만다라공예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테마프로그램', 전통과 신세대 놀이문화를 비교 경험하는 'Old&New'가 상설 운영될 계획이다.

백명숙 협회장은 "문화존은 청소년들이 단순 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로 거듭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513-4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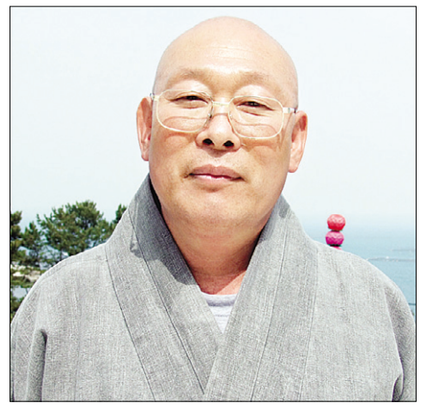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무형문화재 제9호 범음범패 이수자 우암 스님

# 염불이라는 악보 없는 음악으로 채워

5월초,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스님들의 장엄한 염불소리가 파도에 실려 해안가 마을에 울려 퍼진다.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촌마을 사람들은 이 염불소리에 맞춰 그물을 걷어 올리고 손수 채취한 미역을 널어 말린다.

부산 기장군 일광에 자리한 해동성취사에서는 벌써 4년째 범음범패대학을 열고 있다. 일찍이 이곳이 교육의 도량이 되길 부처님전에 발원한 주지 우암 스님(사진)은 무형문화재 제9호 범음범패를 이수하고 20여 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현재 제3기 교육생들이 우암 스님이 직접 편찬한 '범패의식집'을 교재로 매주 화요일 불음을 펼친다.



범음은 우주 대자연의 소리이고, 범패는 범음을 불러 드러내는 것으로 범음범패란 우주의 대자연과 무명 중생의 본성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닫는 불교의식을 일컫는다. 일반적인 독경이나 축원 등의 염불과는 엄연히 다른 한 차원 높은 기도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범음범패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상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스님은 "범음범패를 모르던 사람이 처음 알게 되면 아상이 생겨 자꾸만 거만해진다"며 "범음범패에 뜻이 있는 분들에게는 배움을 전하는데 인색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범음범패 후학 양성으로 회향하려는 우암 스님의 깊은 뜻을 아는 수강생들은 스님의 표정과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수강생은 대부분 출가자다. 하지만 올해 처음 재가불자 수강생이 입학하기도 했다.

우암 스님은 "수강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열정"이라며 "승랍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존심이라는 상을 버리고, 염불이라는 악보 없는 음악으로 온몸과 마음이 가득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이 처음 범음범패와 인연이 닿은 것은 바로 해동성취사 도량에 오면서 부터였다. 스님은 약 20년 전 주지를 맡으면서 신도 접견, 불공, 재 등을 도맡아 해야 했다. 소위 자기계발의 수단으로 범음범패를 배우게 된 스님은 10년의 세월동안 이수자가 되기 위해 정진했다.

스님은 "범음범패를 공부하던 사람들이 꾸준히 정진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1년 정도만 꾸준히 정진해도 사찰에서 지내는 모든 재를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다. 스님은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기량을 충실히 다진다면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돼 후학도 양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암 스님은 "불교계와 많은 분들이 좀 더 범음범패와 영산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다면 앞으로 이러한 불교문화가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051)727-0859

박지원 기자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가정과 사업장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 시작 조심

닥처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쥐띠,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뱀띠,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급가격 별도 상담요)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어버이날 복운축제·자비나눔 그리기대회 · 이주 노동자 템플스테이 · 한마음 명랑운동회

# 5월, 가족 · 이웃을 돌아보는 달





(좌측)근로자의 날을 맞아 선운사에 초대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떡메치기를 하고 있다. (우측)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4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고창지역 500여 명을 초대해 '2010년 어버이날 복운축제'를 개최했다. 복지관 스님이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전북 지역 사찰 및 불교계 단체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축제로 들썩인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어버이날을 맞아 직원들이 복지관 어르신을 위한 축제를 열어 효(孝)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읍불교청년회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청소년들을 위한 자비나눔 그리기를 실시했다. 고창 선운사는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해 이주 노동자 템플스테이 열고,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 어버이날 복운(福雲)축제

어버이날을 앞두고 가족의 소중함과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행사가 개최됐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장 법만, 관장 무공)은 지난 5월 4일 고창복지관 대강당에서 지역의 어르신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2010년 어버이날 복운축제' 를 개최했다.

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손자손녀들의 재롱잔치, 에버그린밴드의 흥겨운 연주와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벨리 댄스,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무공 스님은 "아버님, 어머님들의 은혜에 백만분의 일도 갚을 길이 없지만, 오늘만이라도 여러 어르신들에게 작은 행복과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고창지역에 효의식의 실천과 따뜻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비나눔 그리기대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정읍불교청년회(회장 최민철)는 5월 1일 정읍제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자비나눔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자비나눔그리기 대회는 불교와 관련된 자유주제로 정읍지역의 유치원, 초 · 중등생과 학부모 1000여 명이 동참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읍 청년회 지도법사 승천스님은 격려사에서 "기도하고 불공하는 마음을 그림에 담아 오탁악세에 사는 학생들이 심신의 정화를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철 정읍청년회장도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효의 의미와 불교의 뜻 전하는 다양한 축제 열려**

### 이주 노동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전북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5월 1~2일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한국의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광주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가 마련했다. 이번 선운사 이주노동자 템플스테이는 네팔과 캄보디아 출신 이주 노동자가 참여해 예불, 참선, 명상, 도솔암 포행 등 불교의 수행법을 체험하고 연등을 직접 만들었다. 연등에 담긴 의미 등 부처님오신날 관련 풍습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전통체험으로는 떡메치기, 인절미 만들기, 판소리 배우고 따라해 보기 등 이 진행됐다. 법만 스님은 "뜻 깊은 불교문화체험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선운사 방문 기념으로 다포 등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 불교인 한마음 명랑운동회

익산 지역의 불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역불자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익산불교신도회(회장 박중근)는 5월 2일 익산 마한교육문화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익산 불교인 한마음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운동회에는 스님과 재가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익산 사암연합회장 우성 스님, 정각사 정산 스님 등 익산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익산지역의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우성 스님은 "익산지역에 처음으로 마련된 한마음 운동회라 여러 가지 미흡했지만 모든 불자들이 함께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세상살이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박중근 신도회장은 대회사에서 "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이 한마음이 돼 게임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마음껏 웃고 즐기는 하루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익산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통해 불교의 위상을 높이자는 뜻으로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처세를 허공과 같이 깨끗하게"

##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제14대 종무원장 호산 스님

"광주전남 태고종도들의 마음을 모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의 제14대 신임원장 호산 스님의 취임법회가 광주 조선컨벤션에서 봉행되었다.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제14대 종무원장 호산 스님이 임명장을 받고있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13대 종무원장 금명 스님, 14대 종무원장 호산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단법인광주전통불교영산회(회장 혜령)의 영산다게작법시연을 시작으로 종사이운, 불교의례, 신임 원장 임명장 수여, 화환증정, 이임사, 취임사, 축사, 법어, 아우를 국악 실내악단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혜초 스님은 법어에서 <화엄경> <비로자나품>의 법구를 인용해 "사바세계에는 유혹이 많은 세상이면서, 처세를 허공과 같이 깨끗하게 잘 해야한다"며 "연꽃이 진흙에서 자라고 있지만, 진흙 물이 묻지 않는 것과 같이, 어떤 유혹에도 집착하지 말고 종무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앞으로 4년간 대중들과 화합해 광주전남종무원을 맡아 원만히 수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호산 스님은 법어에 앞서 취임사에서 향후 종무원이 실천해야할 정진 · 화합 · 준비라는 세 가지 화두를 제시했다. 호산 스님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불자들에게 자비와 희망의 등불이 되는 종무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신임 종무원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듯 광주전남종무원 회원사찰을 비롯해 각 신도회 임원 등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신임 종무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가족과 함께라서 더욱 큰행복

## 제1회 광주지역다문화가족큰잔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광주 대광사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다.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다문화가족 큰잔치를 개최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다문화가족에게 행복한 간을 선사하는 잔치마당이 광주지역에서 열렸다.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대표 정선)은 광주 대광사에서 다문화가족 100여 명을 초청 '제1회 광주지역다문화가족큰잔치'를 개최했다.

광주지역 다문화가족 간의 가족애와 화합을 위한 행사는 2팀으로 나누어 전래놀이 중 단체 줄넘기, 꼬리잡기 등의 행사로 시작됐다. 또 보물찾기, 선물증정, 행운권 추첨 등의 한국인들의 기본 놀이 문화를 중심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대광사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만으로도 행복' 해 하는 웃음 소리가 넘쳤다.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는 2월 광주광역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음식공양 대법회

## 여수 지장대사

100가지의 음식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가족, 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특별한 법회가 봉행됐다.

전남 여수 지장대사(주지 정현)는 지난 5월 2일 '지장대불 100가지 음식공양 대법회'를 봉행했다.

'100가지 음식공양'이란 육법공양을 포함해 100여 가지 종류의 음식을 전부 올려 부처님을 찬탄하는 의식이다. 이날 법회에는 쌀, 과일, 과자, 전, 해산물 등 지역의 특산물 등이 신도들의 정성으로 부처님 전에 올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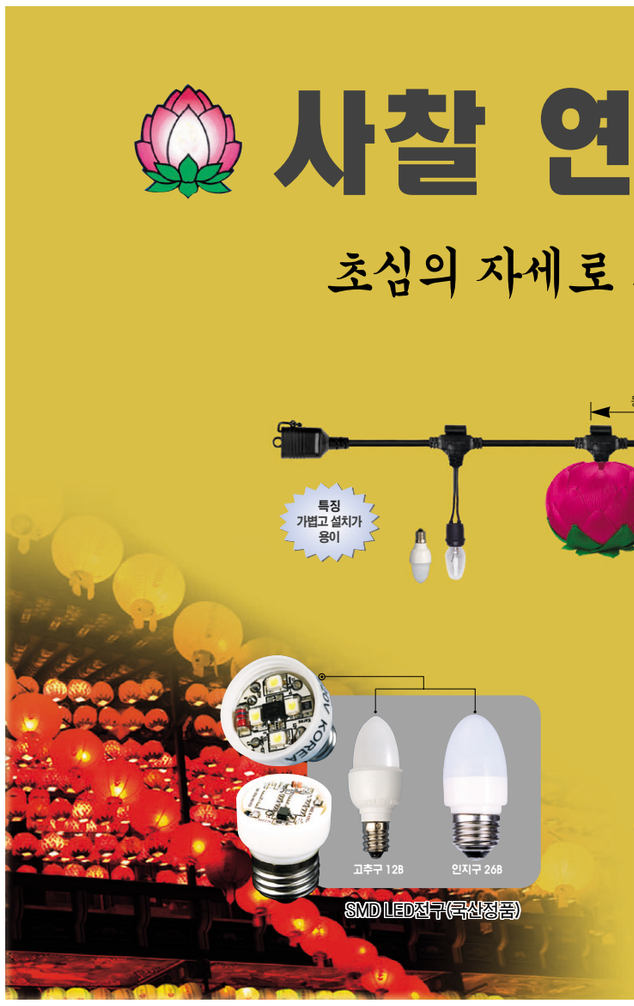
정현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보살님께 100가지 음식공양을 올리는 것은 가정과 사회의 평안을 바라는 최고의 공양"이라며, "지혜로운 자와 중생의 차이는 자신의 삶을 바로 보고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번 법회를 통해 지혜로운 이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장대사는 2004년부터 매년 음력 봄과 가을 지장대불과 관음대불 앞에서 불자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마련한 100가지 음식을 공양하는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 입니다.




불제재원기업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궁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 수덕사는 단청 하나 없이도 충분한 빛깔을 냈다



소년은 수덕사를 그리며

화가를 꿈꿨고,

수덕사는

그의 미술관을 지었다



이응노 회백이 옥살이를 끝내고 나와 프랑스로 떠나기 전 머물던 수덕여관 입구.

## 화가 이응노의 아틀리에
## ⑩ 예산 수덕사 (修德寺)

억울하게 옥에 갇힌 예순 넷의 화가는 차가운 감방에서 간장을 찍어 화장지에 그림을 그린다. 한국 근현대미술사에 굵은 이름을 새기고 우리의 그림을 세계에 알린 그는 프랑스 파리에 잠들어 있다. 어린 시절 덕숭산과 수덕사의 풍경을 그리며 화가의 꿈을 꾸었던 고암(顧菴) 이응노(1904~1989)다.

2010년 3월 26일 예산 수덕사에 '수덕사 선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고암 이응노를 기리기 위한 미술관이다. 미술관은 그가 머물던 절 입구 수덕여관 옆에 세워졌다. 미술관 옆 절, 수덕사로 오르는 길에는 꽃과 연등이 봄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경허, 만공'만으로도 가풍과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수덕사는 창건에 관한 정확한 문헌이 남아있지 않다. 백제 위덕왕(554~597) 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년여의 옥살이를 끝내고 세상으로 돌아온 그는 수덕사로 간다. 한지와 먹, 그리고 우리의 붓을 들고 세계로 나갔던 그는 1967년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뜻하지 않은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주위의 꾸준한 탄원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한동안 살았던 수덕여관은 옛 모습 그대로 주인을 따뜻하게 맞아준다.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으로 버려졌던 영혼은 개울가 너럭바위 위에 앉아 끝없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바위에 그림을 그린다. 지금도 그 바위는 수덕여관 앞에 있다.

700년 묵은 법당 앞마당엔 오색 연등이 이응노의 한지 콜라주처럼 허공에 붙어있다. 한국을 넘어 유럽에 자신과 '우리'를 알린 이응노의 그림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그야말로 이응노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림이다.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영감을 얻은 그의 대표작 '군상'은 먹 하나로 그린 그림이지만 백가지 색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먹'의 세계를 보여준다. 한 장의 그림은 수백 장의 그림을 동시에 보는 것 같고, 그림인 듯 문자인 듯 경계를 허무는 추상은 예술 본색이다.

그렇게 우리의 것으로 유럽을 사로잡고 세계를 매료시킨 노년의 한 한국 화가는 또 한 번의 시련을 겪는다. 백건우 윤정희 납치미수사건에 연루되어 그의 작품은 국내에서 발표와 매매가 금지된다. 이유는 '빨간색'이라는 것이었다.

여든이 다 된 그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 그는 프랑스인으로 세상을 떠난다.

저녁예불이다. 법고 소리가 바람에 나부끼는 연등 콜라주와 함께 퍼포먼스를 펼치는 듯했다. 대중들이 연등을 헤치며 법당으로 가고, 저녁 해는 법당 문살을 적신다. 미술관 옆 절, 수덕사의 대웅전은 단청 하나 없이도 충분한 빛깔이었다. 누구의 '먹'처럼.

1989년 1월 서울 호암미술관에서 이응노의 전시회가 열렸다. 서울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던 그 날, 이응노는 프랑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다. 그리고 이틀날 세상과 영원히 이별한다. 여든여섯 살, 생일을 이틀 앞두고 그는 또 한 번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으로 떠나갔다.

수덕사를 찾는다면 수덕여관에 들를 일이다. 너럭바위 위에 앉아볼 일이다. 한 영혼이 힘겨운 시간 뒤에 찾아와 머물던 아랫목이다. 누군가의 지나간 흔적을 느껴보는 것은 영혼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일 테니까. 목탁 소리 예불문 소리에 도량이 젖어갔다. 너럭바위 위로 딱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수덕사 가는 길**

경부고속도로를 이용시, 천안IC로 나와서 21번 국도로 온양, 예산, 덕산을 지나면 수덕사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시, 해미IC로 나와서 수덕사 이정표를 따라가면 된다.

빛 살림
정골요법
이재복 지음(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골요법 (正骨)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석우 스님의
## 조주록 선해 <15>

# 정법 · 사법보다 사람이 문제

"형제들이여, 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설하면 삿된 법이 사람을 따라서 바르게 된다. 그릇된 사람이 정법(正法)을 설하면 정법도 그 사람을 따라서 그릇되게 된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는 어렵지만 알기는 쉽다. 그러나 나의 이곳에서는 보기는 쉬워도 알기는 어렵다."

兄弟正人說邪法 邪法亦隨正 邪人說正法正法亦隨邪 諸方難見易識 我者裡易見難識

사람이 문제이지 정법과 사법이 무슨 문제이겠는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나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된다. 부자(附子)는 원래 사람을 해치는 독약이지만 의사의 손을 만나 법제를 당하면 냉병을 다스리는 훌륭한 약이 된다.

조주 스님은 사람이 바르다면 사법(邪法)도 사람을 위하는 법으로 바뀌어 버리므로 바른 사람에게는 정법 사법을 특별히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설법이 매우 흥미롭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는 어려워도 알기는 쉽지만, 조주 스님의 법석에서는 보기는 쉬워도 알기는 어렵다고 말한 부분이다. 선(禪)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본다는 것은 스스로의 성품이나 도를 보는 것을 말한다. 일명 견성(見性)이다. <조주록>에서도 끝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조주 선사는 바로 봄을 목적으로 설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약간의 이해 능력만 있다면 조주의 설법을 듣고 도(道)나 자성(自性)을 즉시 봐버리고 만다. 그래서 조주 선법은 보기 쉽다. 그러나 교묘하고 그럴 듯한 지식은 그 어디에도 없다. 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도는 알기 어려운 것이다. 오로지 한번 봐버림으로서 모든 것에 통하게 하려는 것이 조주의 선법이다.

학승이 물었다.
"선(善)도 악(惡)에도 유혹되지 않는 사람을 독탈(獨脫)이라 해야 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독탈하지 못한 거야."
학승이 물었다.
"어찌하여 독탈하지 못한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선악 속에 있기 때문이야."

問 善惡惑不得底人 還獨脫也無 師云 不獨脫 學云 爲什麼不獨脫 師云 正在善惡裡

궁극적인 도의 경지는 선악에 유혹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들은 한결같이 선악에 유혹되지 말라고 했다.

선과 악은 어느 쪽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선악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악은 시대적인 상황과 당시의 피해 정도를 보고 '악'이라고 규정해 말하나, 어느 때는 악이 선이 될 수 있다. 진정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선악에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유혹되지 않는다면 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설사 선악에 유혹되지 않는다 해도 해탈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딱 부러지게 단정하고 있다. 선악을 떠난다 해도 아직 선과 악의 경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주 스님의 이 사상은 부처님의 <금강경>사상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금강경>의 사상대로라면 선악을 떠났다는 생각도 떠나야 진정한 떠남이다. 즉 마음 깊은 곳에서도 선악을 떠났다는 생각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선악이라는 개념도, 이름도, 떠났다는 생각도 철저히 없어야 떠남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선악 속에 있는 것이 된다.

**선 · 악에 유혹되지 않아야 진정한 도**

**모든 존재하는 것은 언젠가 무너진다**

한 비구니 스님이 물었다.
"이제까지 가르쳐주신 것을 떠나서 화상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혀를 차면서 말하길,
"주전자가 탄다."
그 스님은 주전자에 물을 따라 붓고 다시 말했다.
"화상께서 제발 대답해주십시오."
조주 스님은 "하하"하고 웃었다.

尼問 離卻上來說處 請和尙指示 師咄云 憎破鐵瓶 尼將鐵瓶添水來 請和尙答話 師笑之

선사는 질문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기 때문에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은 명석한 머리로 즉시 알아들어야 한다.

이 선문답도 이제까지 내려 주신 가르침을 제외하고 좀 다른 가르침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조주 스님은 질문하자마자 바로 답이 나갔다. 그것은 "주전자가 탄다"라는 말이다.

선사가 말한 의도를 어려운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 선은 항상 일상사에 답이 있다. 조주 선사는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 속에 불교의 핵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조주 선사는 "특별함은 없어. 있다면 '주전자가 탄다'는 것과 같은 것들 뿐이야." 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주전자를 너무 오래 달리면 탄다는 말이야 말로 이제까지 조주가 말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세계가 변하여 암흑이 된다면 그때 이 몸은 어느 길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그런 것은 점치지 않아."
학승이 물었다.
"점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밭가는 노예야."

問 世界 變爲黑穴 未審此箇落在何露 師云 不占學云 不占是什麼人 師云 田庫奴

태양이 식어 암흑이 된다면? 세계가 불바다가 된다면? 지구가 무너진다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혹 스님은 정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사는 그러한 것과 무관하다. 혹은 스님을 신통한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수행자는 신통과도 무관하다.

불교는 존재하는 것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절대적 진리를 설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도 언젠가 무너지고 만다.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구가 무너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궁금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구가 무너지는데 사람인들 어떻게 제대로 보존되겠는가? 불교는 그러한 때에 어떤 부처님이 혜성처럼 나타나 중생을 구원하여 다른 안락의 세계로 데려간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구도 멸망하고 사람도 반드시 죽는다.

이러한 절대적 법칙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교가 불교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조주 스님이 자신을 밭가는 노예로 표현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 조주 스님은 적어도 총림의 방장이고 나라에서 나이가 가장 연로한 스님이므로 대내외적으로 부처님 이상 가는 존경과 존칭이 붙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선사 스스로는 나는 일개 '밭가는 노예'일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에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 달마관심론 20

# 일곱 가지 법으로 단장하라

#목욕하는 법

또 여쭙기를 "<온실경>에서 말씀하시길 '스님들을 목욕시켜 드리면 한량없는 복을 얻는다' 했는데 마음을 관(觀)하는 것으로 상응이 되겠습니까?" 하니 대답을 하셨다.

"스님들을 목욕시켜 드린다는 것은 세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세상의 일로 진실하고 위없는 가르침을 비유하신 것이며 은밀하게 일곱 가지 사물을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 일곱 가지를 말하자면 첫째는 깨끗한 물이고 둘째는 불을 피우는 것이고 셋째는 비누며 넷째는 양지(楊枝 · 치아를 닦는 도구)고 다섯째는 깨끗한 재며 여섯째는 우유로 만든 기름이고 일곱째는 속옷이니라. 이 일곱 가지로 목욕하고 단장하면 삼독과 무명과 때와 더러움을 없앨 수 있느니라.

일곱 가지 법이라는 것은 첫째는 법과 계율이니라. 거짓과 허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이 마치 깨끗한 물로 때와 먼지를 씻어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라. 둘째는 지혜인데 안과 밖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불을 피워 물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셋째는 분별인데 나쁜 마음들을 가려내어 버려버리는 것이 비누로 끈적거리는 더러움을 씻어내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넷째는 진실인데 온갖 거짓말을 끊어버리는 것이 양치질을 하는 나무로 입안의 냄새를 없애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라.



동성 스님 作

다섯째는 올바른 믿음인데 선을 행하고 악을 끊겠다는 결의를 하면 다시는 걱정이 없는 것이 깨끗한 재로 문지르면 풍병을 피할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여섯째는 호흡을 조절하는 것인데 억센 마음을 누르는 것이 우유로 만든 기름으로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일곱째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인데 나쁜 짓을 뉘우치는 것이 마치 속옷이 추한 알몸을 감추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이니라.

이상 일곱 가지가 모두 경전 속의 비밀한 가르침인데 요즈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라. 온실이라는 것은 곧 몸이니라.

지혜의 불로 깨끗한 계율의 탕을 데워서 몸속의 진여불성을 목욕시키되 일곱 가지 법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라는 것이니라.

당시의 비구들은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났으므로 부처님의 뜻을 알아 설하신 대로 수행하고 공덕을 성취하여 모두 다 성인의 지위에 올랐는데 지금의 중생들은 어리석고 우둔하여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세간의 물로 육신을 씻는 것으로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라 하니 그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또 진여불성은 세속의 모습이 아니고 번뇌와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본래 모습이 없는데 어찌 형체가 있는 물로써 번뇌가 있는 무명의 몸을 씻을 수 있겠으며 사리에 맞지 않으니 어떻게 도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항상 이 육신은 탐욕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생겨난 것이라 냄새나고 더러운 거시 뒤섞여 안팎에 가득한 것이라고 관(觀)할지니라.

이 몸을 씻어 깨끗하기를 바란다면 진흙을 씻어봐야 깨끗해 질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껍데기를 씻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알지니라."

**[원문]**

又問曰 溫室經 云洗浴衆僧 得福無量 若有觀心可相應不 答曰洗浴衆僧者 非說世間有爲之事也 此假諸事 譬喩眞宗 隱說七事 其七事者 一者淨水 二者燃火 三者 豆 四者楊枝 五者淨灰 六者 膏 七者內衣 用此七法 沐浴莊嚴 能除三毒無明垢穢 其七法者 一者法戒 洗溫愆非 猶如淨水 去諸塵垢 二者智慧 觀察內外 猶如燃火 能溫淨水 三者分別揀棄諸惡 猶如 豆 能淨垢 四者眞實 斷諸妄語 猶如楊枝 能消口氣

**[해설]**

일곱 가지의 참뜻을 알게 되면 탐 · 진 · 치 삼독과 어리석음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는 견해를 '법(法)'이라고 합니다.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탐 · 진 · 치 삼독을 끊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법으로 목욕하고 단장하며 참 뜻을 이해하게 되면 삼독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법이란 항상 우주를 그대로 하나에 마음을 두고 정진을 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하는 놈이 우주와 하나고 지장보살 하는 그 놈도 우주와 하나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알고 해야지 분별심이 끊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분별심이 일어나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은 정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과 허물을 부드럽게 씻어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말과 남의 허물을 보는 부분도 결국 나와 너를 분별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진하는 것이 깨끗한 물로 때와 먼지를 씻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 전통불교천지대왕종
#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卍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 아우르고 보듬는 마음 없는 세상은 캄캄절벽



## 외출 자제… '25시간 깨어 있는 도량' 포교 지름길

## 연기적 질서 속에 자신 담금질 할 때 '명품 인생'

파주 약천사 주지
**허정 스님**

**허정 스님**은 …
1965년 동화사로 출가, 의현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76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2년 뒤 법주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동화사 교무국장, 대구 용연사 주지, 조계사 주지, 서울 북아현동 금련사 주지(창건), 조계종포교원 연수부장, 경찰청 경승 등을 지냈다. 1995년부터 파주 심학산 약천사에서 도량 불사를 하며 포교에 주력하고 있다.

파주출판단지와 교하신도시를 품은 심학산. 해발고도 194m의 낮은 산이지만 5곳의 등산로와 근래 조성된 둘레길을 찾는 '뚜벅이 족'들이 늘고 있다. 잘 정비된 정상에서는 일산과 파주지역이 한 눈에 조망되고 한강의 유연한 흐름과 임진강 유역, 오두산 전망대와 그 너머 북한 지역의 산자락까지 볼 수 있는 요지다. 서쪽으로 떨어지는 낙조는 사시사철 아름답다.

15년 전, 그러니까 파주 출판단지와 신도시가 형성되지 않았던 당시의 심학산은 여느 야산과 다를 것이 없었다. 사람이 다니는 곳에 길이 나고 길은 삶의 애환으로 다져진다. 심학산에 난 길이 그렇다. 삶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 육신과 정신 건강을 위해,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 길이 생겼다.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더 행복한 내일을 갈망한다.

20만 교하 신도시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산책코스 심학산의 길들, 그 중심에 약천사가 있다. 등산로나 둘레길의 중간에 위치해 심학산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이 약천사를 거치게 된다. 웅장한 지장보전에서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2008년 10월에 남북통일과 일체중생의 병고치유를 발원하며 모신 높이 13m의 남북통일약사여래대불의 엄숙하면서도 다정한 상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선물한다.

약천사는 심학산에 길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따라 천천히 일구어진 도량이다. 어느 날 갑자기 기술과 자본이 투입돼 뚝딱뚝딱 지어지는 아파트 같은 절이 아니라는 얘기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좀 쑥스러운 얘기일지는 몰라도, 목탁 하나로 지은 절입니다."

약천사 불사를 주도한 허정(虛定) 스님이 '목탁 하나로' 절을 지은 내력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5년 야산 기슭의 자그마한 법당에 인연이 닿아 무작정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진했어요. 정진이란 게 다른 것도 아니었지요. 하루 3번 예불 모시고, 각종 기도 법회와 인연 따라 들어오는 불공에 정성을 들인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절을 비우지 않고 늘 자리를 지키며 누가 찾아와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부입니다. 뭐 특별한 재주가 없는 나로서는 절지키는 것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큰손'에 의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연불자들의 정성이 모이고 모여 이렇게 도량이 이루어졌고, 나는 여전히 할 일이 있으니 다행이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은 뒤죽박죽이다. 출가하여 절집에서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 글이 '초발심자경문'이다. 허정 스님은 요즘도 45년 전에 보았던 '초발심자경문'을 수시로 읽는다. 누가 경전을 권해 달라고 해도 '초발심자경문'을 먼저 읽으라고 권한다. 거기 첫출발의 마음에서 오늘의 의미를 길어 올리자는 뜻이다. 근본정신이 흔들리면 만사가 헛일 아닌가. 허정 스님은 "절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법을 베푸는 본분사에 매진했기에 여법한 도량이 일구어진 것이다.

"지식평등화 시대에 교리로 포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들 지식의 측면에서 아는 것이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잖습니까? 신문 방송 등의 미디어나 출판물도 생활화돼 있고요. 그렇다면 지식이 아닌 신행과 신앙의 측면에서 승속이 소통하고 절과 가정이라는 공간이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스님이 절이라는 공간에서 대중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포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 비우지 않고 늘 깨어 있는 스님이 있을 때 도량도 깨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스님이 주인 노릇을 잘해야 부처님 가르침도 제대로 전해지는데 현실적으로 안쪽의 주인보다는 바깥의 물상에 이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망하게 생각과 마음이 바빠서 그런 겁니다."

절의 주인 노릇에 철저한 것, 그것이 허정 스님의 포교 노하우라고 이해됐다. 절은 공간의 의미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공을 초월한 절대진리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삶의 피로를 달래려고 나선 산책길에서 만난 장엄한 약사여래 앞에서 마음의 병고를 치유 받고 새로운 희망의 시간을 가슴가득 담아오듯 절은 시공을 초월한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다.

"깨달음은 부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유구한 세월동안 많은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도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누가 뭘 깨달았다고 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큰 것을 깨달았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 펼쳐놓으신 길, 그 길을 잘 가는 것입니다. 여법(如法)하게, 가르침대로 말입니다. 선사는 선사의 길을 율사는 율사의 길을 강사는 강사의 길을 가야하고 재가자는 재가자의 길이 있거든요. 깨닫겠다고 거기 목숨 거는 것이 대안이 아니고 깨달음의 행동을 하는 순간 순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수행자가 되거나 절대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라는 것은 극단이 아니라 튼튼한 근본에서 이루어지는 단단한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님이 영어를 잘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알아준다고 합시다. 세상에 영어 잘 하는 사람이 한 둘도 아닌데 왜 알아줍니까? 스님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스님이라는 틀 위에서 영어를 잘하는 것이지 영어를 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본에서 절대성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허구에 불과합니다. 뿌리가 두터워야 가지가 무성하거든요(根厚枝盛).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북돋우는 역할을 할 때 깨달음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신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북돋우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니 더 이상은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허정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불교는 '아우름'을 유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별과 시비를 유발하는 것은 종교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분별과 시비까지도 아울러 보듬는 넓은 도량이 될 때 지혜와 자비의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세상은 언제나 캄캄절벽일 뿐.


#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 뿌리 부실하면 맛난 열매 없어

**인아산붕처(人我山崩處) 무위도자고(無爲道自高) 범유하심자(凡有下心者) 만복자귀의(萬福自歸依)**

나를 버리면 스스로 도가 높아지고 내가 없는 가운데 하심하면 만복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내 것이라고 하는데 대한 집착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제대로 하심과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집착을 먼저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야 진짜 하심이고 겸손이니, 그 자리에 만복이 깃든다고 한 것입니다."

아우름의 지혜가 부족할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진다. 세상을 다스리는 제도가 미비하면 문물이 혼탁해지는 것처럼 개인의 지혜가 부족하면 아울러 보듬을 수 있는 여지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는 세상을 향해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물질문명의 발달과 개방지향적인 사회구조에 따라 종교집단도 세상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고 더러 편승하기도 한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그런 가운데 불교계는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연기의 도리 속에서 세상을 파악하고 행위를 결정지어야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숱하게 연기적 질서를 얘기하면서 하는 행위는 그에서 벗어나 사바세상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으니 스스로 타들어가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떼거리로 밀어붙이는 세상이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기형화 될수록 나는 바르게 가야한다는 이념이 확고해야 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실이 있을 수 없고 궁극이 있을 수 없는데, 더러 목적의식은 간 곳 없고 방법에 낙착되어 본질을 잃는 것을 봅니다. 일의일발(一衣一鉢)의 정신은 꼭 한 벌의 옷과 바리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의일발도 소유일 수 있고 만의만발도 무소유일수 있습니다. 사적(私的)인 입장에서는 10원도 소유이고 공적(公的)인 개념에서 일억 원도 무소유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정월에 필요한 것이 있고 유월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 어디에 박혀 있느냐하는 것이니 진정한 무소유정신이 늘 성성적적 해야 합니다. 대만의 성운 스님이 한 번의 법회를 위해 대단히 화려하게 장엄하는 법석을 두고 누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장엄의 근본 의미가 숭고하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은 계산에 의해 돌아간다. 계산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셈으로 따져서는 안 될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셈을 버려야 한다. 허정 스님은 셈을 하면 안 되는 관계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부부'를 꼽는다.

"부부는 셈을 떠난 한 덩어리입니다.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듬어야 하는 관계 입니다. 물질에 대한 셈이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 가정이 곤란 해 지는 겁니다. 부부간에 셈이 없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가 발전 인류평화라는 거창한 소망들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근간(根幹)을 살찌우면 지말(枝末)은 풍성해 집니다. 가정이라는 근간, 부부라는 근간이 튼튼해야 합니다. 셈이 없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집을 버려야 하니 그게 생활 속에서의 수행입니다. <신심명>의 첫 대목 '지도무난(至道無難) 유염간택(唯嫌揀擇)'의 도리를 잘 알잖아요? 결국, 나(我)를 없애는 공부가 근본이 돼야 하고 연기의 질서에 거스르지 않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모든 공부가 시작되고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인과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했다. 뿌리가 부실한데 화려한 꽃과 잘 익은 과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 하고 작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기대한다. 중생심에는 연기의 질서를 순종하기보다는 욕망의 성취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집착을 벗어던지는 길은 무엇일까? 허정 스님은 "참회(懺悔)하면 진리를 향해 가는 연기의 길이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독의 풀이 무성하게 자라 바른길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명검은 수없이 달구고 두드리는 가운데 벼리어 지는 것이다. 한 두 번의 담금질로 잘 드는 칼이 만들어질 수 없다.

"하루하루의 삶이 자신을 달구고 식히고 두드리는 정진이 될 때 명품인생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심학산의 5월은 황홀지경이다. 도량의 안과 밖을 구별할 것도 없이 꽃들이 가득 피어 있고 잎들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며 울렁울렁 초록의 파도를 치고 있다. 그 초록을 배경으로 앉아계시는 약사여래께서는 가까이로 신도시 공사현장을 살피시고 멀리로는 오두산 전망대 넘어 개성 송악산 자락을 바라보고 계신다. 기도도량의 너른 마당에 꽃그늘이 황홀하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본지 논설위원)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92. 캄보디아 승왕 텝봉 스님

캄보디아 승왕인 텝봉 스님은 공산정권인 크메르루주 정권 몰락 이후 처음으로 노로놈 시아모니(Norodom Sihamoni) 국왕으로부터 최고 스님으로 추대된 캄보디아 불교계의 상징이다. 텝봉 스님은 크메르루주 정권 당시 평화운동을 펼쳤고, 해외에 있는 캄보디아 불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준 스님으로 유명하다.

우리가 찾은 메콩강변의 텝봉 스님 왕사(王寺)에는 300여 명을 훌쩍 넘는 스님들이 있어 교세를 짐작케 했다. 한국과의 불교교류에 큰 관심을 보여 온 텝봉 스님은 한국에서 방문객들이 왔다는 소식에 반갑게 우리를 맞았다.

텝봉 스님은 나이에 비해 많이 늙어보였다. 크메르루주 정권 하에 몰살된 불교 되살려



주 정권으로부터 받은 모진 고문의 영향도 있어보였다.

"이곳은 날씨가 더워서 빨리 늙습니다."

텝봉 스님은 승왕의 신분에도 농이 섞인 말을 건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스님은 "캄보디아에서 융성했던 불교는 킬링필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죽고, 절에서 쫓겨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중흥의 과정에서 한국불교에게 배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스님은 승왕이 되기 전부터 해외에 망명한 스님들의 입국과 정착, 어린 사미스님들의 육성과 교육, 그 무엇보다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일에 나섰다. 크메르루주 정권 하에 문을 연 사찰이 하도 없던 캄보디아가 2만여 사찰과 6만여 스님들이 있는 불교국가로 거듭나기까지에는 스님의 활발한 활동이 밑거름이 됐다.

스님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호국불교와 전후 민중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불교의 역할을 화제로 진행됐다.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등과 국경을 접한 캄보디아는 그동안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불교가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불교가 국교였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불국정토를 형성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최근 다종교 국가가 됐지만 다수의 불교인들은 찬란한 문화재를 보호하며 수행으로 불법을 펼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오간 후 스님은 "캄보디아와 한국은 닮은 점이 많은 불교의 형제국이다. 불국토를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캄보디아 최고 지도자임에도 스님은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스님의 모습에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큰절을 같이 하는 하와이 고암 스님, 항상 무릎을 꿇고 손님을 맞는 일본 주정(酒井) 스님 등 여러 스님들이 떠올랐다. 나는 텝봉 스님을 만나며 큰 스님에게는 상이 없음을 새삼 느꼈다.

대화 이후 스님은 시자들을 시켜 우리에게 왕사 구석구석을 안내했다. 왕사를 둘러보니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보낸 황소 청동상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前 국왕인 시아누크(Sihanouk) 공이 망명 중일 때 북한에서 도움을 받은 것을 인연으로 김일성 주석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 주석은 그 이후 불교에 큰 관심을 갖게 돼 북한 내 불교문화재를 재정비했다고 합니다."

일행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불교가 남북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해 마음이 흐뭇했다.

텝봉 스님은 저녁 무렵 캄보디아 불교를 느껴보라는 취지에서 우리에게 캄보디아 승복을 보내왔다. 우리 일행은 캄보디아 승복을 입고 왕사 인근에서 탁발을 했다. 직접 겪어 본 캄보디아 인심은 진실로 순박했다.

우리는 피부색이 달랐지만 발우는 많은 음식으로 가득찼다. 국민들의 승가에 대한 지지는 텝봉 스님과 같이 자신의 삶으로 불법을 보여준 스님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2009년 3월, 프랑스 식민지 시절 베트남에 불법 할양된 메콩델타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당시 스님이 1주일 간 폭동이 일어난 지역을 순회하자 폭동은 평화로운 항거로 바뀌기도 했다.

공산 치하에서 모진 고문을 겪었지만 그 와중에도 국왕을 보필해 불제자로 이끈 텝봉 스님. 텝봉 스님은 캄보디아를 넘어 세계인들을 불국정토로 묶는 우리 시대의 큰스승이었다.




아름다운 연꽃!
향기로운 연꽃!
집에서 키워 보세요.

보현선원에서 연꽃새싹을 불자님께 무료로 분양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꽃 등 밝히듯 내 마음도 연꽃같이 되길 발원하며 예쁘게 키워 보세요.

'5월 14일(음, 4월 1일) 오전 10시' 부터 선착순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사월 초파일 연등 접수 합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184-3 국악고등학교 정문 앞 보현선원 02)579-3690



# “석여의 본서는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작품”

## <57> 한위양진남북조불교사의 탕용동(湯用彤)거사 <끝>


그림 · 김홍인

중국 근대에 양문회-구양경무-여징의 3대 거사들을 통해 명 · 청대에는 쇠락했던 불교와 불교학이 다시금 본격적으로 부흥했다. 그 과정에서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직접 해외에서 유학을 통해 받아들이는 이들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탕용동(1893~1964) 거사이다.

거사는 청(淸)의 광서(光緖) 19년(1892) 6월 21일에 감숙(甘肅)의 위원(魏源)에서 태어났고, 자(字)는 석여(錫予)이다. 본래 집안의 원적(原籍)은 도신-홍인 선사의 동산법문(東山法門)으로 유명한 호북(湖北)의 황매(黃梅)였지만, 거사의 부친이 진사에 합격해 위원의 지현(知縣)에 제수 받아 그곳에서 태어났다. 거사의 부친은 거사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직을 그만두고 학당을 세워 후학을 지도했다. 이러한 환경은 거사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경사(經史)에 매우 능통케 하는 견실한 토대를 제공했다.

광서 말년에 거사의 집안은 북경으로 이주했다. 거사는 1911년에 북경의 순천(順天)학교에 입학했다가 다음 해 청화(淸華)학당(現 청화대 전신)으로 옮겨 근대학문을 배웠다. 1916년 졸업하면서 거사는 학교 교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청화주간(淸華周刊)>의 편집장을 맡았다. 1917년에 관비로 미국 유학생에 선발됐지만, 신병으로 1918년에서야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에서 거사는 미네소타주 햄린(Hamline)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 등을 연구하다가 1919년에 하버드(Harvard)대학으로 옮겨 서양철학과 산스크리트와 빨리어를 통해 집중적으로 불교를 공부했다. 당시 하버드에서 함께 유학했던 동료로는 청화학당을 함께 졸업한 오복(吳宓)과 서북(西北)대학 출신의 매광적(梅光迪)이 있었다. 중국 근대인문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들은 ‘하버드의 삼걸(三杰)’로 불렸다.

거사는 1922년 하버드에서 철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해 먼저 동남(東南)대학(후에 중앙대학으로 개명, 現 남경대학) 철학과 교수를 맡았다. 당시 마침 남경에는 구양경무 거사가 ‘지나내학원’을 설립해 친히 <유식결택담(唯識決擇談)>을 강의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거사는 여가시간을 거의 구양 거사로부터 불교학을 배우는데 할애했고, 이후 지나내학원에서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의 강의를 맡았다. 거사와 구양 거사의 반연은 거사의 불교학에 굳건한 토대를 갖추게 해 당시 운집한 수많은 불교학자들, 예컨대 구양 거사의 애제자인 여징(呂澂)과 왕은양(王恩洋)으로부터 양계초(梁啟超), 웅십력(熊十力) 등과 깊은 인연을 맺게 했다.

거사는 1926년에 천진(天津)의 남개(南開)대학에서 새롭게 근대학문의 틀을 마련하려는 총장의 초청으로 철학과 주임교수로 잠시 옮겼다가 1927년에 다시 중앙대학(現 남경대학)으로 돌아왔다. 비록 1년 여의 기간이지만, 탕 거사의 노력으로 남개대학은 짧은 기간에 중국의 명문대학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갖게 됐다. 1930년에 다시 북경대학 문학원 원장으로 있던 호적(胡適)의 초청으로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국불교사, 인도철학사, 위진현학(魏晋玄學) 등을 강의했고, 특히 중국불교사에 연구를 집중했다. 북경대학 재직 당시인 1933년에 집필하기 시작해 4년의 노력으로 완성한 것이 바로 유명한 <한위양진남북조불교사(汉魏两晋南北朝佛教史)>이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북경대 · 남개대 · 청화대학이 운남(雲南)의 곤명(昆明)으로 피난해 세운 ‘서남연합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다시 북경으로 돌아온 북경대에서 계속 교수직을 맡았다. 1947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버클리(Berkeley)대학의 초청으로 1년간 중국철학사를 강의했다. 1948년에 귀국해 국립 북평(北平)연구원의 원사(院士)로 선임되었는데, 불교학자로는 거사가 유일하다. 1951년에는 북경대 부총장을 역임했다. 1954년에 뇌일혈로 쓰러져 후유증이 있었지만, 후학의 지도에 여념이 없다가 1964년 5월 1일에 72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유학 통해 받아들여
### 부친의 영향으로 불교의 사상 · 역사를 관통

탕용동 거사는 전형적인 학자로서 이전에 논술한 양문회-구양경무-여징의 3대와는 전혀 다른 풍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의 불교학과 관련된 연구는 오히려 중국불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거사의 불교학에 대한 연구과정과 성과를 고찰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거사의 연구성과는 주로 <인도철학사략(印度哲学史略)>, <이학(理學) · 현학(玄學) · 불학(佛學)>, <위진현학론고(魏晋玄学论稿)>, <한위양진남북조불교사(汉魏两晋南北朝佛教史)>, <수당불교사고(隋唐佛教史稿)>의 대표적인 저술에 나타나 있다. 물론 이외에 상당히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소논문들을 간과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연구성과로부터 대체적으로 거사는 인도불교로부터 중국불교에 이르는 전체적인 사상과 역사를 관통하고 있음이 짐작된다. 이러한 거사의 학풍은 그가 스스로 “어려서 집안의 가르침을 계승해 일찍이 을부(乙部; 역사)를 열람했다[幼承庭訓, 早覽乙部]”라고 하듯이 선친의 영향으로부터 형성됐다. 이는 <한위양진남북조불교사>의 발문에서 “돌아가신 부친 우삼(雨三)공께서는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 비록 입신행기(立身行己)의 대단(大端)을 순순히 타이르시지만, 어리석음을 깨우침에 있어서는 항상 이전의 사상과 행적을 설해 비교함으로써 호되게 가르치셨다. 내가 조금 컷을 때 현원(玄遠)의 학문을 마음에 두고서 항상 내전(內典; 佛學)을 애독했다. 돌이켜보니, 또한 이전의 옛 사상의 맥락과 종파의 변천을 밝혀 찾음을 좋아했다”고 쓰고 있음으로부터 짐작된다.

거사는 학문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친으로부터의 기본적인 경사(經史)와 불교에 훈습된 소양에 미국 유학을 통한 새로운 학문의 연구방법을 융합하고, 다시 구양경무 거사를 통해 본격적인 불교연구의 장을 열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거사는 대체적인 중국불교의 사상은 인도로부터 전래돼 위진 · 남북조와 수 · 당대에서 이미 완전히 완성됐다고 보고 있다. 송대 이후의 불교는 다만 수 · 당대에서 완성된 사상적 연변(演變)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거사의 관점이다. 그에 따라 거사는 집중적으로 동한으로부터 당대에 이르는 불교사의 연구에 온 힘을 쏟았다. 거사의 대표적인 작품인 <한위양진남북조불교사>는 제목에서 짐작하듯이 남북조에서 그치고 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중국불교사의 강의와 연구를 진행했지만, 본격적으로 집필을 하던 시기에 중일전쟁이 발발한 것에 원인이 있다.

<한위양진남북조불교사>는 내용이 2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는 한대의 초전불교를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2부는 위진 · 남북조의 불교를 논했다. 특히 2부에서는 현학과 불교의 관계로부터 양진의 명사와 명승, 오가칠종의 반야학파, 구마라집과 혜원 및 그 문하, 각 종파의 연원 등에 대해 상세히 고증했다. 남북조 이후의 부분은 본래 거사가 중앙대학과 북경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수당불교사’의 강의안을 써서 등판인쇄로 학생들에게 배포한 것을 후인들이 모아 거사의 강의내용과 소논문 등을 참고하여 정리해 출판한 책이 바로 <수당불교사고>이다. 또한 거사의 아들인 탕일개(湯一介; 현 북경대 교수)는 이 <수당불교사고>를 바탕으로 해 다시 자신의 <오대송원명불교사>를 추가해 <수당급오대불교사(隋唐及五代佛教史)>(1979년)를 출판했는데, 이러한 일들은 모두 거사가 입적한 이후의 일이다.

거사의 <한위양진남북조불교사>는 출간시에 교열을 맡았던 호적 선생은 “석여(탕 거사)의 훈련은 극히 정밀하고, 자료 또한 뛰어나며, 연구방법 또한 세밀하니, 그런 까닭에 본서는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작품이다.”라고 극찬을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해 현재에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불교사의 신기원을 이룬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뛰어난 저술이 아직 국내에 번역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탕용동 거사는 사실상 필자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거사의 유명한 제자가 바로 임계유(任繼愈) 선생이고, 그의 제자인 뢰영해(賴永海) 선생은 바로 필자의 박사학위지도교수이다. 더욱이 필자는 본래 중국선종사의 연구를 위해 중국 남경대에 유학을 했다가 중국선종사 연구보다 더욱 중요한 연구가 바로 위진 · 남북조의 현학과 불교의 관계임을 깨닫고, 학위논문을 <불학과 현학의 관계연구>라는 제목으로 초기 중국불교와 유 · 도 양가의 사상사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이러한 전환은 바로 탕용동 거사로부터 비롯된 학풍의 영향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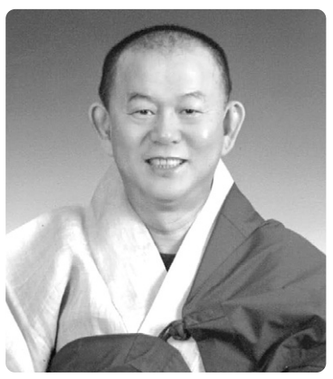
– 거사불교의 연재를 마치며 –

‘중국불교의 거사들’을 표제로 2008년 1월부터 연재한 본 기획연재를 이번 호로 끝을 맺게 됐다. 본 기획은 팽제청 거사의 <거사전>으로부터 시작됐다. 팽 거사의 <거사전>에는 역대의 거사들을 시대별로 상세히 정리하고 있고, 아직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지 않아 역대의 중국거사들을 소개하고자 흔쾌히 연재를 수락하고 시작했었다. 2년 5개월의 기간에 중국불교의 기라성 같은 거사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은 오히려 필자에게 전체적인 중국불교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비록 중국거사들을 소개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재가불자들에게도 자못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필자의 능력의 한계로 뛰어난 거사들의 혜명에 흠집을 내지 않았을까 두려움이 있다. 이후 보다 눈 밝은 이가 나타나 필자의 오류를 교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 불교에도 눈 푸른 거사들이 보다 많이 나타나 불법을 더욱 살아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연재를 허락한 현대불교신문사에 더없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게으른 필자로 인해 매회 싫증을 내지 않고 원고독촉에 충실해준 조동섭 담당기자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종헌 (정흥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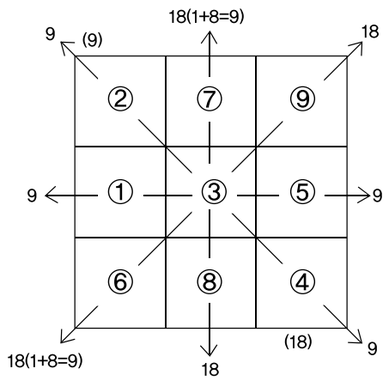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월 · 수 · 금 : 오후 2시 – 5시
토 · 일 : 오후 1시 – 5시
직접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 승려증소지자 특별장학금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방문시 교재판매. 홈페이지 참조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 www.psa.or.kr



구단구궁 원리도

| 학 과 | 기간 / 요일 / 시간 | 강 의 과 목 | 비 고 |
|---|---|---|---|
| 불 교 학 과 | [기간 – 2년]<br>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 유식사상 · 화엄학<br>· 대승기신론 · 답사학 | 대학원과정<br>(학사이상) |
| 불교교리학과 | [기간 – 1년]<br>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br>저녁 7시 – 9시 |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br>·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자경<br>· 천수경 · 금강경 | 포교사<br>법 사 |
| 장례지도학과 | [기간 – 6개월]<br>월요일 : 오전 10시 – 12시<br>저녁 7시 – 9시 |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br>·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br>·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 장례지도사 1,2급<br>불교장례지도사 |
| 다도예절학과 | [기간 – 1년]<br>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br>·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분학 | 다도예절포교사 |
| 불교의식학과 | [기간 – 6개월]<br>목요일 : 오전 14시 – 17시 | · 기초 – 중급 – 고급 – 속성(실전)<br>· 범음, 범패, 작법(바라 나비춤)<br>· 종사이운 종사영만 점안의식<br>시달림 예수제 | |
| 풍 수 학 과 | [기간 – 1년]<br>수요일 : 오전 10시 – 12시<br>저녁 7시 – 9시 |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br>· 패철 · 방위학 · 부동산풍수<br>· 풍수인테리어 · 지리오결 | 풍수지리사 |
| 명 리 학 과 | [기간 – 6개월] 화, 목요일<br>오전 10시 – 12시 / 저녁 7시 – 9시 |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br>·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 명리심리상담사 |
| 이수명리학과 | [기간 – 8주]<br>일요일 : 오후 14시 – 19시 | · 이수명리학 · 명리36금수 · 적천수<br>· 12운수 · 간파명문 · 오자술 | 이수명리학회<br>회원증 |
| 타 로 학 과 | [기간 – 4주]<br>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 메이저아르카나–22장<br>·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 타로카드<br>마스터사(1급) |
| 구단구궁학과 | [기간 – 5일]<br>월,수,금:14시–17시 / 토,일:13시–17시 | · 구단구궁학교재 · 비법교재 | 한국구단구궁학회회원증 |

14년전통 부산불교전법대학 – 구단구궁연구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23번지 ☎(051)467-4665 010-7725-1024

# 요절복통 여래네 집

#11. 소심한 복수

스튜디오 돌










## 이주일의 화두

잠 못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윤회의 밤길은 길고 멀다.
법구경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 시간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



시간이란 무엇인가? 3000년 동안 인류가 풀고 있는 숙제다. 사전에는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또는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정의한다. 길이, 질량과 같이 물리량을 정하는 기본단위라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시간의 실체와 근본을 풀어낸 정답이라고 받아들이기는 미흡하다. <시간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 – 8명의 역사가와 철학자, 과학자가 함께 쓴 책이다.

하루의 기준점은 자정이다. 그러나 자연과 우주가 정한 진리는 아니다. 인간이 서로 약속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서양에서는 당초 낮 12시, 정오가 하루의 기준점이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인 2세기 이후로 정오를 천문학적 기점으로 채택했다. 그러다 1925년부터 국제협정에 따라 자정을 기점으로 채택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자정, 즉 0시다.

그렇다면 선사시대에는 어떻게 시간을 정했을까? 명확한 증거는 없다. 달을 중심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하다. 태음력에서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기를 한 주기로 달력을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달의 주기는 약 28일 반이기 때문에 가끔씩 한 달은 29일이나, 30일이 되기도 한다. 약 5000년 전 이집트문명과 메소포타미아문명이 등장했을 때, 이미 태음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고고학적 발견이 있다.

### 60초 1분인 까닭… 24시간 이집트서

하루는 왜 24시간으로 나눴을까? 또한 시간을 60분으로, 1분을 60초로 나눈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집트의 관습 때문이라고 한다. 매일 밤에 뜨는 별들을 순서대로 12개 또는 36개 그룹으로 묶은 데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이집트인들이 행정년도를 36주일로 생각한 것도 오전에 뜨는 별들의 그룹이 36개였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한 시간을 60분으로 나눈 것은 완전히 다른 제도에서 비롯됐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한 60진법의 유산이다. 3000년 동안 가장 널리 사용한 방식은 하루 24시간이 아니었다.

시간은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조사됐다. 시차 적응 같은 현상 또는 근무형태가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것은 불면증이나 피로, 소화불량 같은 잘 알려진 증상을 유발한다.

<시간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은 역사와 함께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알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시계와 달력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 2002년 <시간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책의 개정판이다.

시간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 | 스튜어디 캐그리디 엮음 | 남경태 옮김 | 휴머니스트 펴냄 | 1만8000원

진정화

# 인간 법정, 그 위대한 '무소유'

## 소설가 정찬주씨 알려지지 않은 법정 스님 청소년기와 출가 사연 등 엮어

"세상은 이제 '스님 법정'을 많이 알게 됐다. 그러나 '인간 법정'을 아는 이는 드물다."

성철 스님의 삶을 다룬 소설 '산은 산 물은 물'로 잘 알려진 정찬주 작가가 법정 스님의 생애를 소설로 엮었다.

"스님을 떠올리면 지금도 옆에 계시는 것처럼 생생하다. 스님께서 불일암에 사실 때의 일이다. 스님은 나에게 '세상에서 살되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무염(無染)이란 법명과 삼귀오계(三歸五戒)를 주면서 계를 받는 공덕에 대해 법문을 했다."

이렇듯 작가는 법정 스님과 개인적 인연이 깊어 재가제자가 됐다. 그 뒤 불일암에 더 자주 내려갔고, 법정 스님은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초등학교 5학년 산수시간에 일본인 흉내를 내는 조선인 담임교사에게 반감을 표시하다가 고무슬리퍼로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던 이야기, 우수영 선창에서 여객선 매표소를 하는 작은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배표를 팔았던 이야기, 원고지를 만질 운명인지 고등학교 때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야기 등 저자는 스님의 저서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소년시절과 학창시절의 얘기를 들려준다.

"오호라! 너는 부처님 가피로 세상에 태어났으니 불법인연이 참으로 크다 아니할 수 없구나. 부디 수행을 잘해 법(法)의 정(頂)수리에 서야 한다. 이제부터 너를 법정(法頂)이라 부르겠다" –본문 '삭발' 중에서

"오랫동안 법정을 시봉했던 길상사 초대주지 청학이 광주에서 올라왔을 때는 그의 손을 쥐고 놓지 않았다. 청학과도 필담을 나눴다. '생사 경계가 어떠하십니까.' '원래부터 없다' 법정은 생사마저 무소유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본문 '불속의 연꽃' 중에서



불일암으로 찾아가 법정 스님을 친견하고 있는 정찬주 작가.

<소설 무소유>에는 법정 스님이 태어나 출가하고, 수행하고, 입적하기까지의 모든 행적이 섬세하면서도 담백한 문체 속에 잔잔하게 담겨있다. 그리고 정찬주는 법정 스님 사유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무소유' 사상의 단초를 스님이 언제, 어떻게 접하게 됐으며 이를 또 어떻게 자신만의 '법'으로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이를 상좌 혹은 속가대중들과 어떻게 나누고 실천했는지를 소설 특유의 설득력과 적확한 묘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소설 무소유 | 정찬주 지음 | 열림원 펴냄 | 328쪽 | 1만5000원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 우리 스스로가 현실 창조의 마법사

## '내 안의 가능성' 과학자 말로 설명

평소 '긍정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저명인들로부터 숱하게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다. '긍정은 나와는 별개'라고. 염세주의자를 자처하던 나에게는 별로 와 닿지 않는 말이었다.

그러다 얼마 살지 않은 인생에서 나름 시련을 겪고 당시 열풍을 일으켰던 <시크릿>이란 책을 접하게 됐다. 종교회의론자였던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신심 깊은 어머니의 말이랑 표현만 다를 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같았기 때문이다. 그 때부터 접한 자기계발서들은 긍정 · 시각화 · 감정해방요법을 비롯해 '마음속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라' 등 실천을 통한 경험을 강조했고, 이는 무수한 긍정 예찬론자를 만들고 인터넷 모임까지 만들어 냈다. 이번에 소개할 책 <블립(Bleep)>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책들보다는 과학적 근거로 접근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에게 소개하면 좋을 듯하다.

<블립>은 'What the bleep do we know'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만든 것이다. 2004년 최초 개봉돼 전 세계 30개국에서 상영된 이 다큐는 양자물리학과 영성, 신경생리학에 관한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왜 같은 생각 · 현실만을 반복하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블립>은 무한한 에너지로 가득한 우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생각과 현실을 반복하는 중독 상태에 빠지는 이유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뇌의 놀라운 능력을 탐구해 간다. 그리고 일상의 현실을 바꾸는 질문을 통해 우리 모두 현실창조의 마법사임을 알려준다.

"우리는 우주가 비어있고 물질은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물질'은 근본적으로 없다. 우주는 전혀 물질적이지 않다. 단단한 공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원자는 원자핵 주위로 전자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다. 원자핵도 단단하지 않다. 전자처럼 계속 소멸과 존재를 반복한다. 이러한 비물질적인 물질들에 대해, 우리가 가장 견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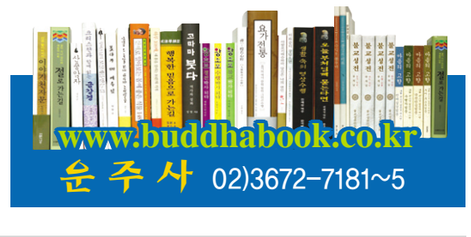
다큐멘터리에서는 스토리 중간에 과학자, 영성가들의 인터뷰 장면을 삽입했다. <블립>은 이를 책으로 정리한 것이라 조금은 산만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부처님이 설한 우주 · 과학적 가르침을 대입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블립(Bleep) | 윌리암 안츠 · 마크 빈센트 · 벳시 체스 공저 | 박인재 옮김 | 지혜의 나무 펴냄 | 1만5000원 이나은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아름다운 마무리 | 법정 | 문학의 숲 |
| 2 | 영혼의 모음 | 법정 | 샘터 |
| 3 | 버리고 떠나기 | 법정 | 샘터 |
| 4 | 일기일회 | 법정 | 문학의 숲 |
| 5 | 인연이야기 | 법정 | 문학의 숲 |
| 6 | 맑고 향기롭게 | 법정 | 조화로운 삶 |
| 7 |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법정 | 조화로운 삶 |
| 8 |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 법정 | 문학의 숲 |
| 9 | 산에는 꽃이 피네 | 법정 | 이레 |
| 10 | 홀로 사는 즐거움 | 법정 | 샘터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스님들의 어머니' 효심 통해 본 불교

불교는 지극한 효행을 갖췄다. 다만 가르침이 다르고 방법이 달랐을 뿐인데, 조선시대 유생들은 근본이 없는 가르침이고 집단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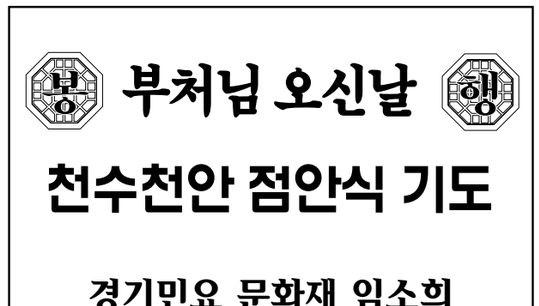
사실 출가자들은 생나무 가지를 찢는 아픔을 부모의 가슴에 안겨준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도 닦는다'는 이유로 효에 대한 일각의 무지가 방치돼 왔다.

<어머니, 스님들의 어머니>는 부처님과 역대조사, 뛰어난 선지식들의 효심과 효행을 찾아 불교의 본래면모와 본래자리를 되찾아 놓으려한 책이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부터 고산 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정무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등 12명의 선지식들의 어머니에 대한 회고록이 담겨져있다.

어머니, 스님들의 어머니 | 법전 스님外 지음 | 도피안사 펴냄 | 1만5000원











전생의 묵은 빚을 해탈하는
금강경을 복장하는 업장소멸
법륜대입니다.

# 상감청자 법륜대(윤장대)



## 법륜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 법당에서 돌리는 동안에
## 현생과 전생업장이 소멸되는
## 윤장대 기구입니다

**법륜대는 권선문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천불 한 분 한 분에 명패를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복장까지 시켜줍니다.**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면 연중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
(카드 가능)



**[경전 복장 실질적인 기능]** 천년 고찰 및 크고 작은 사찰에서 자신과 가족 이름을 법륜대에 복장하여 영구히 모시는 감동으로 불자님의 소망성취를 위한 기구이자 경전에 있는 실질적인 기능 윤장대입니다.

**[손 길 따라 돌려지는 법륜대]**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밖으로는 이름을 달 수 있고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책)을 복장할 수 있어 사찰경제가 걱정없는 천불전이자 년년월월 장등(인등)할 수 있는 다목적 법륜대입니다.



실용신안특허의기술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높 이 : 110cm ■원통폭 : 45cm
■밑받침목 : 30cm ■무 게 : 25kg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최연의 산 이야기 <11> 가야산 3



가야사를 폐하고 금탑 자리에 이장한 남연군 묘. 멀리 가야산의 주능선이 명당을 아늑하게 감싸고 있다.

# 절을 폐하고 쓴 명당이 나라 망하게 하였구나

가야산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연군의 묘이다. 남연군은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이며 고종의 할아버지이다. 남연군의 묘는 가야산 산줄기가 동쪽으로 향하여 예산평야를 부려 놓게 되는데 그 동쪽 자락에 있다.

안동 김씨가 조선의 국권을 쥐고 흔들 때 왕족 중에 쓸 만한 인물이 보이면 그대로 두지 않고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던 살벌한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흥선군은 살아남기 위해 파락호 행세를 하며 전국을 유람하고 다니며 후일을 기약했다.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왕기가 서린 명당으로 이장하고자 당대의 유명한 풍수가와도 어울렸다. 그때 당대의 유명한 풍수가 정만인을 만났다.

남연군 묘의 이장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황현의 <매천야록>과 예산의 향토사학자 박흥식의 <예산의 얼>에 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흥선군이 정만인에게 당대에 발복할 제왕지지(帝王之地)를 물으니, 가야산 동쪽자락에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오는 자리(二代天子之地)가 있고, 광천 오서산에는 만대에 영화를 누리는 자리(萬代榮華之地)가 있다고 하자 바로 가야산을 택했다고 한다.

남연군 묘의 형국은 명당의 조건을 모두 갖춘 복호형(伏虎形)이면서 상제봉조형(上帝奉朝形)에 해당한다. 가야산 서편에 있는 석문봉이 주산이 되고 왼쪽으로 옥양봉, 만경봉이 덕산을 거쳐 청룡세를 이룬다. 오른쪽으로는 가사봉, 가엽봉, 원효봉으로 이어져 금청산 월봉에 뭉쳐 백호세를 이루며 감싼 자리에 남연군 묘가 위치한다.

그런데 천하 명당에도 흠결이 있었다. 상제형의 명당에 청룡과 백호가 매우 높고 웅장하여 위에서 묘를 위압하는 형국이다.

청룡, 백호가 혈장(穴場; 묘자리)을 누르면 아들이 아버지를, 손님이 주인을, 신하가 임금을 압박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고종은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그의 아들 순종 대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그리고 복호형의 명당에는 호랑이 발에 해당하는 산봉우리가 발가락에 해당하는 바위를 드러낸 채 서 있다. 호랑이가 발가락을 치켜든 형상인데, 호랑이는 다른 짐승을 공격할 때 발가락을 치켜 올린다. 그래서인지 고종이 즉위한 이후 천주교도와 엄청나게 많은 동학교도가 다른 나라 군대가 아닌 자기나라 군대에 의해 무참히 죽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락호 대원군의 욕망은 왕권을 잡는 것이었기에 결정적인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강행하기로 하고 가야산을 찾았다. 그런데 그 명당자리에 가야사라는 절이 들어서 있고 혈처에는 금탑이 우뚝 서 있었다.

흥선군은 그 자리에 묘를 쓰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하나하나 차례로 일을 벌려나갔다. 먼저 경기도 연천에 있던 남연군 묘를 금탑 뒤의 산기슭에 임시로 옮겨 놓았다. 연천에서 가야산까지 오백여리 길의 이장(移葬)은 종실의 무덤을 옮기는 일이라 상여가 지나가는 지방의 백성들을 동원하였다. 상여는 맨 마지막으로 운구를 한 '남은들' 사람들에게 기증되어 가야산에서 덕숭산으로 이어지는 고개자락에 상여도가를 짓고 그 속에 보관하고 있다.

명당 근처에 임시로 가묘를 마련했으니 이제 남은 일은 가야사 절을 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첫째는 흥선군이 재산을 처분한 2만 냥의 반을 가야사 주지에게 주고 승려들을 쫓아내게 하고 불을 질렀다는 설과, 둘째는 충청감사에게 중국의 명품 단계벼루를 주고 가야사 승려들을 쫓아내게 하고 불을 질렀다는 설이다. 절에 불을 지르고 승려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충청감사와 가야사 주지 모두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야사를 폐한 후 금탑을 깨부수고 그 자리에 남연군 묘를 썼는데, 도굴을 우려하여 석수들을 동원하여 바위를 십 척 이상 파고 관을 안치한 후 석회를 삼백 포나 쏟아 부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요즘의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후일 독일인 상인 오페르트가 도굴을 하려했으나 돌병풍처럼 둘러쳐진 강회를 뚫어내지 못하고 되돌아가고 말았다. 통상 요구를 두 번이나 거절당한 오페르트는 미국인 자본가 젠킨스의 도움으로 프랑스 선교사 페롱을 앞세워 상하이에서 '차이나호'를 타고 아산만으로 들어와 삽교천을 따라 덕산 구만포에 내렸다. 천주교도 김여강(金汝江) 등 8명의 안내를 받아 남연군 묘에 이르러 도굴을 시도했던 것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 고개 숙인 꽃

어디에 있었을까? 막 피어나다 눈을 맞은 뒤 우뚝 멈춘 채 있는 금낭화 꽃망울 사이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다닌다. 며칠 전 꽃망울 위로 내리던 눈송이를 꼭 닮았다. 설마, 눈인 줄 알고 몸을 다시 움츠리진 않겠지….

어제 오늘, 봄날의 햇살은 말 그대로 환해서 드러나지 않던 모든 것들이 '확' 눈에 띈다. 나뭇등걸이나 뿌리나 바위 속의 비밀도 보이는 것 같다. 일시에 만물의 몸 속 깊이 간직했던 사연들이 적나라하게 풀어헤쳐져 눈앞에 펼쳐졌다. 푸른 잎이나 하얗고 노랗고 붉은 꽃이 어떻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다.

발길이 뜸했던 숲속 길로 걸음을 옮겼다. 겨울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걷던 길이었으나 요즘은 한 달 넘게 가지 않았다. 4월 초에 심던 감자를 말경에 심었으니 뭔가 바쁘긴 바빴는데 무엇 때문에 바빴는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5월로 접어들었건만 숲은 봄이기보다는 겨울에 가까운 모습이다. 쌓인 낙엽들을 밟으며 가는 길은 언제 걸어도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에 젖게 한다. 낙엽들은 내 발에 밟힐 때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 한다. 푸르던 시절에 대한 미련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다. 가지에 돋아날 또 다른 잎을 위한 찬양의 소리도 아니다. 낙엽도 지금의 자신에게 다가온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너도 기어이 무너졌구나!'

계곡에 다다라 건너편 숲가에 자리한 폐가를 바라보니 한쪽이 주저앉았다. 사람이 떠난 지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도 틀만은 번듯하게 유지하고 있던 집이었다. 지붕이 무너지면서 천장과 벽도 무너졌으니 집의 운명이 다할 날도 멀지는 않았다.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자취도 그때쯤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산에 살다 산이 된 여인들
나는 왜 당신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걸음을
멈추게 되는가?

집 옆의 무덤도 푸른 일렁임이 가득했던 예년에 비하니 한가해 보인다. 취나물을 뜯던 가장자리도 아직은 푸르름이 깔리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반가운 꽃들이 눈에 띈다.

무덤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인 할머니의 모습으로 피어난 꽃. 은근한 붉은 빛으로 본다면 수줍은 처녀인 것도 같지만, 가만히 볼수록 할머니를 닮은 꽃이다. 허연 머리카락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에서 떠올려진 인상이라고 얘기하곤 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다.

걸음을 멈추었다. 뭔가 섬뜩한 모습이 할미꽃에 어리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는 있지만 땅을 향해 입을 벌린 꽃은 웃는 모습이기보다는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등줄기가 서늘하다. 햇살은 환하고 따뜻한데 이 서늘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

불현듯 집과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숲을 둘러보았다. 건너온 계곡 가에 버티고선 소나무가 내 시선을 잡는다. 여인이 목을 매 죽었다는 나무. 붉은 빛을 은은히 뿜어내면서 당당한 자태로 하늘을 떠받치며 자라고 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집을 향해 길게 뻗은 소나무 가지에 매달려 죽어 있었다는 여인. 할미꽃은 보고 또 보아도 죽은 여인의 모습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사람. 진정 살고 싶어 죽은 사람.

'줄을 목에 걸 때, 그녀는 편안했을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무덤가의 할미꽃은 더 늘었다. 봉분 위에까지 자리를 잡고 피었다. 할미꽃이 되는 이들이 많은 세상이다.

집의 남겨진 부분마저 무너지고, 집터와 딸린 밭이 숲이 된다면, 이 무덤 주위도 나무로 뒤덮여 숲이 된다면, 할미꽃은 사라질까? 무덤도 숲이 된다면.

돌아오며 생각하니 산의 무덤들엔 할미꽃이 많다. 고개 숙인 꽃. 왜 하늘을 보지 않냐고 물어볼 수 없는 꽃. 산에 살다 산이 된 여인들. 그런데 나는 왜 당신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걸음을 멈추게 되는가?

■ 유승도 (시인)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수공예양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 학 · 빙의 · 퇴마**
스님이 쓰는 역학과 최면 영가와 명리를 실전위주로 확실한 비법을 개인 지도함.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역학 : 귀신 빼는 명리(우주물상을 연상법으로 사주, 궁합, 택일,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귀신든 병
스님 : 염불, 사물, 사찰 운영법 지도
부산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역학 동영상 CD 판매**
역학! 집에서 혼자 학습 할 수 있습니다
www.saju.or.kr
010-4800-2378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음범패**
실전위주 교육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나비무, 각종불공
천도전문도량
학인모집, 신행상담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범음대학)

**어성초의 신비한 자연치유력**
1.어성초 외길,국내산 최상급 어성초
2.어성초 제조에 관한 특허 3개보유
3.80%이상의 재구매율, 놀라운 효능
- 제품명: 어성초 진액 100
- 가 격 : 1개월분 1박스(100ml*60) 65,000 2개월분 120,000

2 박스이상 구매시 고농축 어성초비누(12,000원) 증정
www.happylife365.co.kr
국민은행 104301-04-320627 노현석
상담전화 : 1544-2871

**혜봉스님 비법전수**
- 빙의퇴치법, 무병장수, 죽비 타골법.
- 전수비 99만원
- 전수기간 9일

한국심령과학연구회
(www.jijang999.com)
011-9585-4908

**범음 범패 교육도량**
실전위주
학인모집
사찰 각종 행사 전문
효타암 (부산, 경남)
010-6569-1010

이 좋은 계절에 인연이 되는 기도처를 찾습니다.
(50대 비구)
010-8677-1277

비구 부전스님 구함
▷45세 미만, 마산
016-428-6665

**정다원 결혼정보**
초혼 재혼 전문
남여 대기자 각 500명
방배동 10년 경력
전화요청시 사주역학 무료로 알려드림.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919-12 관음빌딩 302호 (이수역 5번)
02)588-6118
010-2914-6118

**부천 도심속 포교당**
60대 비구니 원주스님,
60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6216-4133

도심 속 포교당에서 기도하고 법당 관리 하실 50대 전후 비구니 스님 찾습니다.
010-6786-5830

불심있는 불자 어린이집 원장님(女)을 모십니다
010-6433-624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영덕 일도사
010-4645-9956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강원도 대덕사
010-9219-7695

**지리산 약사기도도량 약천사 같이 더불어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40대) 모십니다.**
061)781-6328
017-621-6328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불사를 같이 하실 스님으로 회향을 하실 때까지 가족으로 지내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거제
010-7593-2355

**사 임 공 고**
대한불교미타종 독성암 주지 임은주
위 본인은 지식과 덕망이 부족하여 대한불교미타종 중앙 종회의장직 사임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4(2010)년 5월
임은주
대한불교미타종 총무원 귀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국청사
031)743-6801

조용한 산사에서 비구, 비구니 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0-9421-0730

조용한 암자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742-2057
011-9840-857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원군
043)297-8728

경기 이천 장호원 수양이나 공부하실 분 모십니다.
각방에 화장실 겸 욕실 되어 있습니다.
실내 깨끗합니다.
문의 : 만봉정사 사무장
017-549-8115

-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긴급(55세 이하) 1명 (경남 거제)

011-801-9828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작은 종단이며 현재의 종단을 좀더 활성화 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도첩, 법계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총무원 051)204-8494
011-885-8989

**꿈바위불교교육원**
능엄신주. 경전독송 영가천도
전국 기도 회향 대법회
(6월 30일 ,부산국제신문사 대강당)
참가신청바람
꿈바위 후원자를 모십니다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한옥 사찰건축 전문**
- 완벽한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 및 사찰불사 자문일체 (토목, 건축공사 일체)
- 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안목
- 건축 전(全)공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찰불사(佛事)로서는 귀중한 돈만 낭비되고 결코, "절 다운 절이 되지 못하며 그러한 사찰은 도량의 기운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껏 보고 지적해왔습니다

고건축 전문 기능인 그룹 (人安)
031)581-2120 / 061-741-1624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모집**
백고좌 대법회 봉행도량에서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을 함께 모십니다.
- 누구나 수행하는 열린도량!
- 개성존중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서 수행공부와 수계이후의 모든 지원
- 성 별 : 남자 (행자)
- 학 력 : 고졸이상
- 비구, 비구니 : 각각 1명(기도&법사)
- 숙식가능 공양주 및 종무원모집 : 2명

-법왕불교대학수시모집 : 경전(법화경),기초교리
※매년 1회이상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하며 법납 30년 이상 비구, 비구니 법사스님의 추천을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장1길 2-9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www.bubwangsa.or.kr 053)766-3742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세요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뉴욕,감포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심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행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명상치유 (건강관리)**
지구 테스트를 통해 불자님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무료)

-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과일, 차를 알고 먹을 수 있습니다.
- 생명수, 기(氣) 두 가지중 한가지만 본인에게 드립니다.
-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氣)를 넣어 드립니다.




음식+생명수+기(氣)=건강증진을 키워 드립니다.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분, 수술전이나 후 허약하신분, 치매, 암, 당뇨,고혈압, 아토피, 뇌졸증, 심장병(부인합병), 우울증, 천식, 위장장애, 모든 요법으로 고치지 못한 분이나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허약한 사람은 건강하게 -
음식, 생명수, 기(氣)로 그날 변화를 직접 본인이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 스님,불자님 지구에 계시는 모든분 꼭 한번 찾아오세요
(예약은 7일 전에 해주세요)

약사(氣)선원
원장 김광호 합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572-4
■ 053) 568-7373 / 010-5672-7373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공 념 학 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총무원장 혜 봉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비구, 비구니, 법사, 포교사님을 모십니다. 좋은 인연 되시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본종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사진 4장, 법당 내외사진 각1장, 주민등록 앞 뒤 복사본. (무속인 입종은 사양합니다)
■ 입종하시는 즉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 지역별 종무원장 또는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7평
- 요사 : 30평외 1동
- 부지 : 260평
- 가액 : 7억

- 위치 : 마산외곽도시
- 법당 : 24(목조)
- 요사 : 120평
- 부지 : 2,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경북
- 법당 : 35평외 2동
- 요사 : 117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13억 (급양도)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5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8억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4,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5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 사찰 및 토굴안내

### 무릉도원 토굴 터

- 대지 평수 : 1만 3천평
- 관리지역 1천평(명지).임야 1만 2천평
- 계곡 및 경관 아주 수려
- 좌우 청룡백호, 앞 안대, 전망 최고
- 가액 : 1억 6천

### 낙동강 전망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1,500평
- 법당 25평(전통와가 5포 7포)
  요사채 80평(방10칸), 대종각
- 부산근교 신도시,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주차장 300평, 텃밭 400평
- 총금액 : 13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소재
- 부지 : 1500평
- 법당 : 40평 (목조, 단청, 3포7포)
- 요사 : 70평
- 기타 : 석불, 연못 등
- 가액 : 7억원
- 특징 : 대작불사된 기도도량임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
- 요사 : 2동 90평
- 기타 : 산신각 등
- 가액 : 6억원
- 특징 : 도심의 포교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 임야 사찰 터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8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 평수 : 463평
- 임법당, 교통편리
- 포교와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1억
- 통화가능시간 : 정오 12시~ 오후 18시까지

010-5226-1537

##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 40평
- 요사채(1,2층) :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3억 7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 답 1470평 중 대지 288평
- 건평 45평 ● 호두나무 54그루 중 34그루 수확중
- 사계절 물이 흐르고 있으며,
- 생수가 있음 ,직지사 근처
- 가액: 2억

010-4015-4627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 대지: 300평
- 건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15평)
- 가액: 7억 8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18-4901

## 사 찰 안 내

- 위치: 지리산 견불, 와불 관터
- 대지 300평, 700고지
- 요사채 양옥, 1층 35평
  2층 법당 15평
- 천리행용 백리안계 해동제일 기도도량 최적지
- 가액 : 1억 5천만원

011-335-6389

##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 대지: 350㎡ , 건평: 60평
- 구조: 법당 1, 거실 1, 방 3, 공양간 1, 창고 1
- 주변여건: 앞에는 큰 저수지가 바라보이고 뒤에는 낮은산 위치하고 있는 아담한 수행도량
- 가액: 8천 8백만원

010-4504-1246

##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덕 창수
- 대지 : 330평
  농사가능 (농기계 완비)
- 방 5개, 큰 법당 1, 문수전, 산신각 1, 지장보살입상(3m)
- 가액: 상담 후 결정

054)733-3858
010-9377-2356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약 54평, 건평 약 28평
- 법당, 요사(방 2)
- 주방, 욕실, 심야보일러
- 가액: 8천 2백만원
  (시설비포함)

010-7325-1259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양천구
- 평수 70평
- 법당, 요사채3칸,
- 욕실 주방, 온수보일러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경비 5천만원
- 스님 공찰 관계로 급 양도

017-586-5699

## 포교원안내

- 위치: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 평수 70평(4층 건물중 3층)
- 법당: 20평, 방4개, 창고1개, 공양간 및 화장실 2개(남,여) 아미타불, 관음, 대세지, 지장보살, 신중단, 산신
- 보증금 1,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5800-3210

##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시부평구부개1동 대로변2층
- 실평수 35평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490만원

011-729-6011
032)614- 6011

## 사찰(급)안내

- 위치 : 3호선 전철역 역세권
- 대지 100평, 건평 60평
- 한옥 포교당 운영하실분
- 종교용지, 주차 얼마든지 가능
- 사찰 건립터
- 가액 : 상담 후 결정

070-8834-6136
010-9284-6136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 종교부지 200평
- 임야 200평, 전체 400평
- 가액: 9천만원

054)336-9775
010-2407-5899
010-9396-0739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 성당시장 부근
- 법당, 방2, 약 35평
- 삼존불, 기타 집기 일체
- 가액: 1천 2백만원
  (집세포함)

010-8621-7202

##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상운면
- 대지 200평(전 3천평)
- 법당 30평(삼존불)
- 좋은 약수샘 있음
- 가액: 1억

054)672-8231
010-9004-7272

## 토 굴 안 내

- 위치: 지리산 실상사 인근 오염없는 국립공원 인접
- 일자봉. 토체안대 (견성골)
- 포장완료
- 대지 약 150평, 건물 20평
- 가액: 1억(절충가능)

011-448-0702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목조) : 약 20평, 산신각,요사채,2동중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9천만원

011-816-9104
011-815-9104

##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동리
- 임금산 아래 토굴터 암자자리
- 평수 : 600평
- 금액 : 답사 후 결정

055)572-7722
010-3256-0408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감만동
- 4층 상가건물
- 4층 요사, 3층 법당
- 동불 삼불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주인인정)

051)638-1134

##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중심
- 전통한옥 40평
- 지하철 3분, 대중교통 편리
- 방3, 화장실2, 공양간, 창고1
- 삼존불, 신중, 산신, 조상단 모셔져 있음
- 전세 2,500만원, 월세 가능

010-8484-3917

## 사찰 별장 안내

- 위치 : 충남 마곡사 근처
- 대지: 298평, 밭 50평, 구교지 150평
- 건물: 집, 팔각정
- 별장, 사찰용도로 적합, 현재는 가정집
- 동화속에 나오는 그림 같은 집 (잡지에도 실림)
- 가액: 2억 6천만원

010-9935-8108
010-3045-3245

## 사찰 터 안내

- 위치: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370번지 외 4필지
- 평수 : 총 3,352 (1,005평)
- 토지정리 완료. 청암면 소재지 가기전 10리 산속
- 산세가 수려하고 청정지역으로 작은 계곡이 접하고 있는 정남향
- 가액: 평당 10만원

055)882-6760
011-9512-6763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742-8458

## 포교원안내

- 위치 : 전남 목포 삼정동 아파트 1,200세대 입주 예정지
- 총 43평
- 4층 건물에 3층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 시설완벽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 즉시법회 가능

010-3535-2469

##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8천 5백만원

055)632-3840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 진천
- 평수 : 30평
- 방3, 법당
- 보증금 300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상담

043)532-3271
010-3240-3272

##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시 상가밀집지역 5층건물 중 2층 (옥상, 텃밭 30평 사용)
- 평수 50평(법당 20평, 단청, 탱화 A급)
- 삼존불, 원불 60불, 인등 500 주지실, 공양간, 해우소,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 모든시설 A급. 현 법회중
- 소임관계로 급 양도

010-8954-8033

##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평당 18,000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 경관 수려
- 대지 320평, 200평
- 2층 법당( 급 단청 되었음) , 1층 요사채 60평
- 삼성각(조립식) 20평
- 마당에 선미륵 2분, 선방 25평
- 밭 450평, 요사채 27.5평
- 가액 : 5억 5천만원( 절충가능) , 교환가능

010-6436-9888

## 사 찰 안 내

참선기도도량

- 위치: 전남 담양군 수북면 오정1구 광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250평, 텃밭 30평
- 기와집 30평, 황토집 20평, 차고와 벽돌 2층 25평
- 가액: 2억 5천만원

061)535-1090
010-2523-1090

## 전망좋은 전원주택

- 위치: 양평 청운면
- 아름다운 산속,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곳
- 대지 198평 건물(조립식) 29.8평 외 1필지 38평 (무료증정)
- 가액: 3억 7천만원(가격절충)

010-3088-3133

##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대연동 (최요지) 전철 3분거리, 시장 2분거리
- 부지 130평, 건평 150평
- 1,2,3층 ● 주차 6~7대 가능
- 1층 50평, 大방1, 큰거실1 ● 2층 대웅전, 방1
-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 다실별도1
- 2, 3층 베란다 사용가능
- 가액: 11억

017-572-3714
011-419-3714
051)556-9530 (야간)

##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재래시장 부근
- 4층 건물 중 3층 약 50평
- 삼존불, 신중,지장,산신불 , 각단탱화 일체
- 상담실 및 거실, 방2,
- 보증금 300만원, 월38만원
- 법당 및 모든 비품, 집기 일체, 시설비1,8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55)335-0314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부지 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 의령 자굴산 토종오가피 및 사찰터 안내

- 위치 : 충남 의령군 부림면 막곡리 181-3
- 농장 인수 하실분, 건물 100평
- 공장 특허, 늘푸른 식품
- 산 좋고 경치 좋은 곳, 공장 1동 집포함
- 시설완벽, 교환가능
- 가액: 11억 7천만원

010-8791-5655



##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⑱ 목 디스크

#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될까?

목은 7개의 뼈가 C자형의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추간판(椎間板, a disk)은 목의 무게를 균형 있게 분산시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합니다.

목 디스크(경추 수핵 탈출증)란 추간판이 손상돼 내부 수핵이 빠져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목 디스크는 목 구조가 일자로 변형되어 머리의 하중이 목에 집중되면서 퇴행성 변화 및 외상이 생깁니다.

목 디스크는 노인들이 앓는 퇴행성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20~30대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좌식 생활과 높은 베개 사용 등으로 잘못된 자세가 지속됐을 때 나타납니다.

목 디스크의 원인은 목 주변 근육이 약화로 목뼈가 변형되는 경우와, 교통사고와 같은 순간적인 충격이 목뼈에 가해지면서 유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 디스크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환자 대부분이 수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비수술적 요법이 다양하게 개발 · 실행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고비용으로 부담이 됐던 목 디스크 수술 · MRI 촬영은 최근 가격이 저렴해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 수술 비율이 많아지다 보니 건강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이제는 목 디스크 수술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웃지 못할 말도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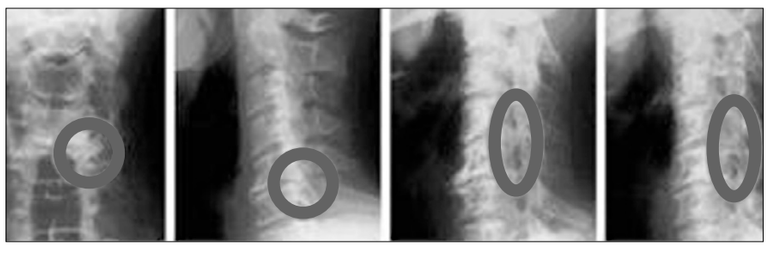
필자를 찾아오는 분들은 '디스크가 과연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최근 한의원과 병의원들은 추나(비뚤어진 뼈를 밀고 당겨서 바르게 함) · 카이로프랙틱(척추 지압) 요법 등으로 한 번에 교정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법은 순간적인 시원함을 주지만 제자리로 돌려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발되기 십상입니다. 오히려 일시적인 요법으로 해당 부위의 근육과 인대는 만성화 돼 염증증상과 관절변형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단순한 목뼈의 구조적 변형과 통증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골반의 비틀림, 자세의 불균형, 턱 관절 불균형, 두개골의 불균형 증상 등으로 고생 합니다.

목 디스크 치료법은 과도하게 긴장된 인대와 근육을 풀어 근본적인 회복을 돕는 자연적인 요법이 있습니다.

체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맞춤 체형 교정운동을 스스로 꾸준히 따라 한다면 최적의 치료법이 될 것입니다.

한 남학생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게임 중 목에 통증이 심해져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목 디스크였습니다. 학생은 다른 곳에서 물리치료 등을 계속 받았지만 차도가 없자 필자를 찾아 왔습니다.



목 수핵 탈출(목 디스크) X-ray 사진.

검사결과 만곡증(등뼈가 굽는 증세)과 일자목 증상으로 인한 경추 불균형 증상이었습니다. 학생의 경추는 비틀림도 있었지만 마디마디가 심각하게 돌출돼 있었습니다.

필자는 학생의 경추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굽은 등, 비틀린 척추를 바로잡기 위한 근육관리와 맞춤 체형교정을 처방했습니다.

목 디스크를 예방하려면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목의 자세를 바르게하고 베게는 너무 높지 않게 합니다.

특히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모니터를 눈 높이와 맞춰 목을 거북이 목처럼 되지 않게 합니다. 평소에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한시간에 한번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목 뒷부분 및 어깨 근육을 풀어주어 만성통증을 예방합니다.

바른 자세는 자신의 몸을 지켜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부모님들이 솔선수범해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자녀에게 지도해야 합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❻ 머리에 좋은 약

# 머리는 비워야만 채울 수 있다

머리가 좋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머리가 좋아지는 으뜸가는 방법은 머리의 활성을 저하시키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요인들을 제거해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그 요인들을 다스려야 한다.

격심한 스트레스에 처한 사람, 체력과 지구력이 떨어지는 사람, 무언가 맺힌 사연이 있는 사람, 신체적 질병을 가진 사람 등등 사람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머리를 좋게 한다는 역대 한방의 처방들을 보면 몇 가지로 나뉜다. 청심연자탕(淸心蓮子湯), 청뇌탕(淸腦湯), 귀비탕(歸脾湯) 등은 울화를 해소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인삼양영탕(人蔘養榮湯) 등은 허약한 체력을 키우고 지구력을 향상시킨다. 익기총명탕(益氣聰明湯), 주자독서환(朱子讀書丸), 장원환(壯元丸) 등은 두뇌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처방이다. 공진단(拱辰丹), 육공단 등은 화를 내리고 원기를 돋아주어 저항력과 면역능력을 강화시킨다. 체질과 증상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처방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다. 약을 쓸 때는 자신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

뇌 혈액순환을 활성화 시키는 단방약재들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오미자(五味子)는 대뇌 피질의 조절작용을 높여 지혜의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오미자에는 면역증강 효과도 있어서 쉽게 피로하거나 감염성 질환이 유행할 때 병에 걸리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한다. 오미자의 수렴작용은 기침 · 천식에도 좋고 혈당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다. 신경쇠약 · 불면 · 두통 · 가슴 두근거림 · 어지러움 등 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한 학습 집단에서 오미자차를 음료수로 복용한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학습력 · 집중력이 훨씬 더 높았다는 실험결과도 있다.

석창포(石菖蒲)는 건망증과 기억력 감퇴의 처방에 반드시 들어가는 약이다. 창포는 위를 튼튼하게 하는 약으로도 쓰이지만 정신을 맑게 해 기분을 안정시키고 두뇌 활동을 좋게 하는 약으로 더 많이 쓰인다. 수험생의 경우 과도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소화기능도 저하되기 마련이므로 창포를 차로 복용한다면 위장과 두뇌 모두에 좋다. 안신정지환(安神定智丸)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뜻을 굳건히 한다는 뜻의 처방인데 창포와 원지 그리고 복령이 함께 쓰인다.

그 외에도 뜻을 오래도록 간직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유래된 원지(遠志), 불면을 동반하는 건망증에 효과가 있는 산조인(酸棗仁), 정월에 부스럼을 막는 풍습으로 쓰이는 호도, 각성작용과 강심작용을 가진 사향, 그밖에도 참깨, 연꽃 씨, 침향, 대추 등도 기억력 향상에 많이 쓰이는 약재들이다.

호두는 중국에서 머리가 좋아진다 해 정월에 아이들에게 먹이는 풍습이 있다. 특히 신경쇠약 불면 건망 편두통 불안에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

사향이 들어간 공진단은 세월을 품에 안는다는 약이름 그대로 선천의 원기를 보하면서 수(水)를 오르게 하면서 화(火)를 내려 언제나 맑은 머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약이다.

두뇌에는 이러한 약들과 더불어 낮잠을 적극 권한다. 집중력을 강화하자면 두뇌를 충분히 쉬어 주어야 한다. 가득 찬 컵에 물을 계속 붓는다고 물이 더 담겨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머리는 때때로 충분히 비워줘야 한다. 점심식사 후 또는 피로가 몰려올 때 편안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순간수면을 취하는 방법이다.

낮잠을 잘 수 없는 형편이라면 온 몸에 힘을 빼고 5분 이상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채, 혹은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 채 두 눈만 감고 있어도 된다. 전신을 이완시키고 눈만 감고 있어도 몸과 머리는 수면 때와 같은 효과를 얻는다. 비워야만 채울 수 있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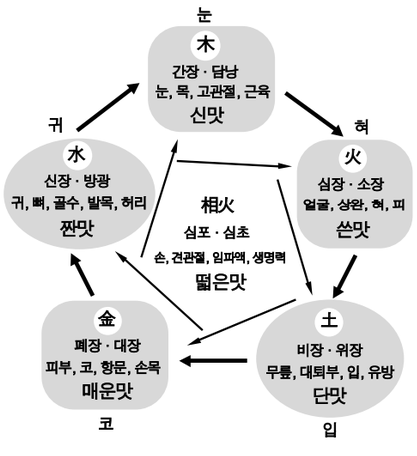
# 어느 정도 병과의 왕래가 있어야

음양오행 중 넷째 금(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금은 쇠의 성질을 말하며 장기로는 폐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은 서쪽 · 가을 · 흰색 · 매운맛에 해당됩니다. 폐는 대장과 표리관계(같은 기운(氣運)이 되는 장(臟)과 부(腑)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폐가 이상이 있을 때 대장을 함께 치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입니다. 폐는 비장과 상생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비장의 기능이 활발해지면 폐의 기능도 따라서 강화 됩니다.

폐에 병이 생기면 코에 영향을 미쳐 냄새를 잘 맡지 못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폐주피모(肺主皮毛)라고 해서 폐가 피부를 주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색이 창백해지고 입가에 기미가 끼는 것은 폐에 열이 있어 피부의 진액이 말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폐에 좋은 음식은 감자, 율무, 마늘, 양파, 도라지, 배 등 흰색 종류의 음식입니다. 흰색 음식은 항알레르기 기능과 항염증 기능이 뛰어나 환절기 감기를 예방하고, 호흡기가 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차가운 성질을 지닌 맥문동(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은 폐를 깨끗하게 만들며 피부를 윤기 있게 가꿔줍니다. 폐의 성약이라고도 불리는 살구씨는 기침을 멈추고 숨찬 것을 낮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은행은 폐의 탁한 기운을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밀감류는 흉부의 열을 내려줍니다.




음양오행의 상극관계도.

다섯째는 수(水)입니다. 수는 물의 기운으로 장기로는 신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수는 북쪽 · 겨울 · 검은색 · 짠맛에 해당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은 콩팥 뿐만 아니라 방광 같은 배설기관과 자궁 같은 생식기 계통을 포함시킵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 한기가 오고 식은땀을 자주 흘리는데 이는 신장에 양기가 부족해서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허리 통증 · 배뇨 곤란 · 부종 등 증상이 생깁니다. 신장은 뼈와 관계가 있어 신장기능이 나쁘면 뼈도 빠르게 퇴화합니다. 신장은 모발을 주관하는데 신장 기운이 약해지면 탈모가 진행되거나 흰머리가 많이 납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은 검은색을 띤 종류가 좋습니다. 검은콩, 검은깨 등과 같은 음식이 대표적 입니다. 두충차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신장에 도움을 주지만 잘못 복용할 시 시력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박씨와 옥수수수염은 이뇨작용이 뛰어나 신장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이밖에도 신장에 좋은 음식은 팥, 새우, 굴, 해삼, 가물치, 장어, 잉어 등 입니다.

신장을 마지막으로 음식의 음양오행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삶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흔히 "좋은 약만 평생 먹어온 사람은 정작 죽을 때 괴로워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어느 정도 병과의 왕래가 있어야 그 면역력과 저항력이 생깁니다. 진정한 건강은 절제된 생활과 더불어 살아갈 때 참다운 삶에 가까워집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자 격**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유기간**
전문반 1년 / 속성반 6개월

**과 목**
범 패 : 거불, 복청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작법
작법무 :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다라니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까지 (4시간)

**강 사 진**
영남범음범패(무형문화재 제9호) 이수자
● 교육원장 : 우암 스님
● 승무단장 : 성애 법사

**교육장소**
해동성취사 -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317-4

**문 의**
☎051)727-0859. 0809 / 010-3004-0859

## 황토토굴 깨완수 템플스테이

◆ 자유명상, 기도정진, 선수련회
◆ 스트레스 · 짜증 · 우울증
◆ 아토피 어린이 수련실

## 금강경 (한글본) 기도

◆ 수지 · 독송 · 해설 · 사경
◆ 금강경 신앙 인례 · 도우미
◆ 독송본 · 사경집 보급
◆ 금강경 독송 철야정진

**청정한 산림과 순박한 자연의 땅에서 템플스테이 수련과 금강경 기도.**
**장기수련 가능. 평생공부, 언제나 열려있는 절,**

어디에나 통섭이 되는 절 **왕금산 현불사**



기도성취 제일도량
세계 최대 백옥비로자나불 **왕금산 현불사**

■ 홈페이지 : '현불사' 입력 → 왕금산현불사 검색
■ 강릉양양 : 033)671-0776 ■ 핸드폰 : 010-8317-2520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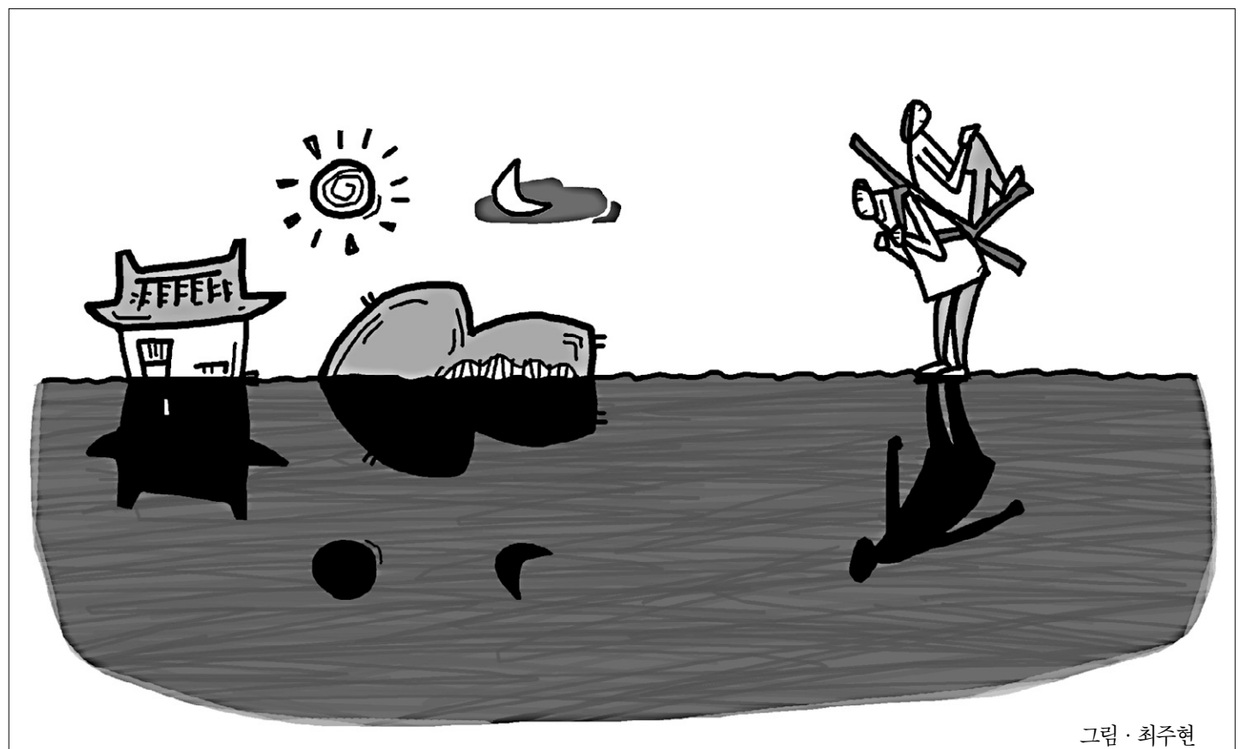
# 이 한 생에 알고 넘어가려면 오직 주인공에 놓고 가야

우리가 항상 이 마음공부를 하고 가고, 또 이끌어 간다고는 하지만 근본의 모든 것을 몰라서 잘 행하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하루하루 죽음으로 다가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상당히 급한 겁니다. 이렇게 급하고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참, 때로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땅을 한없이 내려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공부를 하고 가거나 안 하고 가거나,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우리 마음들이 모두…. 이 중세계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데가 아니죠. 얼마나 바퀴에 찢기고 얼마나 아픔을 당하면서 마찰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까? 피가 안 난다 해서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지상에서 이끌어 가고 또 지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생과 사의 그 과정을 볼 때에 참혹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이 모두를 생각해 볼 때 마음공부는 필연적으로 꼭 해야만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0년 만에 한 번씩 초파일이 닥치면 초칠일이 되는 날에 관찰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서 관찰을 하느냐? 이 지구에도 법망이 있고, 북극에도 법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한테도 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망을 좇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찰은 '사왕천'에서 하죠. '사왕천'이라는 거는 '사'는 빼놓고, 즉 말하자면 숫자가 없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사왕천'하면 동서가 되죠. 사왕천을 한데 합치면 '원식'이 되는데 이 '원식'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왕천이 관찰을 한다' 이러는 것은 바로 원식천에서 관찰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찰을 해서 어디로 통하느냐. 즉 말하자면, 이 지구의 법망을 좇아서 북극으로 이 법이 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극으로 통해서, 예를 들어 즉시 북두칠성으로 가면 은하계로 돌아서 우주까지 이게 통한다는 거죠. 얼른 말하자면 그렇게 된단 얘깁니다. 그러면 이 관찰을 이렇게 하면 그것은 누가 다루느냐? 지금 현재에 법관이 있죠? 우리 현실에서도 판사가 법으로 판단을 하듯이 그렇게 33천에 계신 부처님께서 검증을 합니다. 33천의 보살들이 검증을 해서 추천을 해 올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가! 30년 만에 한 번씩 있는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추천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지수화풍의 몸을 받아 가지고 항상 끌려 다니며 살면서 아픔을 당해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나 이때야말로 여기에서 벗어나 큰 에너지의 모습으로 화(化)해서, 아픈 것도 모르고 자유스럽게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맛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밖엔 없죠. 이게 말이니까 그렇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우리네 법망입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한마디 할까요? 취직을 시켜 달라고 돈을 갖다 줬는데 "난 돈을 받을 수 없네."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받으시죠." 그러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허공도 있잖아." 이랬거든요. 그와 같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서 알게 되면 이 세포에서 모두 다 알게 되죠. 세포에서 알게 되면 이 세포에서 통하는 어디든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왕천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죠. 사왕천이라는 건 이 지구의 법망이니까. 지구의 법망입니다. 지구도 법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법망에서 직접 북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왜 북극을 통하느냐 하면, 바다도 북극에서 다 관리가 되니까 말입니다. 바다의 법도 역시 북극에 상응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직접 이렇게 올라가니까 말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악하게 쓰지 않아도 한 생 살고, 악하게 써도 한 생 살 거, 좀 좋게 살면 어떻습니까? 좀 좋게 생각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자유스럽게 마음을 써라' 하고 사람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라면 좀더, 이 마음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나오는 대로 그냥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조금도 참지 못하고. 나오는 생각을 안에서 조절을 해서 이렇게 참고, 좀 생각을 해서 던지는 게 한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막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그냥 생각이죠. 생각해서 잘 말하는 게 한생각이고,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고 욕하고 화내고 이러는 게 바로 중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웃어 가면서 해야 옳을지, 울어 가면서 해야 옳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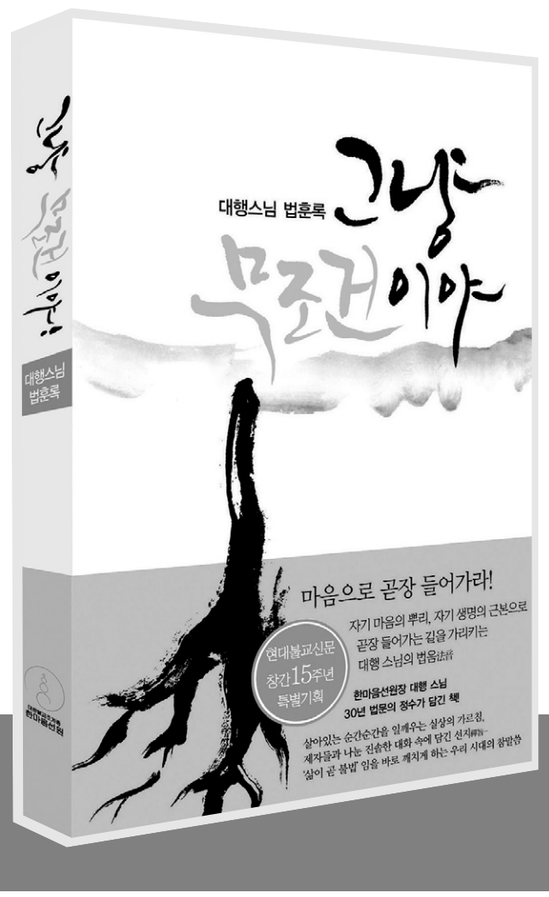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렇게 모두 보는 데가 있고 듣는 데가 있고, 위로 올려보내거나 아래로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있고, 매일 자기 자성이 자기를 관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기 몸뚱이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몸뚱이에 끌려다니면 몸뚱이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성에 끌려다니면 바로 충성이 됩니다. 이건 자기 몸뚱이에 평생을 끌려다니다가 결국 버리고 가요. 그 몸뚱이에 다 충성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 애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바로 내 종이다'라는 얘기죠. 얼른 쉽게 말해서 내 자성신의 종입니다. 몸을 자성신의 종으로 생각해야 좀 보살펴 줄 수도 있고, 아프면 낫게 할 수도 있고, 언짢으면 좋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봐 주는 거니까 몸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지 말라 이 소립니다. 좀 어른스럽게 생각을 하라 이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잘살았다 하더라도 죽었을 때 보면, 거적을 쓰고 죽은 놈이나 허, 좋은 관 속에 들어가서 죽은 놈이나 죽은 건 똑같습디다. 그 애절한 거는 똑같아요. 그 모습이야 물로 가고 흙으로 가고, 바람으로 가고 불로 가고 이렇게 없어지면 그뿐이죠. 그렇지만 이 마음의 근본은 없어지려야 없어질 수가 없는 종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라는 집도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예처럼 내 몸에 끄달리지 않아야 바로 그 몸에서 자기 마음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서 보면 호흡이 제대로 안될 때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소보다도 더 강한 수소가 있지 않습니까? 수소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그 수소로다가 어떡하면 살릴 수 있나 하는 생각들은 안 하죠.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만 해결이 잘되냐 하면 이 중세계에서 모든 생명들이 다 증발해야 돼요. 우리가 전부 증발을 하든지, 불국토가 되든지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철 사는 거 마구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마구 살아선 안 된다. 이 모습이 몇 알갱이나 살겠습니까, 이 모습이.

그런데 우리가 '관찰을 한다' 했을 때, 이 사왕천에서 관찰을 해서 또 원심천으로 가게 되면은 33천의 모든 보살이 검증을 해야 하고, 모두 검증을 해서 이게 북극으로 올라가면 또다시 다른 혹성, 즉 말하자면 우리 생명을 관리하는 북두칠성으로 가죠. 그리고 이 은하계의 별성들은 우리 마음의 근본과 더불어 같이 상응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편리하게 자유스럽게 사는 분들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지구가 큰 덩어리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겉으로만 알지 속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시죠. 내 집에서 살면서도 내 집 하나 제대로 모르고 내 집에서…, 이거 보세요. 이 집에서, 내 몸뚱이 집에서 살면서도 내 집 하나 제대로 못 가눈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어떤 스님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거 왈가왈부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옆도 보지 말고 그냥, 그냥 자기 길만 뚜벅뚜벅 가도 먼 길입니다. 우리가 깨치면 한 찰나지만 깨치지 못하면 먼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라는 집 속을 모르니까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 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사랑은 하되 집착하거나 노예가 되지는 마세요

☞25면에서 계속

나도 말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얘긴데 해서 뭘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해서 잘하면 내 집 내용도 알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어떠한 요소요소가 결부돼서 지구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을까, 또 어떻게 돼서 지구가 움죽거리고 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때로는 북극이 남극이 되고, 남극이 북극이 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 이거 한번들 생각해 보셨어요? 즉 거꾸로, 북극이 북극대로 그냥 있지 않고 남극이 남극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남극이 북으로 됐다가 북이 남극으로 됐다가 이렇게 돌아오거든. 그래도 그 역할을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했다 하면 벌써 이건 일초 전이 과거야. 일초 후가 미래고, 지금 말하는 요게 현실이지. 그러니까 찰나찰나 그렇게 화해서 돌아가는데 어떤 거를 글자로 똑 집어서 요건 요렇다 하고 써 놓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지. 이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구는 요렇게 요렇게 생겼다' 이렇게 써 놓을 수도 없어. 그래 변경을 시켜서 자꾸 그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인간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세요. 아이 때 다르고, 조금 자라서의 상황이 다르고, 더 자라서 다르고, 젊을 때 다르고, 늙으면 또 다르고, 아주 늙어지면 더 달라지고, 또 아예 죽어 버리면 아주 달라지죠. 그런데 죽는 게 죽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내가 죽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할 때에 껄껄 웃을 수 있겠습니까? 웃을 수 있다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웃을 수 있을까 말입니다. 인생이 뭡니까?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하등…, 이것은 내가 정말,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인간까지 올라왔는데 이 인간 중에서도 정말 인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인간, 진짜 인간이 된 인간, 인간 중에서도 더 차원이 올라간 정말 인간들이 있죠. 그럼 관찰을 하게 되면 다 알게 돼요. 속속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내가 아니다 그렇다 할 것 없이 말이에요. 그럼 등수가 매겨지거든요, 차례차례로. 차원대로 등수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래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넓은 데가 촛불로 그냥 꽉 차서 그렇게 켜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거길 구경을 하러 들어가니까 가느다란 초에다가 켜진 촛불, 굵은 데다가 켜진 촛불, 또 다 닳은 촛불 이런 것이 그냥 늘비하더랍니다. 그래서 상세히 물어봤대요, 그거를. "이거는 어째서 초가 이렇게 가늡니까?" "허, 너희들의 마음이 가느니까 가늘지. 이건 마음이 아주 가난해서 몸도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다." 촛불이 다 닳은 거를 보고 "이 촛불은 왜 이렇게 다 닳았습니까?" "이제 들어올 때가 돼서 그렇지." 이러거든요. 굵은 촛불을 물어보니까 "이 굵은 촛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거야." 그러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촛불을 은하계의 별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가장자리에는 보이지도 않는 별들이 있어요. 중간쯤 되면 좀 크죠. 가운데쯤으로 들어가면 더 커요. 더 가운데로 들어가면 더욱 큰 별이 돼 있죠. 군데군데 가장자리로 흩어진 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별들이 많죠. 그리고 은하계도 다 다르죠. 생명들이 많은 은하계들은 크고, 생명들이 적은 은하계들은 작고, 또 축생의 생명들이 있는 은하계는 또 다르고요. 뭐 이루지 못하는 은하계도 많지만, 우주도 많고 은하계도 많고 그렇지만, 그게 다 생명들이 살려면 태양도 만들어야 하고….

태양을 누가 거저 만듭니까? 태양도 태양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법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팽창도 되지 않고 타 버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 생명체가 있으니까 달도 있는 거고, 해나 달이나 동시에 돼 있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지구에만 그렇게 있느냐. 지구에만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죠. 뜨거워도 뜨거운 대로 사는 게 있고 차면 찬 대로 사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고 달이 있고, 태양도 만들어서 쓰죠. 우리가 캄캄할 때 전등 하나 더 달면 환하듯이, 그런 역할밖에 안 돼요. 그것도 우리 마음공부하는 사람, 여기다가 잘 관하면서 열심히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태양도 알고 다 알아요. 에너지 자체가 그냥 우리 산 사람과 같으니까요, 에너지 자체가. 수소 자체라든가 헬륨 자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냥, 살아 있는 우리네 마음과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결부되지 않으면은 태양이 될 수가 없죠. 결부가 되니까 태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나가는 이 생명체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보석으로, 얼른 쉽게 말해서 에너지로 된 인간으로 사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유스럽게 사는 에너지! 에너지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물컵이 됐다가도 에너지로 되고, 에너지가 됐다가도 사람으로 되고, 사람으로 됐다가도 이걸로 되고, 이걸로 저걸로 자유스럽게 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런 소리 하면 미쳤다고 그럴 테죠? 날더러 미쳤다고 그러겠지만 미친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부모 아닌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닌 것도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나와야겠다 들어가야겠다 이게 없느니라. 생이 없기 때문에 사도 없다.'라고요.

지금 그냥 한 가정에서도, 그저 자식들이 나가서 안 들어와도 걱정, 공부를 못해도 걱정, 아파도 걱정, 그냥 뭐 걱정투성이죠. 그런데 본래 이 중세계에서는 그렇게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속썩지 마라 이거죠. 그렇게 착을 두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물같이 살고, 산같이 묵묵히 살고, 그냥 바람같이 살아라 이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바람같이 살고 있어요. 공해서요. 어디 하나나 그냥 있는 게 있어요? 어디 고정된 게 하나나 있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가야 하고…. 항상 말하죠. 때에 따라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 하고 "여보!" 하면 남편 노릇 하고 "얘, 아무개야!" 그러면 아들 노릇 하고 "형!" 그러면 형 노릇 하고, 이건 고정되게 그냥 놔두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한 것이 뭐가 공했느냐? 이것을 의심할 수도 없죠. 그냥 공해서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이렇게 화하니까 그냥 '그거 뭘 가지고 공했다고 하나. 아,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뭘 가지고 공했다고 하나?' 이러지도 말아야죠, 그걸 알면. 그래서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이랬잖아요.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더불어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허허허…. 이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세세틈틈이 벌레까지도 연결이 됐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우린 그것을 오장육부에도 넣고 있어요, 전부.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같이.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연들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이 한 생에 알고 넘어가려면 오직 주인공에 놓고 가셔야죠. 그렇게 그냥 미치도록 열이 나도록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겁내지 마시고요. 토끼가 상수리가 떨어졌는데도 그런 줄 모르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막 달아나듯이, 막 뛰지 말고 침착하게 그냥, 하늘이 무너지든지 상수리가 떨어지든지 돌맹이가 떨어지든지 '너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그냥,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죽는 거는 마찬가진데….' 하는 거죠. 그래서 처형받아서 죽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껄껄 웃으면서 "이제는 내 몸에서 벗어났구나." 이러더래요. 허허허…. 아마 그 안에서 아주 그냥 통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복으로 믿는 것을 없애라.'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네 그림자, 형체의 노예가 되지 마라. 네 몸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몸을 종으로 알아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런 거죠. 아프면 만져 주고 약도 사다 먹이고, 얼마나 사랑해요? 일생을 같이 사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자식지간이나 부부지간보다도 더 애틋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되 집착하거나 노예가 되지는 마라, 이 소리죠. 정말 눈물나는 일이죠. '나를 따라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고 심부름을 하는데 몸이 아프면 되겠니?' 하고 이렇게 만져 주는 그 알뜰한 사랑, 그거면 그만이지, 거기 노예가 돼서 좇아다녀선 절대로 안 되죠. 우리가 자식도 부모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되 집착을 하지 마라 이거죠.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요, 또 내가 이런 말을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가난한 사람이든 돈 있는 사람이든 천도재를 합니다. 이 말 듣고 싶죠? 천도재를 하는데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금방 천도재를 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천도할 자기네 조상이 있다 하더라도…, 조상이 자기 자식을 좀 자식으로 알고 죽었으면 뭘 건데 그것도 모르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탓이지 누구 탓이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천도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관하라고만 이렇게 일러 줘요. 관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서 '돈 생기면 해 드리리다.' 하고 이렇게 하라고요. 남의 돈 빌려다가 천도재 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도 역시 고통을 자꾸 만드는 거니까. 만약에 빌려다가 해서 그걸 갚지 못하고 애탄지탄하면 그 조상들이 편안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다가 빚을 지고 그렇게는 천도재를 하지 마라, 절대로! 누구든지! 그리고 돈이 아주 나올 곳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아주 참, 돈 생기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은 그냥 스님네들이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관하게 만들고 마음을 내서 그냥 해 줘라. 이것이 근본적으로 스님들이 하는 일이고 보살이 하는 일이야. 보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이야.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지어 놓은 보살은 산하대지와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산하대지의 모든 생명들을 키워 내, 살려 내.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그랬어. 모두 부처님 머리에 요렇게, 요만한 부처님을 이고 있지? 그거는 얼른 쉽게 말해서 불종자, 즉 말하자면 남자들의 정자라고 할 수밖엔 없지. 그러니까 부처님이다 이거야. 하늘이다 이거야. 부처님인 하늘과 관세음인 땅! '땅에서 모두 길러 내듯이 일체 만물만생을 길러 내라. 길러 내고 돌봐라.' 이런 책임을 가진 거지, 누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된 게 아니야. 언젠가 딴 데 스님들이 "남자로 태어나게 해 주쇼."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을 봤어. 그게 도대체 뭐 말라빠진 거냐고, 응? 남자로 태어나면 뭘 하고 여자로 태어나면 뭘 할 거야, 이 주머니 속에서? 그리고 남자는 남자대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는 여자대로만 있는 것도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찰나찰나 그 모습 없는 모습으로 그냥 자꾸자꾸 딴 걸로다가 화하지만, 공부 못하는 우리들은 그냥 죽으면 여자가 남자로 됐다가 남자가 여자로 됐다가 또 축생으로도 되고 이러는데, 뭐 그 한 생 남자로 되고 여자로 되고 그랬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난 예전부터 아주, 그런 게 있거든.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 예전에는 산에 늑대가 다니고 여우가 다니고 그랬어. 그렇지만 '허, 먹을 테면 먹고, 맘대로 해라.' 그러니 그걸 뭐라고 말을 할까? 지금도 그래. 그런 거는 있어. 그런 거 딱 한 가지는 있어. 가리지 않는 거, 죽음을 겁내지 않는 거. 죽고 사는 거를 가리지 않고 버린다면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 두려울 것도 없고. 이것이 된다 저것이 된다 할 것도 없고, "이것을 되게 해 주쇼." 할 것도 없어. "잘살게 해 주쇼." 이럴 것도 없고 "잘 먹게 해 주쇼." 이럴 것도 없어.

그 마음이 얼마나 모이고 모여서 그렇게 된 줄 알아?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도 알게 됐고,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도 알게 됐고, 인생 살아나가는 게 다 이렇고, 축생 살아나가는 게 다 이렇고…, '모두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죄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모르는 게 죄구나.' 하는 거를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던 거지. 그런데 항상 껍데기의 노예가 돼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러다가, 또다시 구르고 또 구르고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스님들이 벗어나지 못하면 그 신도들도 벗어나지 못해. 신도들이 벗어나지 못하면 그 불쌍함을 어떡하느냐고.

물고기가 자기 몸뚱이는 하나인데 알은 수만 개를 낳아. 조금 자라면 다 잡아먹히지만 삼분의 일은 살아남지. 그러면 얼만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으로 알지 말고…, 쉴 사이 없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그 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게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가둬 놓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 이런 거를 그냥 왁짝왁짝 벗어 버리려고 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벗어나서 남도 전부 살릴 수 있고, 나도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지금 아무리 산 사람들이 로케트를 명왕성으로 쏴도 명왕성에서 돌아오지도 못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른 혹성이 어떻게 하고 지내는 집인지 그것도 모르잖아. 그러니 우리는 벗어나는 수밖에는 없어.

**그렇게 착을 두고 애쓰지 말고**
**물 흘러가는 대로 물같이 바람같이 사세요**

※위 법문은 1999년 5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제천 금강사

## 불교여자전문대학 학생모집

초발심자와 출가를 원하는 불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특히, 해외 포교 희망자와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환영합니다.

◈ 교육내용

| | 내 용 |
|---|---|
| 불교교리 | ① 경(아함 · 방등 · 반야 · 법화 · 열반 · 화엄경)<br>② 율(4분율 · 5분율 ·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 계율)<br>③ 논(구사 · 유식 · 3론 · 기신론) ④ 선(위빠사나 · 명상 · 선 실습)<br>⑤ 포교론(군법당 · 교도소 등) ⑥ 밀교 |
| 불교의식 | ① 조석예불 · 종성기도 ② 불공 · 시식<br>③ 송주 · 장엄염불 · 방생법회 ④ 승무(천수바라 · 공양무 등) |
| 기타 교양강좌 | 외국어(영어회화) 꽃꽂이 · 다도 · 등공예 |

◈ 모집기간 : 2010년 4월 15일 ~
◈ 개강일자 : 2010년 6월 3일(수) 오전 10시 입학식
(입학식 후 금강경오가해 특강 - 불교TV 방송녹화)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목요일 오후 4시 (매주 12시간)
◈ 모집인원 : 약간명 (기숙사 완비)
◈ 강의장소 : 제천 금강사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 특 전 : 1년 ~ 2년 과정으로 포교사 · 전법사 자격증 획득
출가를 희망하는 분에게는 삭발 · 수계
◈ 교 수 : 활안 · 도기 · 정명스님을 비롯하여 국내외 저명한 학자와 각계 전문인들
◈ 문 의 :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 ☎ 02)969-2410
제천 금강사 ☎ 043)646-3800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

## 성서선해(聖書禪解)




"진리는 하나이다. 그러나 현자들은
서로 다른 이름과 형태로 이를 설명한다."
- 힌두성전 우파니샤드

불경과 성경이 다 같이 우주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이 두 성전에 담겨있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없다.
오직 이 진리를 인간 지혜의 근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말하고 해석했을 뿐이다.

"불경과 성경이 지난 수천년 동안 인류가 이에
의지하여 악을 그치고 선행을 해왔고,
어리석은 마음을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개척해 왔다"
- 성서선해 머리말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께서는
기독교 성경을 선(禪)의 마음으로 읽고 그 뜻을 해석하셨다.

聖書禪解 · 편저: 활안 한정섭 / 발행처 : 불교정신문화원 / 318쪽 / 가격 : 15,000원

· 구입문의 : 02)969-2410 / 010-5611-0657



## 불자 세상보기

이상근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 사회적기업에 주목하는 이유

지난해 10월 불교계에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다름 아닌 '착한 소비-착한 나눔'을 모토로 하는 주식회사 '연우와 함께'가 창업한 것이다. (주)연우와 함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불교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창업한 것이다. 창업 준비과정부터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준비위원회'의 활동을 거쳤다.

그럼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알아보자.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단체(NGO)와 기업의 중간 형태로 수익 창출과 공익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기업이다. 다시 말해, 기업이 이윤 창출을 첫째 목적으로 하면서 사회에 환원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비영리단체는 후원과 기부에 의존하면서 이윤이 아닌 공익적 활동을 추구한다. 사회적기업은 이념과 운영 시스템 자체가 사회 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실천하여야 한다. 즉,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영국이다. 사회적기업의 수가 5만 5000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영국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기업도 있다. 이 기업들은 상호 관계를 중시하고 박애주의를 실천하려는 서유럽 전통이 밑거름으로 태동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는 3만 20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1998년 제정된 비영리활동법인법이 이들 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고용 불안, 복지정책의 후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공동체 파괴는 다시 지구적 공동체,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패러다임 형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비정규직 양산,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복지문제 등이 심각해진 시기인 2005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색이 진행됐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국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289곳이다. 1만여 명이 일하고 있다. 이중에는 아름다운가게, 동천, 노리단, 와이더블유 간병돌봄단 등 제조, 유통, 교육, 문화,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의 취약계층을 도우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접어들수록 사회복지 예산은 늘어갈테니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국 자생적 사회복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용이한 사회복지정책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현재 300여 곳에 못 미치는 사회적기업을 1천개 이상 육성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지자체들도 앞 다투어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을 내놓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육성이 정부의 일자리지원 사업 등 지원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원기간 중 자립적 능력을 키우지 못할 경우 지원이 끊기는 2~3년 후에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적 토대 등을 고려할 때 불교계는 사회적기업 육성의 텃밭이다. 우수한 지적, 인적, 물적 자원의 토대는 생산과 소비, 교육, 서비스 사업 등 다방면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기업의 모델로 손색이 없다. 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불교계 내부의 인식 부족과 기업가정신이 결여돼 도전과 창조를 게을리 하는 풍토는 현재 불교계가 사회적기업을 양성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근현대사 과정에서 소외당한 불교계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몇 가지 뛰어난 아이템에 사회적기업이 있다. 실례로 교육기관과 복지재단, 의료기관 등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중요 서비스에서 불교계는 타종교단체에 비교하면 10%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속에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기업, 지금부터 준비해 시작하면 불교계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 사부대중 칼럼

박지숙
마인드힐링연구소장

# 당신을 위한 꽃등을 밝히며

얼마 전 수덕사에 다녀왔다. 흐드러진 벚꽃과 찬란하게 눈부신 봄햇살은 삶에 지친 우리의 심신을 달래줄 정도로 충분히 아름다웠다.

절입구에서부터 복잡할 정도로 들어선 막걸리와 파전가게, 기념품들을 파는 상점들, 알록달록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취객들까지 다들 예쁘게만 보이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로움 덕분인지, 만물을 포용할 정도의 따뜻한 날씨 탓인지, 오랜만에 바람을 쐬는 즐거운 나의 마음 때문인지는 헷갈렸다.

더군다나 한없이 은혜로운 부처님의 그늘 아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그 또한 더더욱 두손 모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벚꽃 향기에 취해, 막걸리 냄새에 취해, 사람들의 흥겨움에 취해 올라간 수덕사 앞마당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원만하고 아름다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연등들로 가득히 넘실대고 있었다. 저마다 주인을 상징하는 꼬리표를 하나씩 달고서는 열심히 그들을 위하여 축원하는 불을 밝히면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 보였다.

나와 함께 간 지인은 얼마 전 갑작스런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직원을 위해 영가등을 하나 접수하고 달았다. 아마 지금도 자태를 뽐내는 연분홍 꽃등 가운데 소박하고 하얀 영가등은 고요하게 빛을 내고 있을 것이다. 가는이가 외롭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불을 밝히면서. 이처럼 등은 우리에게 '불밝힘'을 가장 크게 상징한다. 어둡고 깜깜한 무명의 혼탁함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가듯이, 나의 인생길을 바르게 안내해주고 나의 무명을 환하게 밝혀 지혜광명의 마음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지혜광명의 마음자리만 제대로 잘 찾는다면 늘 부처님과 같은 자비로움과 평온함을 유지하며 누구나 바라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광명의 마음자리라 함은 찰나로 변하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여(如如)하게 바라볼 줄 아는 내면의 통찰력과 타인을 진심으로 보다듬고 품고 갈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일[수심(守心)]이라 생각한다.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라 하고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고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고 한다. 있는 마음자리 그대로가 도이고 모두가 부처인데 힘들고 괴로운 까닭은 무엇일까? 나의 마음을 수심(守心)하지 못하기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변덕을 부리며 분노하고 슬퍼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헤매이게 되는 것이다.

태양 광명은 잠시 비구름에 가려져 빛을 잃을 수는 있어도 비구름이 지나가게 되면 본래의 빛남을 찾아 제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나의 마음도 잠시 세속일과 망념에 가려져 있다하더라도 자신의 청정한 본래 자성을 분명히 지키면 [守心] 깨달음이라고 하는, 불밝힘이라고 하는 태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달마 이래 최대 번창된 교단을 이루었던 홍인대사는 "스스로 본심(本心)이 바로 부처인것을 알게 되길 바란다. 천경만론(千經萬論)이 각자 본래 진심 지키는 것[수본진심(守本眞心)]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심이 본래 청정하며, 불생불멸하고 분별도 없는 자성 원만한 청정한 본래 마음임을 알아야 한다. 올해는 기왕이면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은 물론 나와 무관한 생명체를 위해서도 수본진심(守本眞心)의 등불을 밝혀 봄은 어떨지. 사실 나와 무관한 생명체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숨 쉬고 마음을 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 산하대지(山河大地)를 비롯한 이 우주의 에너지는 나와 함께 숨 쉬고 나의 마음과 끊임없이 주파수를 맞춰가며 순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발맞추고 있는 우주라는 에너지의 수고로움에 잠시나마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이번 사월초파일엔 나와 함께 수본진심(守本眞心)하고자 애쓰고 있는 나 아닌 당신과,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를 위하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칼라인 핫핑크 꽃등을 우리집 앞마당에 달아볼까 한다.

## 사 설

### 아픔 많은 때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

3일 서울광장에 부처님오신날을 상징하는 봉축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다. 올해의 봉축등은 속리산 법주사의 쌍사자석등을 형상화해 '화합의 등'으로 이름 붙였다.

점등식에는 봉축위원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와 오세훈 서울시장, 문화체육관광부 조창희 종무실장, 용산참사 유가족, 외국인노동자,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 주한외교사절, 불교신도 등 2000여 명이 동참해 두손 모아 화합을 발원했다.

같은 날에 광주, 7일에는 부산, 대구에서는 이미 4월 16일에 봉축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전국 방방곡곡에 봉축을 장엄하는 오색등이 거리를 수놓고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보는 이의 마음을 푸근하게 어루만지는 가운데 다양한 봉축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유난히 아픔이 많은 이 즈음이다. 천안함 침몰, 남북관계의 경색, 4대강과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구제역 확산 등으로 너나없이 마음이 천근만근이다. 여기에다 잦은 비와 저온현상마저 겹치니 시름이 더욱 깊다. 30여 종단의 참여 속에 구성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올해의 봉축 표어를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세상'이라고 선포했다. 이러한 때에 맞는 부처님오신날이기에 부처님의 가르치신 화합의 가르침이 더욱 간절하다.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온 불교계가 화합을 염원하며 100일기도를 입재해 갈등으로 골깊어진 우리 사회에 부처님 오신 뜻을 회향했으면 한다.

### 승가교육 개혁, 소통에 기반해야 한다

조계종 승가교육의 대변화가 예고됐다. 4일 '승가 기본교육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교육원이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23개 강원 중 10개 이상이 인가 취소되던지 아니면 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변화의 폭과 깊이가 상당하다. 변화가 큰 만큼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안)을 제시한 교육원은 기본교육기관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출가자 감소를 꼽았다. 조계종의 2008년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2007년에 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출가희망자는 336명이었으나, 2008년엔 287명으로 크게 줄었다. 출가연령의 고령화 현상도 뚜렷해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에 집중되고 있다. 출가자가 300명 안팎인데 강원과 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불교대학, 기초선원 등 기본교육기관은 26개에 이른다. 이런 수치를 내놓은 통계자료집을 보면 기본교육기관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원의 방침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교육원이 제방 강원의 사정을 간과할 수도 있다. 이 간극을 좁혀야 하는데, 그 과정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시한을 미리 못박기보다는 충분한 소통에 기반해야 한다. 아울러 서로 말로 드러내지 못할 부분도 헤아리는 신뢰의 발걸음이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법당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설치공사
사찰 CCTV 설치 (적외선 카메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법당 앰프
PWA-110 320×230×270mm...8.5kg
PWA-730 430×275×275mm...4kg
PWA-3000 200×480×230mm...11kg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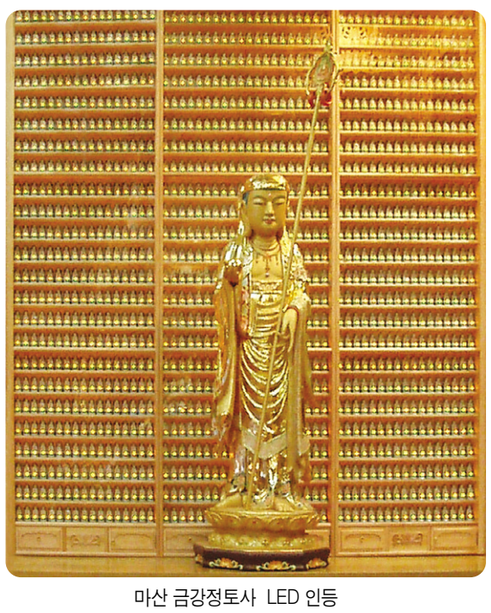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가열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대덕큰스님과 불자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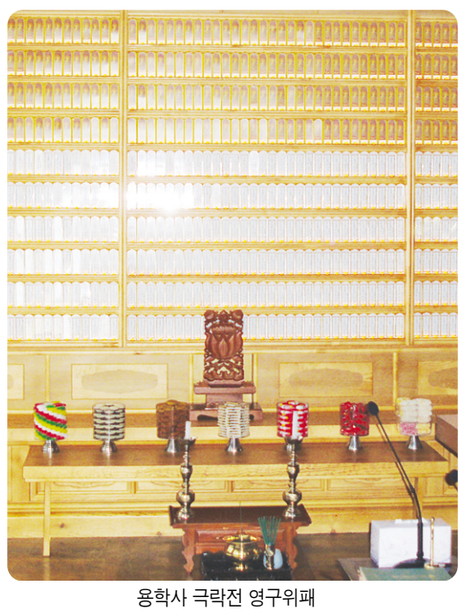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 아름다운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찬덕 LED 전구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 종류 | 일반전구 | 찬덕 LED 전구 |
|---|---|---|
| 소비전력 | 10W | 2W |
| 효율 | 10 lm/w | 50 lm/w |
| 연간전기료 | 2146원 | 429원 |
| 수명보장 | | 30,000 시간 |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왕생극락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 름 등











공 단 등


영 가 등


종등


종등

###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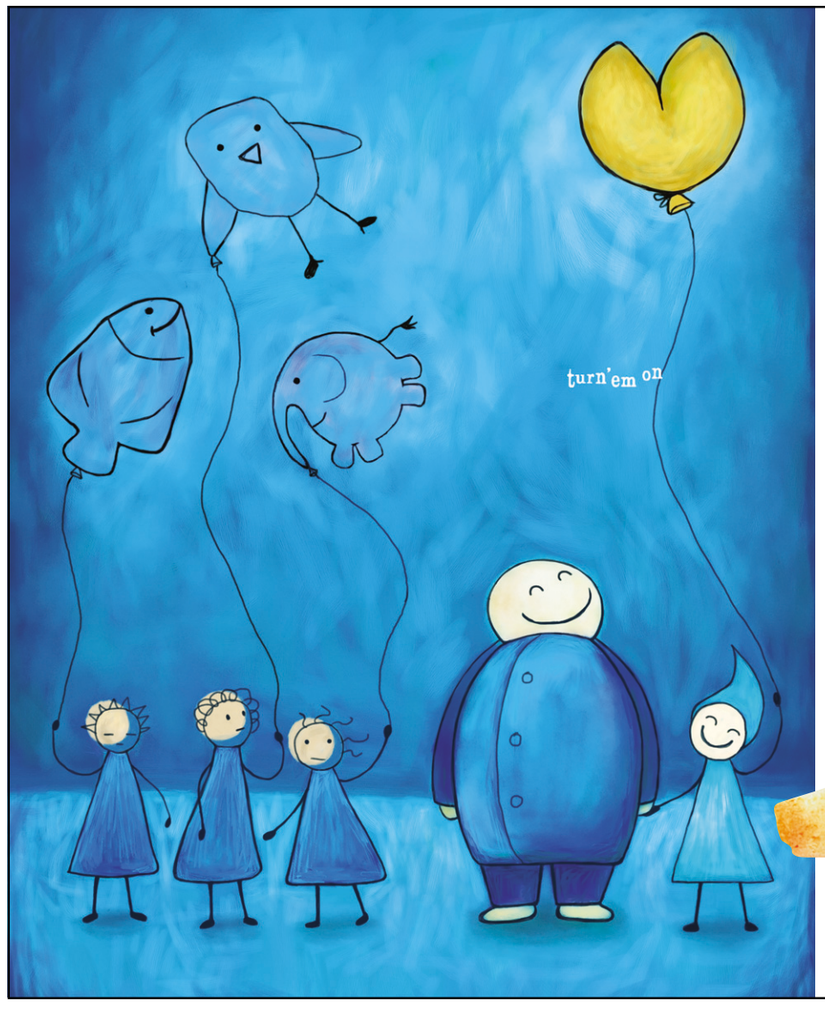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모두 다른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사찰홍보,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뒷면 : 법구경

이 몸은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쉽나니
이 마음을 튼튼하게 정비하라
-법구경

▶앞면 : 사찰명 및 단체명

현대불교신문사
봉 부처님오신날 행
http://www.hyunbul.com TEL 02)2004-8215

※ 500개 부터 주문 가능합니다.

법과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